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 031-257-1841

제186호 2020년 12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외국인주민, 한국민속촌에서 신나는 한국문화 탐방’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수화)는 용인시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탐방을 민속촌에서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용인시 거주 외국인 110명이 11월 19일과 21일 이틀 동안 참여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단체이동이 불가하여 각 참여자 자유 관람 및 자유 해산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은 한국 민속촌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영의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외국인주민도 달라지는 방역수칙 지켜요

11월 24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 지 5일만에 이뤄진 조치로 그만큼 현재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은 더 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밤 9시 기준을 잘 기억해야 한다. 식당에서는 밤 9시까지만 앉아서 식사할 수 있고,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사를 할 때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

우기 ▲칸막이 혹은 가림막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아예 집합이 금지돼 영업할 수 없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헬스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 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 관람도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된다.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조사도 영향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피시방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엔 예외다.

학원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던 외식 활성화·숙박·여행 할인쿠폰 발급 사업도 24일부터 중단됐다. 이미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쿠폰을 발급받았더라도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다. 단, 농축산물 할인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밀집도도 현재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강화된다.

다만,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 치는 시험으로 대학 입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로 인식된다.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는 12월 7일까지 2주간 계속되며, 방역 당국은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보고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구성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11월 7일부터 5단계로 개편됐다.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 대유행)로 나뉜다. (중국 26면, 베트남 9면 러시아어 18면)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4, 5, 23, 26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9, 10, 13, 19, 26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2, 3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1, 21, 41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2, 4, 5, 14, 17, 18, 23, 29, 30, 35, 47 네팔어(Nepali) नेपाली 31 인도네시아어 Indonesian language 25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34 생활정보 Information 15, 20, 21, 23, 24, 31, 34 코로나19 Covid-19 1, 9, 18, 26 금융 Finance 5, 11, 19, 21 인권 Human Rights 6, 10, 25 도서관 Library 7, 42 비자출입국 Visa 14 법률상담 Legal Advice 46 한국문화 Korean Culture 17, 35 나의 학습 My Study 2, 4 인터뷰 Interview 6, 12, 47 주거 Residence 10, 13, 23, 27, 29, 33, 41 교육 Education 45 기획 Project 5, 26, 36 이주배경청소년 3

경기도 외국인주민 '다문화 의료 코디네이터' 과정에 참여하세요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курс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ординаторов



2020년 경기도 다문화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행사일정

| 구분 | 시간 | | | 내용 |
|-----------|-------|-------|------|---------------------------|
| | 부티 | 개시 | 종시간 | |
| 12/15 (화) | 09:30 | 10:30 | 60분 | 행사지침 |
| | 10:00 | 10:10 | 10분 | 행사일정 및 공지사항 |
| | 10:10 | 12:00 | 110분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이해 |
| | 13:00 | 14:50 | 110분 | 고령 인력 교육 : 고령 용어 및 서비스 교육 |
| 12/16 (수) | 15:00 | 17:00 | 120분 | 통번역어휘 : 의료코디네이터 현장 실무, 이론 |
| | 10:00 | 12:00 | 120분 | 환자권 환자 권리 이해 및 실무 |
| | 13:00 | 15:00 | 120분 | 의료코디네이터 공통 업무 및 업무 |
| | 15:00 | 15:30 | 30분 | 수료식 및 수료증 전달, 기념 촬영 |
| 2일차 | 15:30 | 15:30 | 수료식 | |

※ 참가 강의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교육비는 없으며, 2일 교육 전 일정 참여 시 수료증이 수여 됩니다.
 ※ 강의와 진행은 한국어로 진행 됩니다.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о управлению индустрией глобальной защиты здоровья в Кёнгидо проводят набор на курс "Кур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ординаторов по Кёнгидо 2020г".

Есл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ыбор професси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думаю,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ия переводчика. Имея 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выучи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игранты могут помочь сво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е, финансы, юриспруденция, туризм, медицина и так далее.

С рос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а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ю особую весомую роль занимает професс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ординатора. Корейская медицина яв-

ляется передовой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и со всего мира приезжают иностранцы на лечение в корейских клиниках. К тому же, в связи с общемир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ей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фессий, и координат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выросла в разы.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о управлению индустрией глобальной защиты здоровья в Кёнгидо для развития активности индустрии провинц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брачным мигрантам и желающим работать медицинским координатором 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желающих объявляют набор на курс "Кур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ординаторов по Кёнгидо 2020г". В курс входят основные знания для понимания професс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онлайн занятия по повыш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менторинг потен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нный кур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2 дней (без проживания) 15 и 16 декабря в Суwon конвеншн центре (수원컨벤션센터) на 2 этаже. Адрес для навигатора: 수원시 광고중앙로 140 하동, 202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онирования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асписании могут быть изменения.

Об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е.

Прослушавшим весь 2х днев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сертификаты о прохождении курса.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й учеб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й учеб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Проживающи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мигранты из Вьетнама, России, Монголии, Китая, Казахстана и т.д.

-Желающие работать или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профессией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ординатор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бор : 20человек.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файл заявки прикреплена ниже)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и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leesongmi@gg.go.kr или по факсу 010-8008-2429.

•Вопросы по тел. 031-8008-4784 Отдел индустрии здоровья и медицины (경기도 보건의료과 의료산업팀)

Думаю,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шанс для брачных мигрантов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в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фесси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этому,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следует поспешить записаться на данный курс. Повышайте уровень своих знаний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вместе с репатри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ой Ки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다문화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직업 선택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직업 중 하나는 통번역사입니다. 모국에

서 교육을 받고 한국어를 배운 이민자들은 교육, 금융, 법률,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번역사가 우선 순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 의료관광이 성장함에 따라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이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 산업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다문화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의료 통번역가의 직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 수습 코디네이터에 대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숙박 없음)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수원시 광고 중앙로 140 하동, 202호)

다만, 코로나19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2일 교육 모두 참여 시 수료증이 수여 됩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도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성남2, 더민주) 위원장이 지난 11월 23일, 2019년 설립 이후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보호

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부터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언론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여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협회 임원진이

해당 의회 등을 직접 찾아가서 시상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박창순 위원장은 평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분현답의 소신으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장으로서 여성과 보육, 평생교육,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정책 실현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언론 활성화

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박창순 위원장은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하여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쉽 없이 달려온 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에서 들려오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11월 21일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허구연 무지개 리틀 야구단'의 2020년 야구훈련 종강을 진행했다.

이날 야구훈련의 마무리는 야구단 및 고양시 체육정책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가 지켜봤다. 2012년 창단한 '고양시-허구연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야구를 통해 체력증진은 물론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가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야구단 운영은 고양시청의 재정지원과 단원모집 부분에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고 있다.

야구단에 참여한 임재현 (한내초 3학년) 군은 "매주 야구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신났다"며 "야구를 배우면서 만난 친구들과 벌써 헤어지게 돼서 섭섭하다. 벌써 내년 개강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허구연 단장은 "창단 이래 야구에 대한 소질이 눈에 띄는 6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가정형편상 야구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뜻있는 후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구연 단장은 또 초등학교 시기에 스포츠 활동이 주는 장점을 피력한 후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야구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 훈련마다 철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커서 매 훈련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훈련태도와 집중력에 코치와 감독은 더 질 좋은 훈련을 준비하고 교육에 힘썼다"고 전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스포츠의 규칙과 협력을 배우고 단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성 및 자신감을 키워 가정과 학교에서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다. 허구연 단장과 고양시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양시-허구연 무지개 리틀야구단'은 내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야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21년 신규 단원은 내년 상반기에 모집한다. 송하성 기자

'겨울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모집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녀 우선 선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는 방학기간을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으며 진로 탐색 및 시정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직장체험 연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근무 기회뿐만 아니라 직접 개선방안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고양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녀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선발된 연수생 100명은 시청, 도서관,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 보조, 자료실 운영 등 공공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20일이다. 근무 시간은 하루 총 5시간으로, 배치 부서의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임금은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10,140원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휴학생은 가능하지만 대학원생과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전산 무작위 자동추첨을 통해 연수생 100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12월 17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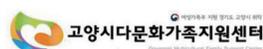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모집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75-37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12월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명 | 사업일정 | 장소 | 내용 | 대상 | 담당자 |
|-------------------------|------------------|-------------|---------------------------------|-------------------------|------|
| '다 잇다' 멘토링 | 2020.11.~2021.4. | 대상자 가정 | 맞춤형 학습, 멘토링(자녀 심리.정서지원) |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21명 | 장경순 |
|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자조모임 '씨밀레' | 12월 2일, 3일 | 온라인, 센터 교육실 | 역량강화 교육, 정보 공유 등 | 이해교육강사 30명 | 정수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평가 | 12월 2일, 9일 | 센터 교육실 | 사회통합프로그램 2, 3단계 평가 | 평가대상자 18명 | 조은미 |
| 자조모임-에이핑크 | 12월 4,11일 | 센터 교육실 | 베트남 전통춤 연습 | 결혼이민자 8명 | 팜투후엔 |
| 자녀생활서비스 및 중도입국자녀 소그룹 활동 | 12월 5일 | 각 가정 | 시간을 만들다(원목 시계) 키트 및 만들기 영상 제공 등 |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 중도입국자녀 35명 | 박기숙 |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 | 12월 18일 | 센터 교육실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 및 활동 공지사항 안내 | 서포터즈 12명 | 송지남 |
| 청소년교육지원 '꿈나무 역사놀이터' | 매주 토요일 | 온라인 | 역사놀이지도, 역사문화탐방, 역사전래놀이 등 | 다문화자녀 15명 | 박기숙 |

문의 031-938-9801



Центра цифрового обучени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디지털배움터

다문화가족의 디지털 학습 책임지는 '경기디지털배움터' 각 시군마다 설치 이용 편리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все больш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бра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Особенн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адаптации и комфортному прожива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а первых этапах.

Так, недавн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появились новости об открытии Центра цифрового обучени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Центр цифрового обуче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цифровых устройств из-за плохого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анный центр был откры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И민자통합센터, уполномоче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для поддержки стабильной жизни членов в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грая ведущую роль в обучении цифровым навыкам. Все проводимые курсы финансиру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поэтому все занятия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ы.

16 ноября уж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о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теме "Основы работы с цифр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я могу пойти куда угодно". В содержании занятия ставился акцент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м определении маршрута до необходимого места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для автобусов, метро и карт. Дети из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классе, научились искать названия пунктов назначения в приложении карты, указывать свое текуще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и получа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более быстрым, либо же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Кроме того, они узнали, как использовать функцию

«Просмотр улицы»,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определять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и облегчить поиски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ъекта.

В будуще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занятия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каждую субботу. Содержания занятий также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ых навыков по цифр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Так темы предстоящих курсов будут следующими: 2-я неделя - "Мастерское владение смартфоном" (스마트폰 완전정복); 3-я неделя - "Теперь я фотограф" (나도 이제 사진작가); 4-я неделя -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от А до Я" (SNS 제대로 배우기).

Все гражд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Все желающие должны про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Центра цифрового обучения" (<http://www.xn--2z1bw8k1pjz5ccumkb.kr/>) и подать заявку через веб-сайт 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кий колл-центр.

Я считаю такие курсы будут очень полезны не только детям, но и взрослым. Ведь такова современная реальность, что сейчас наши жизни связаны со смартфонами и без грамотного владения им порой бывает очень трудно. Ведь технологии не стоят на месте. Уже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магазинов где стараются не принимать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и, возможно,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все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будут активны только через смартфон.

매년 한국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쾌적한 한국생활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에 디지털배움터 개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지털학습센터는 한국어가 부족한 이유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무료 교

육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가 지난 10월에 개원하여 디지털 기술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의정부에서도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므로 모든 수업은 완전 무료입니다.

11월 16일에는 '디지털 기초-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첫 번째 수업이 열렸습니다. 강의 내용은 버스, 지하철 및 지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경로를 혼자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지도앱에서 목적지 이름을 찾고,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더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위한 길 찾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스트리트 뷰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장소를 찾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내용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습득에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강좌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주차 "스마트 폰 완전 정복" / 3주차 "나도 이제 사진 작가" / 4주차 "SNS 제대로 배우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디지털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http://www.xn--2z1bw8k1pjz5ccumkb.kr/>)를 방문하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능력이 없이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금을 받지 않으려는 상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모든 거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Не упустит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50.000 вон»...Изменен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ыплат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5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달라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пополнения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также впервые получают различны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льготы.

Проект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выплаты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по которому воз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до 50.000 вон.

Если вы из тех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е еще не получили каких-либо льгот, не упустите эту возможность.

По Кёнгид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ен проект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выплаты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ограниченно)», продлен крайний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один месяц с 17 ноября по 17 декабря, чтобы больше людей 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Кёнгид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ыплату до 50.000 вон, включая 30.000 вон как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выплаты за пополнение 200.000 вон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и 30.000 вон выплачиваются, если 200.000 вон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Изменения проект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выплаты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Ознакомимся в форме “Вопрос & Ответ.”

В: Какого содержание продлен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ыплат?

О: Кёнгидо продлит период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ыплат на один месяц до 17 декабря и впервые упростит требования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при пополнении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а также немедленно выплатит 20.000 вон в виде льгот и 30.000 вон в вид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ыплат при пополнении на сумму 200.000 вон.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упрощено существующее требование к пол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200.000 вон по 1 карте на человека, теперь можно суммировать карты. Одна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выпла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на карту, по которой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200.000 вон без остатка последними, и известно только в рамках той же операционной платформы Кёнги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В: Ка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тем, кто впервые проводит пополнение?

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условием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ыплат было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полнения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200.000 вон или боле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уммы в течение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так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зличные льготы. Однако с продлением крайнего срока в этот раз для лиц, пополнивших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впервые, было добавлено нов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Это значит то, что стандарт начального пополнения основан на общем произведенном пополнении и относится к первому начислению в течение периода, сделанному участником, который еще не пополнил счет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В случае первого пополнения после 12 ноября только 200.000 вон или более можно пополнить за один раз,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используются они или нет, возможно немедленно получи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30.000 вон.

В случае первого пополнения 200.000 вон или более за один раз после 12 ноябр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используются они или нет, можно немедленно получи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30.000 вон. Однако, если сумма пополн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200.000 вон, потребительская выплата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льготу, необходимо пополнить счет как минимум на 200.000 вон за раз (без накопительной заявки).

В: Каков срок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ыплат? Что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течение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한글 기사 19면>

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выплаты могут быть аннулированы, их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месяца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Кроме того,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выплаты применены к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е, так чтобы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до общих пополнений и других гос. денежных выплат.

外国人居民在韩国生活时应懂得的基本礼节 외국민주민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

去其他国家的时候,由于文化差异而被误会的情况很多.随着年龄的不同,语言也发生了变化,在儒教社会的影响下,韩国仍然存在很多应该遵守的礼节,因此需要特别注意的地方很多.由于无心的行动或言语有可能成为否定我的因素,因此有必要了解在韩国生活所必需的礼仪.

#要注意年纪大的人!

韩国很重视“年龄”.虽然正在逐渐发生变化,但是根据年龄,对待对方的态度和语言还是各不相同,称呼也各不相同.年纪小的人对年纪大的人不使用敬语,就认为是没有礼貌,年纪大的人对年纪小的人很随意用非敬语.因为来韩国学习使用敬语并不容易,所以外国人即使用非敬语对年长的人说话,也会被理解为“语言生疏”,但这同样让人感到不舒服.

另外,韩国人认为,年纪小的人被年纪大的人批评时,正视年纪大的人的眼睛是不礼貌的.特别是在年龄差异较大的情况下,有时正视年长者的眼睛时还会被认为在追问或进行反抗.

直呼长辈的名字也是无礼的行为.在韩国,要谨慎称呼朋友或年龄小的人.在正式场合见面时,给对方的姓氏加上头衔是礼节.接收物品时也要用双手接收.即使不是长者,在

韩国单手接物也会被认为是不礼貌的.打招呼的时候,如果年长者低头问好,会认为是很有礼貌的行为.

#在公共场所或者街道上必须守护的礼仪

韩国在公共场所或街道上有相互要遵守秩序.在公共场所大声喧哗或不排队是不礼貌的.

在公共场所,以手机为礼节模式,在地铁、公交车、公共厕所大声通话属于不礼貌的行为.在公共机关或文化艺术设施等多数人使用的空间里大声说话也是不礼貌的行为.在餐厅、公演场、地铁等场所时,如果已经有很多人排队,就应该按顺序排队.不遵守排队是破坏彼此秩序的错误的行为.

#戴口罩是韩国重要礼仪

最近,在韩国,由于新冠病毒,口罩的使用方式发生了变化,成为了必须遵守的重要礼仪.

政府和公共机构等公共设施和地铁、公共汽车等公共交通、咖啡厅、餐厅等所有地方都将义务性地戴上口罩,因此,如果不戴口罩,不仅不能入场,还将被处以罚款.虽然也有利用围巾、手帕等堵住嘴的情况,但在这些场所不会给予认证,一定要戴口罩.在韩国,如果不戴口罩,不仅是对自己,还会对其他人的健康造成危害,因此会受到指责.

#不要乱扔垃圾!

韩国应该遵守垃圾分类回收制度.利用规定的垃圾袋,必须在规定的日期内扔掉,如果将其装在一般的塑料袋内扔掉,有可能处以罚款.最近在京畿道用多种语言介绍了分类回收的方法,还可以通过出身国家共同体或多文化家庭支援中心等学习分类回收垃圾的方法.

不要因为街上看不到垃圾桶就随便扔废纸.装在包或口袋里,遇到垃圾桶时,扔到垃圾桶里.

#日常生活中琐碎但要记住的礼仪

在韩国,被邀请来家做客的时候一定要脱鞋.在生活空间和社会活动空间分离的韩国,如果不这样,是非常失礼的.

要避免对别人指指点点.如果用手指向对方指指点点,即使是毫无用意,在韩国也很容易被认为是无礼的行为.

夏天也有男性移住民在自己家里脱掉上衣生活的情况,如果是在室内,也没有关系.但为了扔垃圾,即使只是在门口也要穿衣服.脱掉上衣生活显得极不礼貌.特别是,韩国女性认为脱掉上衣走路的人是一个可怕的人,因此会回避.也有很多人感到厌恶.<한글 기사 36면>

吃饭途中擤鼻涕或打嗝等行为也属于失礼.

“이주민 인권 소중하다” 발언했다가 문자폭탄 받은 경기도의원

〈인터뷰〉 신정현 경기도의원, 강단과 패기로 무장한 청년 정치인이 말하는 다문화 정책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 한국의 건국 이념은 바로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세 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됐다.

이 이념이 ‘널리 한국인만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닌 이상 홍익인간은 다문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동등하고 또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정신을 일깨운다.

청년 정치인으로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신정현(39) 경기도의원(더민주당, 고양3)은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주목할만 하다.

2012년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 두고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총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이후 무작정 제주도 강정마을로 내려가 평화운동에 헌신했다.

1년 반 뒤 고양시로 돌아와 청년, 자치, 통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되돌아보며 이를 사회에 환기시키는 청년 전담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300만 이주민 시대에 그에게는 뜻 밖의 안티팬들이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와 난민, 외국인에게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의원님은 매국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배신하는 정치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7월 신정현 의원이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소중히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안티 다문화 카페’ 회원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런 메시지가 자그마치 700통을 넘었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나누어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주민 일반이 한국인 일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로 특정인들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데에는 동의하

지 못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에서 살 때는 이주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정현 의원이 안티팬들에게 직접 보낸 답글이다. 돌이켜보면 그의 의정활동은 꼭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 약자를 위한 정치 활동 그것이 바로 신정현 의원이 추구하는 바다.

-다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량 문제 메시지를 받고 당황했을 것 같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문자를 지난해 700통 이상 받았다.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다문화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표적이 됐다. 그들에 대한 생각,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주민 정책을 반대하는 분들은 외국인주민의 범죄 등 혐오성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는데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는 100가지 얘기를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기본 상식, 민주성, 인권 등의 가치 위에 판단해야 한다. 정치는 모든 민원을 다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자 결과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한 이력이 인상 깊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평화운동은 어떤 의미인가?

“평화의 가치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언어와 배경도 따지지 않는다.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를 돌아보면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강정마을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다른 활동가들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10만명을 모으기로 했다. 사이트를 열고 전세계인에게 연대를 요청했다. 1달 반 만에 2만 7천명의 세계시민이 서명을 보내줬다.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누군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평화운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청년 정치인이고 청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많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청년으로 온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의 청년과 이주민 청년이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들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시키는 대로 졸업했다. 기성세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보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율이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무기력과 우울증이 이토록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 온 20~30대 청년들도 모국에서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사회가 요구하고 제안한 대로 살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래를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살다가 찾아온 곳이 바로 한국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기성세대는 ‘대학 나와 노는 것이 합당하냐’고 청년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든 것이 바로 기성세대이다. 우리 모두가 기피하는 일 바로 공장과 농장에서의 일을 대신해 지탱해 주고 있는 이들이 이주민이다”

-그럼에도 내국인 청년과 외국인 청년들에게는 나이 외에 어떤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무엇을 할 수 있나?

“한국 청년과 이주민 청년이 연대하기를 바란다. 일반시민 가운데 사회복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이 20대이다. 40대 실직이 증가하면 국가의 위기라고 하면서 20대 실직이 지난 3월에 13만명이나 증가했지만 누구도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이주민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마잔가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부당해고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20대 첫 취업자도 외국인노동자도 아무 때나 쓰고 버리는 사회적 부조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내외국인 청년이 함께 포용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방안을 찾고 그 힘을 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300만

명에 다가서고 있다. 혹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만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나.

“2018년 7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날린 풍등에 고양 저유소의 탱크가 폭발해 휘발유 180만 리터가 불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스리랑카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폭발의 원인이 됐다며 그를 중실화죄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풍등 하나로 폭발하고 그 모든 책임을 외국인근로자 1명이 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정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마녀사냥이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당시 수사를 담당하는 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과한 수사로 외국인을 궁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왜 의원님은 범죄자 외국인을 두둔하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화재 감지센서 미설치, CCTV 관리자 부재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이 큰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 인권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부분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고 자신만 한국에 온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족단위 이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과 가족을 분리하는 것으로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드는 일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식민적 관점이라고 본다. 과거의 식민지배가 영토를 지배함으로써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식민지배는 경제를 지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주의 허가가 없으면 직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등 현재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온전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정책의 경직성과 편협성을 해결해야 한다.”

〈7면에서 계속,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 복리 위한 노력 인정!

김세영 센터장, 일산동부경찰서 감사장 받아



김세영 이민자통합센터장이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평소 지역사회의 외국인주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온 김 센터장은 경찰 행정에도 적극 협력해 감사장을 받게 됐다.

이민자통합센터는 지난 10월에 경기도 디지털배움터를 개소하고 외국인주민의 디

지털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는 한국어가 서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법무부 위탁 기관이다.

이민자통합센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디지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디지털배움터'를 검색해 홈페이지나 대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도서관 책잔치 '도서관이 살아있다'

다문화가족도 12일까지 3일간 온라인 참여

고양시(시장 이재준) 도서관센터는 오는 12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3일간 '2020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를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된 고양시 도서관센터 대표행사인 '책잔치'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2020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는 '도서관이 살아있다: 라이브러리'라는 슬로건 아래, 작가 북토크와 강연, 독서토론, 체험 프로그램, 책영상 공모전,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북토크는 총 7개 분야로 ▲그림책 분야- '어서오세요! ㄱㅇㅇ 뷔페!'의 최경식·박정섭 작가 ▲영화 분야- '남매의 여름밤'의 윤단비 감독과 이화정 씨네21 기자 ▲예술 분야- '오늘의 기분과 매일의 클래식'의 조현영 작가 ▲사회학 분야-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의 김성우, 엄기호 작가 ▲소설 분야- '일곱 해의 마지막'의 김연수 작가, 강윤정 문학동네 편집자 ▲에세이 분야- '부지런한 사랑'의 이슬아 작가, '어린이라는 세계'의 김소영 작가 ▲과학 분야- '이지 사이언스'의 이지유 과학큐레이터 등이 진행을 맡는다.

이번 북토크는 실시간 온라인과 소규모 현장참여를 병행할 예정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나 고양시 도서관센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진행할 계획이다.

독서모임은 김민영, 강원임, 권인결 작

가가 진행하는 독서토론 3개와 이청수, 이은지 사서가 진행하는 책모임 2개가 준비됐다. '독서모임은 처음이라'라는 주제로, 책을 읽고 난 후 느낌과 생각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독서모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성인을 위한 '수제 장서인 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나만의 책 만들기'가 진행된다. 책과 관련된 영상이라면 무엇이든 담아내는 책 영상 공모전 '야 너두, 북투버'는 현재 접수 중으로 이달 26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고양시 도서관센터 책잔치 관계자는 "현장에서 함께 책으로 이야기하던 감흥을 모두 온라인으로 담아낼 수는 없지만,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의 각 프로그램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www.goyanglib.or.kr)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독서진흥팀(7031-8075-90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유경옥 도서관센터 소장은, "고양시 도서관은 올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며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약 도서 대출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랜선독서 등 상황에 맞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이주민이 사회의 문제라는 비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6면에서 이어짐〉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국인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외국인을 도와주느냐'고 경제 논리를 내세운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 사회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외국인이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와 복지의 문제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분노의 대상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이주민이 3D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 '내국인도 어려운데 왜 외국인을 도와주느냐'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사회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힘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청년 외국인 주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어머니가 과독 간호사로 독일에서 4년 동안 일하셨다. 당시 독일에 간 한국인들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머니는 급여와 복지혜택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국가로 성장해 독일과 같은 정도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고 살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고 침을 뱉거나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내국인과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신청현 의원이 '이 인터뷰가 기사화 되면 또 문자 메시지 폭탄이 올 텐데...'하며 걱정을 한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지 말지 그랬냐고 물었다.

"저렇게 정치하면 2년 뒤에는 못 볼 거야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지금이 순간 소외되고 배제된,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과 패기, 바로 청년의 힘이다.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정치인생이 더욱 기대된다.

지난 11월 17일 오후, 인터뷰를 진행한 고양이민자통합센터에서 늦가을 낙엽이 쏟아지는 거리로 그와 함께 나섰다.

송하성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 안산, 오늘도 성장과 발전 위해 달린다

안산시-비비큐 다문화특구 활성화 협약, 다문화어울림공원 포토존 설치 등 심없는 노력

청년 창업·다문화특구 활성화 협약

안산시가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내 치킨 브랜드 1위 기업인 제너시스비비큐와 ‘청년·다문화가정 창업지원과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및 다문화가정 창업가 육성 지원 △다문화특구 활성화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각종 지원 △창업 희망 청년 및 다문화가정 추천 등 취약계층 창업지원 및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세부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안산시가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제너시스비비큐는 창업에 필요한 시설·교육, 인프라, 운영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너시스비비큐는 이를 통해 안산시 청년 및 다문화가정의 매장 창업 지원은 물론,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에 복합문화공간 건립도 지원하는 등 안산시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합문화공간은 외부 관광객 유입을 높이고 다문화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도록 추진되며,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시설 규모 등은 시와 제너시스비비큐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문화어울림공원 LED포토존 설치

안산시는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다문화마을특구 내 다문화어울림공원에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할 ‘LED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로 5m, 높이 2m 크기의 포토존은 영어와 문자를 조합해 ‘I LOVE ♥ ANSAN’이라고 쓰여 있으며 관광객은 하트 모형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포토존 양 옆에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상징 마크인 키다리아저씨가 세워져 있다.

특히 LED 불빛이 켜지는 야간에는 특구의 야경과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뽐내며 관광객에게 특구의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 포토존은 안산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다문화어울림공원에 설치돼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LED 포토존 설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지친 일상의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살맛나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곡동,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환경정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안산형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곡동은 그동안 고질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 및 악취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다문화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해당 통장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을 투입해 6주 동안 매일 4시간씩 무단배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곳곳에 방치된 재활용품을 정비하는 등 클린 원곡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도심 순환버스 남부권 노선 2일 개통

다문화가족도 편리하게 이용 ... 전철역까지 10여분!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민 중심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도심 순환버스’ 3개 노선 가운데 남부권을 운행하는 ‘해양-Blue’ 노선이 12월 2일부터 첫 시동을 건다. 안산시는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를 기종점으로 도심 남부권을 순환하는 버스 80A.B(해양-Blue) 노선을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양-Blue 노선은 그랑시티자이 아파트~고잔신도시~중앙역~상록수역 방면의 80A번 버스와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사리역~상록수역~중앙역 방면의 80B번 버스로 운행된다.

각각의 노선에는 5대씩 모두 10대의 버스가 투입돼 20~40분 배차 간격으로 ‘안산시민의 발’ 역할을 한다.

특히 3개의 순환버스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하는 해양-Blue 노선은 기종점 인근 7천600여 가구가 입주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입주주민에게 중앙역·한대앞역·상록수역·사리역 등 전철역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

며, 사동·일동 주민도 안산광장 및 중앙역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교통 수요가 높은 사동~상록수역 구간의 교통 혼잡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권이 집중된 안산광장으로의 이동 편의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로 버스 제작이 지연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노선을 시작으로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노선도 단계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향후 모든 순환버스가 운행되면 버스노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 전역의 역세권화’를 실현하며 시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환버스 노선명은 시민공모로 붙여졌으며, 가장 먼저 개통하는 ‘해양-Blue’는 신도시 아파트와 인근 대학교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2월11일까지 100% 지급 노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이라면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취약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대형물류센터 등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도 생계를 이유로 일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지급이 이뤄졌으며, 지급률이 93.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12월 11일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노동자로, 올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병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다. 다만 이들 대상자 중 의료진 소견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대로 검사를 받은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영의 기자

“한땀 한땀 바느질하며, 서로를 연결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다가온 자조모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에서는 바느질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로 엮어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사업(다가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 ‘바느질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느질 자조모임은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과 ‘태국, 몽골, 러시아, 네팔, 우즈베크,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북한, 싱가포르, 기타 국가’ 등 국가별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다양한 국가와 지역주민이 센터 1층 꿈나무 카페에 모여 바느질로 한땀 한땀 생활에 필요한 핸드폰 가방을 만들었다”라며 “국가별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회기별 3~4명씩 모여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핸드폰 가방 만들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여럿이 모

여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 핸드폰 가방을 만드니 재미도 있고 완성 후 뿌듯함도 느껴진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바느질 자조모임은 11월 2일부터 캄보디아 자조모임 시작으로 10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느질 자조모임은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되며, 모임 일주일 전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장소는 센터 1층 꿈나무 카페에서 진행된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복한 집밥 ‘테마 요리’를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테마요리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 요리교실에서 진행되며 개인 앞치마와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참가비 2만5,000원을 내야 하며 12월에는 ▲8일 고등어무조림, 스페셜 라면 ▲10일 된장 돼지 수육 만들기가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택시 탈 때 ‘앞 좌석’은 비워주세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기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앞좌석 비우기’ 캠페인을 펼친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택시 탈 땀 마스크 꼭! 앞좌석 비우기!’라는 캠페인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3천부 제작해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에 배부한다. 스티커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눈에 잘 띄도록 조수석 등받이 등에 부착해 시민 누구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앞좌석을 비울 수 있도록 홍보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산시는 전날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방역 조치를 기획하게 됐으며, 관내 택시 2천614대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마스크 착용 및 택시 뒷자리 우선 승차 등은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역수칙이므로, 많은 시민께서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Thực hiện lệnh giãn cách xã hội cấp độ 2.....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phải chú ý tuân thủ những quy tắc phòng dịch đã được thay đổi 외국인주민도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해요

Bắt đầu từ ngày 24 tháng 11 tất cả những thành phố lớn trực thuộc tỉnh Gyeonggido đã được nâng lên cấp độ 2.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này thì bắt đầu từ ngày 19 vừa rồi cấp độ giãn cách xã hội đã được nâng lên mức 1.5 tuy nhiên chỉ sau 5 ngày thì đã có thay đổi về mức cảnh báo qua đó có thể thấy được tình hình Corona 19 ở Hàn quốc hiện tại đang ở mức không thể coi thường được.

Việc nâng mức cảnh báo giãn cách xã hội là phương pháp phòng dịch nhằm giúp ngăn chặn sự phát tán của dịch bệnh nên tất cả mọi người dân kể cả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đều sẽ bị phần nào ảnh hưởng về mặt kinh tế.xã hội. Bây giờ chúng ta hãy cùng xem có những thay đổi nào khi nâng mức cảnh báo giãn cách xã hội nhé.

Nhắc đến mức giãn cách xã hội cấp độ 2 thì điều phải nhớ đó chính là mốc thời gian 9h tối. Trong quán ăn thì chỉ có thể ăn tại chỗ đến trước 9h tối, từ sau 9h tối thì chỉ được phép bán mang đi hoặc giao về

nhà. Trong lúc ăn thì cũng phải thực hiện các quy tắc phòng dịch như ▲ngồi cách nhau 1m ▲ngồi cách nhau 1 ghế ngồi ▲lắp đặt tấm chắn hoặc là màn chắn. Các địa điểm như quán karaoke, trung tâm biểu diễn trong nhà, các trung tâm thể dục thể thao trong nhà đều phải đóng cửa sau 9h tối.

Tại quán cà phê thì trong phạm vi quán, cấm tuyệt đối việc ngồi uống tại chỗ, trong suốt thời gian mở quán chỉ được bán mang đi và giao hàng về nhà. Các nơi như club hoặc 5 khu vực thuộc địa điểm vui chơi người lớn thì sẽ bị cấm tuyệt đối nên sẽ không được hoạt động.

Những địa điểm tập thể dục thể thao trong nhà và phòng tập gym thuộc đối tượng quản lý cơ bản thì sẽ chỉ được hoạt động đến 9h đêm. Những địa điểm trong nhà bao gồm cả phương tiện giao thông thì việc đeo khẩu trang là nghĩa vụ, những trận đấu thể thao như giải bóng chày chuyên nghiệp hàn quốc thì sẽ chỉ cho

phép 10% số lượng khách đến xem.

Những sự kiện liên quan đến cưới hỏi đám ma rất quan trọng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tuy nhiên vì dịch bệnh nên việc tổ chức cũng bị ảnh hưởng, Tại các địa điểm như hội trường cưới hoặc nhà tang lễ thì bị giới hạn người số lượng người tham gia dưới 100 người. Trong rạp chiếu phim hoặc điểm biểu diễn thì phải ngồi cách nhau 1 ghế trống, không được ăn uống trong rạp. Quán net cũng được áp dụng cùng một tiêu chuẩn như vậy, trường hợp có màn chắn thì được ngoại lệ.

Tại các địa điểm học thêm thì không thể ăn trong nhà, trong phạm vi 8m² thì giới hạn chỉ 1 người ngồi, ..vv.. là các phương án để tăng cường hóa việc giãn cách xã hội.

Những hoạt động nhằm kích thích tiêu dùng của chính phủ như việc phát phiếu giảm giá du lịch.nghỉ dưỡng..vv.. cũng sẽ phải dừng từ ngày 24.Những trường hợp đã đặt lịch thì có thể sử dụng tuy nhiên

cho dù có nhận được phiếu giảm giá nhưng không đặt trước thì cũng không thể sử dụng. Tuy nhiên, giảm giá nông sản thì dự kiến vẫn được tiến hành.

Ngoại trừ trường cấp 3 ra thì trường mẫu giáo và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mật độ người hiện tại được thay đổi từ 2/3 thành 1/3. Tuy nhiên 1 tuần trước kì thi đại học, bắt đầu từ ngày 26 tháng 11 thì các địa điểm trường cấp 3 trên toàn quốc được chỉ định là địa điểm thi thì đều phải tiến hành học online.

Kì thi đại học là kì thi mà các học sinh cấp 3 phải trải qua để vào đại học nên là kì thi hết sức quan trọng tại Hàn quốc.

Tại các thành phố lớn, sẽ thực hiện giãn cách xã hội cấp độ 2 trong vòng 2 tuần tức đến hết ngày 7 tháng 12, sau đó dự kiến sẽ điều chỉnh cấp độ giãn cách xã hội sau khi có báo cáo về tình hình lây lan dịch bệnh.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역사회 보건소, 미등록 외국인 자녀 무료 예방접종 실시해야"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년 제4차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개최

경기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11월 27일 오전 '2020년 제4차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정위원 12명과 참고인, 진정인, 흥동기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장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갈등 해결과 중재,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민 방문 시 관

공서의 부당한 대우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선 ▲이주여성 건강 지원 문제 등 6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차별 문제' 논의가 시선을 끌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미등록 외국인가정의 자녀가 지역사회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에 대한 것.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라

는 이유로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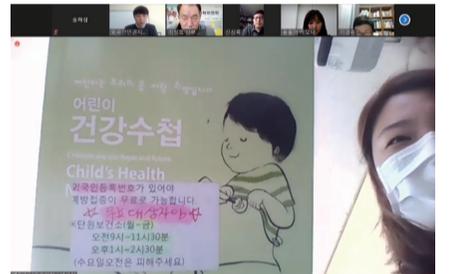
내국인 자녀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반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거부해 체류자격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협약의 비준국가이다.

특히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건소가 개별 어린이의 예방접종 현황 등을 기록한 '어린이 건강수첩' 상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라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건강과 예방접종 문제가 민감한 시기에 미등록 자녀의 예방접종 거부 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giảm mức phí nhà ở , nhà ở xã hội tỉnh Gyeonggi do và nâng cao nhiệt độ cộng đồng

Có thể ở trong thời gian lâu dài và bất cứ ai cũng có thể đăng ký vào cư trú, đây là loại hình nhà ở cho thuê hình thức mới đang được tiến cử cung cấp rộng rãi

Chính phủ đang liên tục đưa ra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đến bất động sản. Điều này cũng đồng nghĩa với việc vấn nạn nhà ở đang trở nên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ở những thành phố lớn thì vấn nạn nhà thuê đang trở nên nghiêm trọng và đừng nói gì đến chuyện giấc mơ có được một ngôi nhà cho riêng mình, những người dân đang ngày ngày chuyển từ nhà thuê này sang nhà thuê khác đang tăng nhanh.

Theo đó đang có những người dân đang gặp phải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hà ở do hình thái nhà ở đang dần thay đổi. Theo tiêu chuẩn ngày xưa thì trong 1 gia đình có 4 người nhưng tình trạng 1 gia đình chỉ có 1 con đang tăng đột biến dẫn theo tình trạng 1 gia đình chỉ có 1 người đang phát triển nhanh chóng.

Hiện nay chủ đề liên quan đến "nhà ở xã hội" với đề án nhằm khắc phục hạn chế của hệ thống nhà ở hiện tại như hiện tượng nhà cho thuê công cộng và sự gia tăng đột biến loại hình nhà ở 1 người..vv.. đang nhận được nhiều sự chú ý. Tỉnh Gyeong gi do đã quyết định mở rộng phạm vi nhà ở hiện tại thành loại hình nhà ở xã hội nhằm giúp cho những người ở tầng lớp yếu kém của xã hội có được một nơi ở ổn định.

■Nhà ở xã hội theo mô hình tỉnh Gyeong gi do

Nhà ở xã hội là hình thái nhà ở khác so với loại nhà ở hiện tại. Nhà ở hiện tại của tỉnh Gyeong gi do thì không xét về tư cách cư trú như thu nhập hay tài sản, nếu là người không có nhà ở thì bất cứ ai chỉ cần trả 1 khoản tiền rẻ hơn so với tỷ giá hiện tại cho một căn nhà nằm ở vị trí đẹp như khu vực quanh ga ..vv.. thì có thể cư trú tới

đa đến 30 năm, đây là loại hình nhà ở theo khái niệm mới đã được đưa ra gần đây.

Loại hình nhà ở xã hội theo phong cách tỉnh Gyeong gi có đặc điểm là đất thuộc sở hữu của công chúng, nhưng các tòa nhà thuộc sở hữu của các tổ chức kinh tế xã hội không theo đuổi lợi nhuận, chẳng hạn như các tập đoàn phi lợi nhuận, công ty công ích, hợp tác xã, doanh nghiệp xã hội và doanh nghiệp làng nghề.

Trái ngược với hình thức nhà ở công cộng cho thuê hiện tại quyết định người thuê dựa trên thu nhập làm tạo ra sự phân hóa về giai cấp, thì nhà ở xã hội mô hình tỉnh Gyeonggi-do cung cấp một môi trường nhà ở ổn định cho những người có hoàn cảnh khó khăn, những người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cư trú trong loại hình nhà cho thuê công cộng

Dưới 60% loại hình nhà ở là được cung cấp cho đối tượng không có nhà theo hình thức cung cấp cơ bản, dự kiến sẽ thực hiện chính sách cung cấp đặt biệt trên 40% cho những người thuộc dạng chính sách như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người khuyết tật, gia đình 1 người, người lớn tuổi ..vv.. Diện tích chuyên dụng dành cho nhà có 3 thể hệ là dưới 60m², mở rộng không gian cộng đồng lên mức trên 10% diện tích chuyên dụng và mục đích sử dụng không gian công cộng sẽ được quyết định dựa theo ý kiến của người thuê nhà. Mức tiền thuê nhà sẽ rẻ hơn khoảng 80% so với mức tỷ giá xung quanh.

Dự án thí nghiệm đầu tiên là do công ty thi công xây dựng nhà ở tỉnh Gyeong gi do (GH) thực hiện dự án có tên "nhà ở xã hội theo loại hình hợp tác xã cho thuê đất ". Khi một thực thể kinh tế xã hội đề xuất khu đất mong muốn, tỉnh Gyeonggi-do sẽ tiến hành mua lô đất đó, và sau khi chuyển quyền chủ sở hữu thì cho thuê giá rẻ với

thời hạn trên 30 năm. Trên địa điểm thuê, chủ thể kinh tế xã hội xây dựng nhà ở và cho thành viên thuê nhà ở thông qua hợp tác xã xã hội.

Công ty GH có kế hoạch thúc đẩy cung cấp nhà ở xã hội với quy mô khoảng 50 hộ gia đình, đơn vị nhỏ nhất có thể vận hành các chương trình cộng đồng. Việc chào bán công khai đang được tiến hành theo cách thức thúc đẩy các dự án đề xuất tư nhân sau khi tìm thấy doanh nghiệp và tiến hành điều tra sơ bộ để xác định những người muốn chuyển đến và cung cấp.

Westay Byulnae Apartment tỉnh Namyangju đã hoàn thành việc chuyển nhập cư vào tháng 8 năm nay, là một khu nhà ở xã hội tiêu biểu của tỉnh Gyeonggi-do. Khu nhà ở này ngay từ giai đoạn phát triển, thông qua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cổ phần thông qua hợp tác xã, chi phí xây dựng đã giảm và thu được lợi nhuận từ cộng đồng.

Theo kết quả thì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hàng tháng 2 triệu won thì có thể chi trả mức chi phí nhà ở , và có thể tiết giảm tối đa chi phí quản lý và sinh hoạt. Ngoài ra, người dân sau khi hết thời hạn cư trú bắt buộc thì cũng đã có thể mở rộng quyền cư trú lâu dài liên tục của mình

Lý do người thuê chọn Căn hộ Westay Byeolnae là ▲ Có thể cư trú dài hạn ít nhất 8 năm ▲ Cảm thấy hấp dẫn do hình thức căn hộ theo kiểu làng cộng đồng▲ Dịch vụ dân cư đa dạng ▲ Không giới hạn tư cách đăng ký, Ai cũng có thể chuyển đến ở ▲ Giá thuê tăng lên dưới 5% mỗi năm ▲ Vị trí tốt nên có nhiều lý do đồng tình khác

Sự quan tâm về loại hình ở mới theo mô hình tỉnh Gyeong gi do được ngài thị trưởng Lee Jae Myeong yêu thích không chỉ đang nhận được sự quan tâm của người trong nước mà cả người ngoại quốc cũng đang rất có hứng thú về nội dung này. <한글 기사 20면>



วิธี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บริษัทผู้ให้บริการโอนเงินโดยเฉพาะ
해외송금 전문 회사를 통한 송금 방법

| | |
|---|--|
| 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โอนเงิน 송금신청서 작성 | ไปธนาคารที่ใกล้บ้านที่ให้บริ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 The Western Union Company หรือ MoneyGram แล้ว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โอนเงินเป็นภาษาอังกฤษ 가까운 เวสต์ยูเนียน หรือ มอนีแกรม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영문으로 송금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 ยื่นแบบฟอร์ม, เงินที่ต้องการโอน,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 | ยื่นแบบฟอร์มที่กรอกแล้วพร้อมเงินที่ต้องการโอน, ตั๋วธรรมเนียม,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작성된 송금신청서와 함께 송금액, 수수료, 신분증(여권)을 제시합니다. |
| รับใบเสร็จ 영수증 수령 | เมื่อการโอนเงินเสร็จเรียบร้อยจะได้รับหมายเลขกำกับการโอนเงินและใบเสร็จ 송금이 전산상으로 처리되면 송금 승인번호 숫자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
| แจ้งข้อมูลให้กับผู้รับโอน 송금 수취인에게 정보 제공 | แจ้งข้อมูล ชื่อผู้ส่ง, จำนวนเงิน, หมายเลขกำกับการโอนเงิน, ประเทศปลายทาง ให้ผู้รับเงินทราบ 수취인에게 송금인 이름, 송금액, 송금 승인번호, 송금 국가의 정보를 통지합니다. |
| ผู้รับเงินนำ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เลขอนุัติการโอนไปรับเงินที่สาขาใกล้บ้าน | ผู้รับเงินกรอก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พร้อมแสดง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กับธนาคารและรับเงินที่โอน 가맹점에서 신분증과 송금 정보로 신청서 작성 후 송금금액을 수령합니다. |

ข้อพึงระวัง
꼭 주의하세요!



- ข้อดีของ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บริษัทตัวแทนคือสามารถโอนเงิน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ต่เนื่องจาก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และ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จะ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ตามวงเงินโอน บางครั้ง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ธนาคารอาจคุ้มค่ากว่าแต่บางครั้ง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บริษัทตัวแทนก็อาจจะดีกว่าจึงควรเปรียบเทียบดูให้ถี่ถ้วนก่อนทำการโอน
- ในบางประเทศหรือบางท้องถิ่นอาจไม่มีตัวแทนของบริษัทผู้ให้บริการโอนเงินอยู่ ดังนั้นก่อนโอนเงิน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ดูให้ถี่ถ้วนที่ปลายทางมีตัวแทนของบริษัทโอนเงินหรือไม่
- 송금 전문 회사를 통한 송금 방법은 돈을 해외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금액에 따라 수수료나 환율 적용에 있어 은행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는 송금 전문회사의 가맹점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송금 전에 가맹점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ตู้ ATM

ตู้ ATM เป็นอีกทางเลือกหนึ่งที่สามารถ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ได้แต่จะต้องมีการขอทำรา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ตู้ ATM ส่วนหน้า 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ตู้ ATM ทำได้โดยการสับคัประดับการโอนเงินล่าสุดหรือไปลงทะเบียน "ข้อมูลผู้รับเงิน" ส่วนหน้าที่สาขาของธนาคารก็ได้

4 ATM 해외송금 서비스

ATM을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에 ATM을 통한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ATM에서 송금을 하려면 '최근 송금내역 조회' 후 송금하거나, 미리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취인에 대한 해외송금 정보'를 등록한 후 하면 됩니다.

วิธี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ตู้ ATM
ATM 해외송금 방법

| | |
|---|--|
| ไปธนาคาร 은행 방문 | ไปธนาคารเพื่อลงทะเบียนข้อมูลผู้รับเงินปลายทางเอาไว้ล่วงหน้า 외국에 송금하려는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에 방문하여 미리 등록합니다. |
| เลือกรายการที่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เอาไว้ หรือรา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ล่าสุด ATM에서 해외송금 등록 내역을 선택하거나 최근 해외송금 내역 선택 | เลือกบัญชีผู้รับรา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 ATM ที่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เอาไว้ล่วงหน้าหรือเลือกจากรายการโอนเงินครั้งล่าสุด ATM에서 미리 등록된 해외송금 내역을 선택하거나 최근 송금한 송금내역을 선택합니다. |
| ตรวจสอบเลขที่บัญชีผู้รับ 수취인 계좌 확인 | ตรวจสอบว่าได้เลือกบัญชีผู้รับถูกต้องหรือไม่ 수취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 ระบุสกุลเงินและจำนวนเงินที่ต้องการโอน 화폐 종류 및 송금금액 선택 | ระบุสกุลเงิน(เงินวอนหรือเงิ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จำนวนเงินที่จะโอน 송금하려는 화폐 종류(원화 또는 외화)를 선택하고 송금금액을 입력합니다. |
| หลังจากที่ดำเนินการ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พิมพ์ใบเสร็จ 영수증 출력 | ใบเสร็จเป็นหลักฐานในการโอนเงินจึงควรเก็บรักษาเอาไว้ให้ดี 송금내역의 증빙자료가 되므로 영수증은 잘 보관합니다. |

สรุป
정리 사항

- 1.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ได้ที่ไหน?**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สบาย โดยการหาข้อมูลทางอินเทอร์เน็ต, เข้าเว็บไซต์ของธนาคาร หรือไปที่ธนาคารใกล้บ้าน
- 2. สามารถแลกเงินได้ที่ไหนบ้าง?**
การแลกเงิน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ที่ธนาคาร ในกรณีที่ต้องการแลกเงินจำนวนมากหรือแลกเงินสกุลอื่น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เงินดอลลาร์ 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กับธนาคารล่วงหน้า และ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การแลก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บดั้งเดิมจะมีข้อเสนอและ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ที่ดีกว่าถือได้ว่าเป็นทางเลือกที่ดี
- 3.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โอนเงินแพงมาก ควรทำอย่างไรดี?**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ไม่ได้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เฉพาะที่ธนาคารต้นทางแต่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ธนาคารกลางและธนาคารปลายทางด้วย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ธนาคารต้นทางที่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แต่โดยประมาณแล้วคือ 5,000-30,000 วอน(มีค่าโทรเลขต่างหากอีก 8,000 วอน) การโอนเงิน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จะสามารถรับส่วนลด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สูงสุดถึง 50% จึงถือเป็นทางเลือกที่ดี นอกจากนี้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แล้วสิ่งสำคัญอีกอย่างที่ต้องคำนึงถึงคือ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ที่ธนาคารเพื่อรับ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ที่เป็นอีกวิธีที่จะช่วยให้ประหยัดเงินได้เช่นกัน
- 4. มีวงเงินจำกัดสำหรับการโอนเงินหรือไม่?**
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ในวงเงินไม่เกิน 5หมื่นดอลลาร์ต่อปี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ยื่นเอกสารเพิ่มเติมแต่ถ้าโอนเงินจำนวนมากกว่านั้นจะต้องมีการยื่นหลักฐานเพื่อยืนยันรายได้ของตน เช่น สลิปเงินเดือน เป็นต้น
- 1. 환율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환율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뱅킹 혹은 은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환전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쉽게 환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환전이 가능한 통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돈을 환전하거나 달러 이외의 화폐를 환전할 경우 사전에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 환전이 환율 적용에 유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3.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송금할 경우 국내은행뿐 아니라 해외 중개은행, 해외 현지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내은행이 받는 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0원~30,000원(전신로 약 8,000원 별도) 사이입니다. 인터넷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약 50%까지 절감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수료뿐 아니라 환율우대 혜택도 중요하므로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환율 우대 혜택을 받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4. 송금할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나요?**
송금할 때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으며 5만불을 초과할 때에는 급여명세서 등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สรุป
정리 사항

- 1. ทำไมถึงต้องใช้บริการธนาคาร?**
การฝากเงินไว้ที่ธนาคาร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เก็บเงินได้สะดวก ปลอดภัย และได้ดอกเบี้ย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ช่วยให้สามารถบริหารเงิน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อีกด้วย
- 2. ข้อดีของ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ตู้ ATM คืออะไร?**
ตู้ ATM เป็นเครื่องรับจ่ายเงินอัตโนมัติ ที่ช่วยให้เรา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ต่างๆของธนาคาร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โดยไม่ต้องผ่านพนักงานธนาคาร นอกจากนี้เรายัง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ตู้ ATM นอกเหนือเวลาทำการของธนาคารได้อีกด้วย
- 3. เหตุผลที่ควรใช้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คืออะไร?**
สะดวกและประหยัดเพราะเพียงแค่มีคอมพิวเตอร์หรือสมาร์ทโฟนก็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ของธนาคาร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 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เสี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สำหรับการโอนเงินไปยังบัญชีอื่นภายในธนาคารเดียวกัน
- 4. ข้อควรระวังเกี่ยวกับรหัสมีอะไรบ้าง?**
ห้ามตั้งรหัสโดยใช้ข้อมูลส่วนตัว เช่น หมายเลข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วันเดือนเกิด,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 ฯลฯ รหัสที่เป็นข้อมูลสำคัญที่ควรเก็บรักษาไว้เป็นความลับห้ามบอกให้คนอื่นรับรู้ และควรเปลี่ยนรหัส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
- 5. คนที่ไม่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ธนาคารได้หรือไม่?**
ในพื้นที่ที่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ลากหลาย เช่น กวังจวามุน, อินห์ร็อน, อันซัน เคียงกีโด ได้มีการจัดเคาน์เตอร์ให้บริการลูกค้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เฉพาะทำ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ธนาคาร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ตรวจสอบรายชื่อสาขาของแต่ละธนาคารที่มีเคาน์เตอร์บริกา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เฉพาะที่ 'ภาคผนวก 1') นอกจากนี้ธนาคารส่วนใหญ่ยังมี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ที่คอ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ากคุณ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ก็แนะนำให้ใช้บริการนี้(ตรวจสอบ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ของแต่ละธนาคารที่มีบ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ที่ 'ภาคผนวก 2')
- 1. 은행을 왜 이용해야 하나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해 모을 수 있고 이자도 생기는 등 돈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 2. ATM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ATM은 현금자동입출금기입니다. ATM을 이용하면 은행직원이 없어도 혼자 은행업무를 할 수 있고, 은행 영업 시간 외에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 3.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터넷뱅킹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업무를 할 수 있고, 같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는 따로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4. 비밀번호에 관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생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만들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는 나만의 소중한 개인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5. 한국어를 못해도 은행거래를 할 수 있나요?**
서울 광화문, 이태원,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의 은행에서는 외국인 전용 데스크 설치 점포가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 전용 데스크 점포 목록은 '참고자료 1' 참조). 또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국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별 외국어 상담 콜센터 번호는 '참고자료 2' 참조).



“한국 사회 정착 위해 취업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좋은 길잡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짱위랜’ 직업상담사, 먼 미래 보고 경험 쌓아야 취업 유리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혹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온 한국은 이방인에게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일도, 그 속에서 원하는 삶을 개척해 가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앞서 온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은 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짱위랜 직업상담사는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좋은 길잡이이자 앞서 살아온 결혼이민자로서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다.

#“좋은 일자리 원한다면 길게 보고 준비”

짱위랜 직업상담사는 2006년 9월 사촌언니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남편과 한국에 왔다. 지금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결혼 초기만 해도 고국인 중국 하얼빈과 가족들이 그리워 많이 울고 한국행을 후회하기도 했다.

“한국에 왔을 때가 25살이었어요. 막연히 한국이 좋다는 말만 듣고 와서인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친구들을 붙들고 자주 울었죠.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생활이 좋아졌어요. 원곡동 중국인노동자의 집 교회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도 좋아해 재미있었어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성인 강좌를 진행하며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이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종언어 강사로 일하다 2014년 8월부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교육 통해 직장문화 등 차이 이해 필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의 상담 및 취업알선, 직무능력 향상훈련, 여성 인턴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짱위랜씨는 결혼이민여성 취업준비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WiCi’ 및 구인·구직 알선·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센터를 찾는 이들은 통역, 번역, 강사 등 사무직이나 환경이 좋은 곳을 원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외국인을 찾지 않고, 육류가공 관련 업체 등 열악한 곳은 일자리가 많지만 안 가려고 하죠. 구직자의 90% 정도가 전자, 자동차, 화장품 회사 등 생산직으로 가요.”

은행, 무역회사 등에서 중국어, 영어 등을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를 찾기도 하지만 자리는 한정적이다. 센터에는 연 400~500여 명이 방문해 일자리를 찾지만, 취업한 이들 중에도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도 많다.

“구직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급하게 일자리를 선택할 때도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는데 서두르다 놓치게 돼 안타까워요. 취업연계를 할 때면 구직자들이 길게 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건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

짱위랜 씨는 “조금만 힘들거나 불편하면 그만두거나 조건만 보고 직장을 자주 옮기면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취업을 연결해 줘도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되지 않고, 면접을 약속한 후 안가는 경우 등 센터의 신용까지 떨어뜨리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다른 결혼이민자의 구직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취업 후 하루나 일주일 정도 다닌 후 쉽게 그만두거나 직장문화의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센터는 물론 본인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구직상담을 하면 연결해주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일하면 급여도 오르고 경험이 쌓여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죠.”

#“취업은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짱위랜 씨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에 앞서 한국생활 정착을 돕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3회만 진행됐지만 결혼이민여성 취업준비 프로그램인 WiCi에서는 1회 4일 총 15시간동안 성격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노동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문화 차이로 겪는 어려움은 직장에서도 비슷해요. WiCi를 통해 한국의 직장문화, 노동법 등에 대해 알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교육이 의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료 후 취업을 하거나 다른 패키지와 연결해 자격증 수료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짱위랜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가거나 자격증 등 미래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들을 많이 봐요. 열심히 사는 분들을 통해 자극도 받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다”라며 “후배 결혼이민여성들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도전해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5万ウォンの特典見逃さないで”...新たな‘京畿地域貨幣消費支援金’

初めての充電者、消費支援金など、外国人住民も京畿地域貨幣の多様な特典を

最大5万ウォンの特典がある‘京畿地域貨幣消費支援金(限定版地域貨幣)’事業 外国人住民の皆さんも特典を受けていないならばこの機会を逃さないように°

京畿道はより多くの人たちが‘京畿地域貨幣消費支援金(限定版地域貨幣)’の特典を受けられるように支援締め切り時期を11月17日から12月17日と一ヶ月延長するなど事業を大幅拡大した°京畿地域貨幣消費支援金(限定版地域貨幣)は、20万ウォン充電時に基本インセンティブ2万ウォン 2ヶ月以内に20万ウォンを使用すると消費支援金3万ウォンなど最大5万ウォンを支給する京畿道の経済政策だ°

‘京畿地域貨幣消費支援金’事業拡大と関連し新設事項を質問(Question)と答え(Answer)でまとめた°

Q: 消費支援金の延長内容は?

A: 京畿道は消費支援金支援期間を12月17日へと一ヶ月

延長した また初めて地域貨幣を充電した者には使用要件を緩和し20万ウォン充電時のインセンティブ2万ウォンと消費支援金3万ウォンを支給する°

また既存1人1カード20万ウォン充足の要件を緩和しカード間の合算も可能となった°ただしこの場合最後に20万ウォンが充足されるカードに消費支援金が付与され同一地域貨幣運営プラットフォーム内においてのみ認定°

Q: 初めての充電者の要件は?

A: 消費支援金支給条件は20万ウォン以上地域貨幣充電後これを指定された期間内にすべて消費することとなっていた°外国人住民も特典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今回締め切り期限が延長され初めての地域貨幣充電者のための特典が新たに追加された°

初めての充電基準は一般発行充電を基準として京畿地域

貨幣事業推進時分から現在まで一度も充電していない会員が期間内に初めて充電することを意味する°

初めての充電者の場合11月12日以後に1回20万ウォン以上の充電に限り使用しているいないに関わらず充電するとすぐに消費支援金3万ウォンを支給される°ただし20万ウォン未満の充電の場合消費支援金支給対象除外だ°特典のためには必ず20万ウォン以上充電せねばならない(累積適用なし)

Q: 消費支援金使用期限は? 期限内未使用時にはどうなるのか?

A: 消費支援金は支給日から一ヶ月以内に使用せねばならない°消滅性地域貨幣だ°期限内未使用時には消滅する°また使用促進および悪用防止のために一般充電金および他の政策手当てより優先的に使用される決済システムを適用している°(한글 기사 19면) 아키오 객원기자

경기도 사회주택,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공동체 온도는 높이고

경기도, 장기거주 가능하고 누구나 입주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은 전세난이 심화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이리저리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달라진 가구 형태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는 이들도 있다. 4인 기준의 기존 가구에서 1가구 1자녀의 3인 가구가 증가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어엿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주거지원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의 범위를 사회주택으로 확장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기본주택의 또 다른 형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 모델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등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소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소득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차별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세대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며,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 부지에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는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자 발굴과 입주 희망자·공급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거쳐 민간제안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입주를 완료한 남양주 위스테인별내아파트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사회주택이다.

이곳은 개발단계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지분출자를 거쳐 건축비를 절감하고, 자본이익을 공동체에 귀속시켰다. 그 결과, 월 소득 200만원으로도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됐으며 관리비용과 생활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의무임대기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거주 가능성을 확보했다.

입주자들이 위스테인별내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로는 ▲최소 8년 동안 장기거주 가능 ▲아파트형 마을공동체의 매력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청약자격 제한없음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 ▲위치가 좋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도지사가 선도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에 대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어 23면, 베트남어 하단, 러시아어 29면, 일본어 33면, 태국어 42면> 송하성 기자

giảm mức phí nhà ở , nhà ở xã hội tỉnh Gyeonggi do và nâng cao nhiệt độ cộng đồng

Có thể ở trong thời gian lâu dài và bất cứ ai cũng có thể đăng ký vào cư trú, đây là loại hình nhà ở cho thuê hình thức mới đang được tiến cử cung cấp rộng rãi

Chính phủ đang liên tục đưa ra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đến bất động sản. Điều này cũng đồng nghĩa với việc vấn nạn nhà ở đang trở nên nghiêm trọng. Đặc biệt ở những thành phố lớn thì vấn nạn nhà thuê đang trở nên nghiêm trọng và đừng nói gì đến chuyện giấc mơ có được một ngôi nhà cho riêng mình, những người dân đang ngày ngày chuyển từ nhà thuê này sang nhà thuê khác đang tăng nhanh.

Theo đó đang có những người dân đang gặp phải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hà ở do hình thái nhà ở đang dần thay đổi. Theo tiêu chuẩn ngày xưa thì trong 1 gia đình có 4 người nhưng tình trạng 1 gia đình chỉ có 1 con đang tăng đột biến dẫn theo tình trạng 1 gia đình chỉ có 1 người đang phát triển nhanh chóng.

Hiện nay chủ đề liên quan đến "nhà ở xã hội" với đề án nhằm khắc phục hạn chế của hệ thống nhà ở hiện tại như hiện tượng nhà cho thuê công cộng và sự gia tăng đột biến loại hình nhà ở 1 người..vv.. đang nhận được nhiều sự chú ý. Tỉnh Gyeonggi do đã quyết định mở rộng phạm vi nhà ở hiện tại thành loại hình nhà ở xã hội nhằm giúp cho những người ở tầng lớp yếu kém của xã hội có được một nơi ở ổn định.

■Nhà ở xã hội theo mô hình tỉnh Gyeonggi do

Nhà ở xã hội là hình thái nhà ở khác so với loại nhà ở hiện tại. Nhà ở hiện tại của tỉnh Gyeonggi do thì không xét về tư cách cư trú như thu nhập hay tài sản, nếu là người không có nhà ở thì bất cứ ai chỉ cần trả 1 khoản tiền rẻ hơn so với tỷ giá hiện tại cho một căn nhà nằm ở 1 vị trí đẹp như khu vực quanh ga ..vv.. thì có thể cư trú tối

đa đến 30 năm, đây là loại hình nhà ở theo khái niệm mới đã được đưa ra gần đây.

Loại hình nhà ở xã hội theo phong cách tỉnh Gyeonggi có đặc điểm là đất thuộc sở hữu của công chúng, nhưng các tòa nhà thuộc sở hữu của các tổ chức kinh tế xã hội không theo đuổi lợi nhuận, chẳng hạn như các tập đoàn phi lợi nhuận, công ty công ích, hợp tác xã, doanh nghiệp xã hội và doanh nghiệp làng nghề.

Trái ngược với hình thức nhà ở công cộng cho thuê hiện tại quyết định người thuê dựa trên thu nhập làm tạo ra sự phân hóa về giai cấp, thì nhà ở xã hội mô hình tỉnh Gyeonggi-do cung cấp một môi trường nhà ở ổn định cho những người có hoàn cảnh khó khăn, những người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cư trú trong loại hình nhà cho thuê công cộng

Dưới 60% loại hình nhà ở là được cung cấp cho đối tượng không có nhà theo hình thức cung cấp cơ bản, dự kiến sẽ thực hiện chính sách cung cấp đặt biệt trên 40% cho những người thuộc dạng chính sách như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người khuyết tật, gia đình 1 người, người lớn tuổi ..vv.. Diện tích chuyên dụng dành cho nhà có 3 thể hệ là dưới 60m², mở rộng không gian cộng đồng lên mức trên 10% diện tích chuyên dụng và mục đích sử dụng không gian công cộng sẽ được quyết định dựa theo ý kiến của người thuê nhà. Mức tiền thuê nhà sẽ rẻ hơn khoảng 80% so với mức tỷ giá xung quanh.

Dự án thí nghiệm đầu tiên là do công ty thi công xây dựng nhà ở tỉnh Gyeonggi do (GH) thực hiện dự án có tên "nhà ở xã hội theo loại hình hợp tác xã cho thuê đất ". Khi một thực thể kinh tế xã hội đề xuất khu đất mong muốn, tỉnh Gyeonggi-do sẽ tiến hành mua lô đất đó, và sau khi chuyển quyền chủ sở hữu thì cho thuê giá rẻ với

thời hạn trên 30 năm. Trên địa điểm thuê, chủ thể kinh tế xã hội xây dựng nhà ở và cho thành viên thuê nhà ở thông qua hợp tác xã xã hội.

Công ty GH có kế hoạch thúc đẩy cung cấp nhà ở xã hội với quy mô khoảng 50 hộ gia đình, đơn vị nhỏ nhất có thể vận hành các chương trình cộng đồng. Việc chào bán công khai đang được tiến hành theo cách thức thúc đẩy các dự án đề xuất tư nhân sau khi tìm thấy doanh nghiệp và tiến hành điều tra sơ bộ để xác định những người muốn chuyển đến và cung cấp.

Westay Byulnae Apartment tỉnh Namyangju đã hoàn thành việc chuyển nhập cư vào tháng 8 năm nay, là một khu nhà ở xã hội tiêu biểu của tỉnh Gyeonggi-do. Khu nhà ở này ngay từ giai đoạn phát triển, thông qua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cổ phần thông qua hợp tác xã, chi phí xây dựng đã giảm và thu được lợi nhuận từ cộng đồng.

Theo kết quả thì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hàng tháng 2 triệu won thì có thể chi trả mức chi phí nhà ở , và có thể tiết giảm tối đa chi phí quản lý và sinh hoạt. Ngoài ra, người dân sau khi hết thời hạn cư trú bắt buộc thì cũng đã có thể mở rộng quyền cư trú lâu dài liên tục của mình

Lý do người thuê chọn Căn hộ Westay Byeolnae là ▲ Có thể cư trú dài hạn ít nhất 8 năm ▲ Cảm thấy hấp dẫn do hình thức căn hộ theo kiểu làng cộng đồng▲ Dịch vụ dân cư đa dạng ▲ Không giới hạn tư cách đăng ký, Ai cũng có thể chuyển đến ở ▲ Giá thuê tăng lên dưới 5% mỗi năm ▲ Vị trí tốt nên có nhiều lý do đồng tình khác

Sự quan tâm về loại hình ở mới theo mô hình tỉnh Gyeonggi do được ngài thị trưởng Lee Jae Myeong yêu thích không chỉ đang nhận được sự quan tâm của người trong nước mà cả người ngoại quốc cũng đang rất có hứng thú về nội dung này. <한글 기사 상단>



Посещение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и электронная заявка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자제하고 전자민원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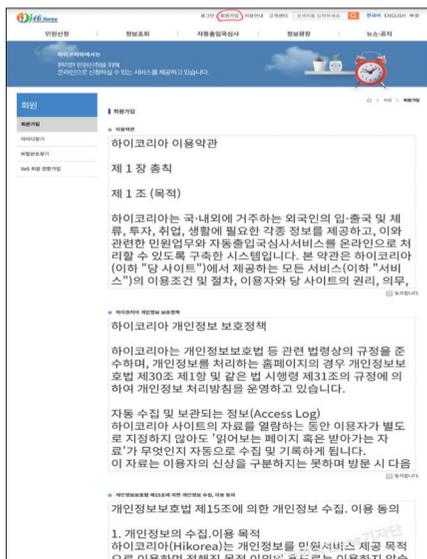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блюдается заметное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осетителей в миграционных службах по столичному региону. Так, в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г.Суфона даже в самый час пик непривычно тихо.

Связано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 переходом многих процедур в онлайн-режим. Кроме того, также повлияла многолетняя практик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бронирования времени пос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рактически 90 процентов посетителей знают 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бронировани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быстрый и четкий прием посетителей и не допускать их скопления.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и перерыва айдикады необходимо обязательное посещение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Однако для продления периода проживания, смены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данных(паспортных, адресных, рабочих и тп)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процедур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личное посещение; заявку можно и удобнее подавать онлайн,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на сайте www.hikorea.go.kr. Более того, есть список процедур, которые возможны только онлайн(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в связи с covid19).

Каким образо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цедура подачи электронной заявки онлайн?

1.Регистрация на сайте www.hikorea.go.kr



hikorea.go.kr.

Нажать на **회원가입**(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ыбрать **전체동의**(согласиться со всем)→**가입하기** (вступить)→выбрать **개인회원**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выбрать подходящий пункт из 4:

- ▲**гражд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с айдикадой) ▲**иностранцы с краткосрочным пребыванием**(до 90дней)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айдиномера, ФИО и цифр на картинке выходит страница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транице регистр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ебе логин/имя и пароль (их обязательно запомнить или сохранить).

Также требуется ввод эл.почты, адреса проживания и номер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осле успеш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зайти на сайт под созданным логином и паролем.

2. Подача электронной заяв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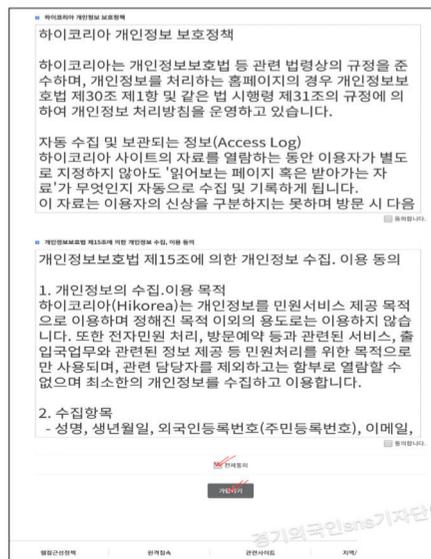
Выбрать **전자민원**(электронная заявка) → выбрать нужную процедуру.

На 2 фото ниже приведен список процедур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ую заявку.

Кстати, при подаче электронной заявки на платные процедуры действует официальная 10% скидка.

3. Подтверждение/отказ на заявк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ида процедур, период рассмотрения каждой заявки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1 до 10дней). О



отве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дтверждении или отказе) приходит смс на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указанный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айте www.hikorea.go.kr.

Я рекомендую всем иностранцам пройти неслож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сайте hikorea.go.kr и подавать электронные заявк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пос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Соблюдайте правила профилактики и избегайте посещ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 узнавая новости вместе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енгидо, Еленой Ким.

최근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워에도 비정상적으로 조용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많은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시간을 미리 예약하는 장기적인 관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90%의 방문자가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이할 수 있고 혼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및 에디 카드(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 등록 데이터(여권, 주소, 직장 등) 변경 및 기타 많은 절차는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등록하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수속 목록(재입국 허가,

covid19 관련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볼까요?

1.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등록합니다.

회원가입 클릭(등록)→전체동의→가입하기→ 개인회원 선택→4개 중에 적절한 항목을 선택 ▲**국민** ▲**등록외국인**(ID 카드 포함) ▲**단기체류자**(최대 90일) 외 **국민** ▲**외국국적동포** 이후 ID 번호, 성명, 화면에 숫자를 확인하면 등록 페이지가 뜹니다. 등록 페이지에서 사용자 아이디 / 성함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기억하거나 저장해야 함). 그리고 이메일, 거주지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등록한 후 새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2. 전자 신청서 제출.

전자 민원 선택→필요한 절차를 선택함.

아래 사진은 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러시아어 민원을 확인할 수 있음. 덧붙여서 유료 수속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식 10% 할인이 됨.

3. 신청 확인 및 거절.

수속의 종류에 따라 각 신청의 심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1~10일)

결과에 대한 답변(확인 또는 거절)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등록시 지정한 휴대폰으로 SMS로 발송됩니다.

모든 외국인은 hikorea.go.kr 웹 사이트에서 간단한 등록을 하시고, 가능하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피하고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뉴스를 자주 확인하고 코로나 예방규칙을 따르며 공공장소 방문을 피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Классификация | Классификация гражданских жалоб | Эл.при |
|------------------------------------|--|--------|
| Смена рабочего места | Разрешение на смену места работы на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работу (E-9) | 20 |
| Продление пребывания |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 20 |
| |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роживающий за рубежом (F-4)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пребывания | 20 |
| Сообщить об изменениях в занятости |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для краткосрочных жителей | 20 |
| |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пребыва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 слушателей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лицо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 20 |
| Начало работы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 (H2, E9) Комплексный отчет о возникновении причин смены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приеме на работу обучение | 20 |
| Смена квалификации | (3a исключением H2 и E9) Отчет о причинах смены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приеме на работу | 20 |
| | Польный отчет H2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и начале работы | 20 |
| | Разрешение на изменение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 20 |
| | Разрешение на изменение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краткосрочных жителей | 20 |

| | | |
|---|--|---|
| Регистрация иностранца / отчет о проживании | Заявление на регистрацию иностранца | Отчет о внутреннем проживании 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
| Деятельность вне квалификации | Разреше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отличную от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 |
| Переоформление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 Переоформление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 |
| Изменения в регистрации | Отчет об изменени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данных (смена паспорта) | |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выдаче визы | Выдана справки о выдаче визы | |
| разрешение | Заявление о разрешении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
| | Уведомление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 |
| Декларация | Отчет о выборе гражданства | Сообщение о потере гражданства |
| | Отчет о наличии гражданства | |
| Уведомление о месте пребывания | Уведомление о месте пребывания для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 |

디아스포라 여성, '여성평화운동 지평 넓히다'

‘조각보’ 경기남부지부 구성, “성, 인종, 국가 경계 넘어”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함께 성, 인종, 민족, 국가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조각보(이사장 김숙임) 경기남부지부 준비모임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7시 일동 마을카페 <마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경기남부지부 준비모임 경과보고와 (사)조각보 김숙임 이사장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 평화 운동’을 하는 조각보 이야기’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조각보는 지난 2012년부터 9년 동안 조각보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대화 운동인 <다시 만난 코리안 여성들의 삶 이야기>를 진행해 왔다.

(사)조각보 윤은정 씨는 경기남부지부 준비모임 경과 과정을 통해 “삶 이야기에 참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중국, 일본,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넘나드는 다양한 삶의 무대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서울을 넘어 연길, 북경의 조선족, 사할린 동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삶을 찾아 대륙을 횡단하는 삶 이야기로 확장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생겨 2019년 총회를 통해 지부 조직을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또한 “삶 이야기 참가자가 많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에 지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에 이어 진행된 주제강연에서 김숙임 이사장은 “평화란 폭력이 없는 상태”라며 한국현대사의 거대한 폭력, 트라우마로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을 들었다. 또한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그 속에서 여성들이 만든 평화전문단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여성대표자회의와 남북여성의 교류 등을 설명하며 “남과 북의 여성 교류를 통해 더 깊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의 틀과 소수의 참여로는 여성평화운동의 지평 확대가 어렵다는 공감 속에서 대중, 여성의 참여가 가능하려면 운동의 주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통일평화운동의 새로운 시선을 위해서는 주제, 방향, 내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대상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 주제로 서야 하고, 정치공학적인 틀을 넘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서로를 소통하는 대화 운동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경험, 삶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콘텐츠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조각보 경기남부지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김채화(중국 동포) 대표와 황금숙(남한) 총무를 임원 선출했다. 또한 사무실(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3 한솔빌딩 302호) 운영 및 우선 사업으로 ‘회원들의 상호이해를 돕는 경기남부 삶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의 기자

윤화섭 시장 “사할린귀국동포 행복한 노후 위해 노력할 것” 사할린귀국동포 연합회 간담회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1월 18일 상록구 소재 사할린고향마을복지관에서 열린 ‘전국 사할린귀국동포 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자녀들과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주관으로 사할린동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력한 전해철 의원 등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과 동법 시행령 및 자녀의 영주귀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화섭 시장은 “타국에서 오래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는 자녀들과 더욱더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가정보육 아동 건강과일 제공 안산시, 아동 7천200명 혜택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에게만 지원하던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올 9월부터 신청일까지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12월 1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s://voucher.konacard.co.kr/41>)에서 신청하면 과일간식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물론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만500원씩 지원하는 과일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안산화폐 다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로 지급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액이 충전된 다운카드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가까운 편의점 등 경기도 마크 및 과일 대장 마크가 있는 국내산 과일을 구매하면 되며, 지급받은 날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 7천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엄선된 국산 과일을 제공하면서 과수농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에만 지원하던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이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돼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국산(경기지역 생산 50%)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31-481-2317

이지은 기자

안산시 어르신 무상버스 지원 3만3천여명 혜택

내국인 어르신 대상 ... 향후 외국인주민 어르신 확대 기대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최초로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안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상교통 지원 대상은 11월 30일 현재 국적을 취득한 어르신이지만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 어르신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산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지난 18일 “노인 다수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 감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안산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시의회 및 관내 노인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매년 5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3만3천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시흥 가족, 다양한 온라인교육으로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 관계 늘려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과 청소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부모교육, 식물을 통한 육아상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식물을 통한 육아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청소년기 가족프로그램은 가족생애주기별에 따라 발달과업에 맞는 교

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기를 맞은 자녀와 가족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육아상담은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줌을 이용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2월 7일까지 받으며 시흥시에 거주하며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명 대상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으로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양말목트리 만들기'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청소년기 가족프로그램은 가족생애주기별에 따라 발달과업에 맞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기를 맞은 자녀와 가족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예교실은 사전 신청을 받

았으며 강의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줌을 이용해 진행된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기와 자녀 12가정 대상이며, 자녀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가능하다.

#다가온 나만의 공부방, 책상 꾸미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가온 자녀성장지원사업으로 '나만의 공부방,나만의 책상 꾸미기'를 진행한다.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목공 활동을 통해 아동기의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며 또래 활동의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12월 1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10명을 받으며 프로그램은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독서대, 책꽂이, 연필통, 티슈케이스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참가비는 무료다.

#우리가 들어줄게요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대상자를 위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 또는 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족상담 및 학교, 유관기관 연계로 이동제한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 아동상담,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1 서비스인 무료법률상담 등이 진행된다.

시흥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전화 및 내방 접수 후 사전예약해 상담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319-799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식물을 통한 육아상담(온라인강의)

찾아가는 청소년기 가족프로그램은 가족생애주기별에 따라 발달과업 맞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기를 맞은 자녀와 가족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 |
|-------|--|--|
| 강의 일시 | 12월 12일(토) 오후2시 ~ 3시30분 ※실시간 온라인 화상 ZOOM을 이용합니다. |  <p>원예치료란?</p> <p>원예치료는 식물 기르기, 빗물 버리기 등 자연 생태 체험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원예치료는 용이는 1945년 이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오랜 전통, 오랜 배경을 가진 사물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흥시는 1971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작한 원예치료를 2014년 11월 15일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작하였습니다.</p> |
| 신청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 12월 7일(월) | |
| 참여 대상 | 시흥시에 거주하며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명 | |
| 수령 장소 | 시흥시 송지로59번길1, 건아빌딩 3층 | |
| 참여 방법 | <p>[김연선 강사 이력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이야기 원예교육심리상담센터 대표 - 초등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다수 원예치료 강의진행 <p>①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접수 ② 신청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신청서 안내 문자 발송 ③ 센터 방문하여 원예키트 수령 ④ 노트북 또는 핸드폰에 Zoom 설치 ※ 참여자에 한하여 방 코드 개별문자 발송 ⑤ 12월 12일(토) 오후2시 Zoom으로 강의 진행 ⑥ 활동 후 만족도 조사링크를 클릭하여 제출</p> |  |
| 신청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신청(shcity.familynet.or.kr) ▶ 전화(농곡분관사업팀 070-4236-7443~5) | |
| 기타 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 무료 ▶ 문의전화 : 분관사업팀 070-4236-7443 | |



여성가족부지원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우리가 들어줄게요, 함께 나눠요.

"상담 프로그램 안내"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대상자를 위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상담

개인 또는 가족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 하는 전문상담 서비스

이동상담

학교, 유관기관 연계로 이동제한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무료법률 상담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1 서비스

운영방법

접수방법 **전화및내방접수** > **사전예약** > **상담실시**

지원대상 시흥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상시접수

이용시간 프로그램별 진행시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접수 필수

상담비용 무료(단, 가족전문상담의 경우 무료회기 이후 유료상담가능) ✓

문의 ☎ 031)319-7997, 317-4516(내선 5번) 가족상담팀

※ 한국어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경우 통역지원도 가능합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Бытовая техника в Корее: что ес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 каждом доме

외국인주민이 보는 한국의 가전문화, 김치냉장고·온열매트·공기청정기의 한국적 특성



Бытовая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родается в супермаркетах электротоваров в Корее, достаточно си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ого, что продается в России. Я не говорю, пр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бренды в этих двух странах, а скорее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различия в культурах на примере используемой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корейцами в своих домах.

Итак, первое что я хочу представить в своей статье - это холодильник для хранения кимчхи. Как для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хлеб всему голова, так для и для гражданина Кореи практически ни один прием пищи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квашеной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ы - кимчхи.

Так почему же для такой закуски был изготовлен специальный холодильник? Обы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есть кимчхи практически круглый год, его готовят в больших объемах.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правильного созревания закуски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стоянную температуру, что немного сложно сделать в обычных холодильнике за счет постоянно открывания дверцы.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се скиснет и употреблять такую закуску в пищу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Холодильники для кимчхи обычно сделаны с выдвижными ящиками, либо же с верхним открытием, что позволяет не в



ыходить холодному воздуху при открытии дверцы. Кроме этого кимчхи имеет достаточно специфический запах,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все же решите хранить этот вид закуски в обычном холодильнике,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начнут издавать тот же аромат.

Второе - очистители воздуха. До переезда в Корею я никогда не задумывалась о приобретении такого прибора, да и выбора в моем городе особо не было. Ведь можно просто открыть окно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всю свежесть природы в любое время. Но не в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Третье - матрасы с подогревом. Во многи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действует центральное отопление, поэтому даже зимой температура в квартире достигает 25-28 градусов. В Корее же еще с давних времен используют систем

у подогрева пола - онды.

Однако чтобы сэкономить на отоплении очень часто корейцы либо не включают подогрев пола, либо ставят на самую низкую температуру. И во время сна надевают теплую одежду или 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матрасы с подогревом. Установив необходимую температуру, по матрасу будет циркулировать горячая вода, которую в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лили. Первое время я отказывалась понимать эти матрасы, но сейчас мне они кажутся такими удобными, что готова привезти пару штук в загородный дом в России.

Ну и последнее - это рисоварка. По сути, это является мультиваркой, которую легко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России. Однако в Корее используя этот бытовой прибор в основном готовят рис.

Я думаю, что этот список можно продолжать и продолжать. Ведь в Корее так много удивительных вещей, которые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нет ни в одной стране мир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состояние. Если бы в России было так же,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удобно.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Корее. К сожалению, еще до прихо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ногие жители носили маски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защиты в обычной защиты. А виной всему - мелкодисперсн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очень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Самый пик обыч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и иногда загрязненность воздуха доходит до того, что даже не видно верхушки гор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у нас за домом.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пасает очиститель воздух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задышать в полную грудь хотя бы у себя дом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양한 체험키트로 즐거운 시흥시"

시흥외복, 다문화체험·홈트레이닝 키트 배부



다문화체험 키트 배부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 시흥외복)는 지난 11월 3일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문화체험키트 600개를 제작하여 배부했다.(사진=시흥외복)

이번 다문화체험키트는 마트료시카(러시아), 고양이가면(일본), 용춤(베트남), 풍령(중국) 등 다양한 다문화 교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교구 설명서 및 동영상 함께 전달하여 각 기관에 아동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의 어려움이 있는 관내 유관기관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

다문화체험키트 배부받은 기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기회가 적어 고민이 많았는데 다문화체험키트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알 기회가 되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다문화체험키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

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누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홈트레이닝 키트 배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블루를 넘어 코로나레드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 있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홈트레이닝 키트를 배부했다.

해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체육대회, 축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져 심신을 단련하고 여럿이 함께 운동하는 재미를 느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체육활동이 중단됐다. 특히 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을 맞아 외국인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흥시와 시흥외복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이번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은 4종류의 키트로 구성됐다. 스트레칭 밴드, 악력기 등 각 세트별 2~3개 기구가 포함되어, 가벼운 운동부터 전신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트레이닝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여 센터 SN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Реализация второ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 Иностранцам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изменённые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С 24 ноября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в том числе в Кёнгидо, было поднято до второго уровня.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через пять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был 1,5, с 19-го числа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связанно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rona 19 в Корее не простое. Увеличение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 это карантинная мера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более масштаб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граждане, в том числе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в основном понесут социальны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в свое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Рассмотрим что измен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2-м уровне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ачиная со второ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мнить стандарт 21:00. В общепитах можно находиться только до 21:00, после чего разрешается только вынос и доставка. Во время еды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такие как ▲ соблюдение дистанции 1 метр ▲ располагаться через одно сиденье ▲ установка перегородок или ширм. Помещения для пения, закрытые залы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и закрытые спор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также должны быть закрыты после 21:00.

В кафе запрещено есть и пить в помещении, а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разрешена только упаковка и доставка. Пять типо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таких как клубы, вообще запрещены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и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ы и закрыты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могут 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до 21:00. Ношение маски обязательно в помещениях, включая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и только 10% вместимости разрешено для просмотра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корейская сер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бейсбола.

Также затронуты сем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очень важны для к

орейцев. В свадебных залах и похоронных бюро должно быть не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В кинотеатрах и залах для спектаклей необходимо освободить одно место между зрителями и не разрешается питание. Те же стандарты применяются к компьютерным комната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если имеются перегородки.

Даже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нельзя есть пищу, а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учениками необходимо увеличивать, ограничивая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до одного на 8m².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упонов на скидки и на питание, проживание и путешествия,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также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с 24-го числа. Их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лучае, если вы уже забронировали, но даже если вы получили купон, вы не мож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если вы еще не забронировали. Однако скидки на продукц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продолжаю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тарших школ,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ах также изменилось соотношение посещаемости с двух третей до одной трети.

Однако с 26 ноября, за неделю до вступительных экзаменов в институт, в средних школах и школах, исползуемых в качестве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площадок,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занятия в онлайн режиме.

Вступительный экзамен в институт - это тест, который сдают учащиеся третьего класса старшей школы, чтобы поступи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 и он признан очень важным днем в Корее, где поступл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 очень важно.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продолжитс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до 7 декабря, и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пересмотреть корректировку фазы, сообщив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инфекции в будущем.

<한글 기사 1면>

"5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달라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생애 최초 충전자 소비지원금 등 외국인주민도 경기지역화폐의 다양한 혜택 받아요



최대 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사업. 외국인주민 중 아직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경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마감 시기를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 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등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경

기도의 경제정책이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확대와 관련해 달라진 점을 질문(Question)과 답(Answer) 형태로 알아봤다.

Q: 소비지원금의 연장 내용은?

A: 경기도는 소비지원금 지원 기간을 오는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하고, 생애 최초 지역화폐 충전자에 대해서는 사용요건을 완화해 20만 원 충전 시 인센티브 2만 원과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1인 1카드 20만 원 충족요건을 완화해 카드간 합산도 가능하게 했다. 단, 이 경우 마지막으로 20만 원이 충족되는 카드에 소비지원금이 부여되며, 동일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Q: 생애 최초 충전자의 요건은?

A: 당초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은 20만 원 이상 지역화폐 충전 후 이를 지정된 기간 내 모두 소비해야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주민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감 기한이 연장되면서 생애 최초 지역

화폐 충전자를 위한 혜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초 충전의 기준은 일반발행 충전을 기준으로, 경기 지역화폐 사업 추진시점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충전하지 않은 회원이 기간 내 최초로 충전한 것을 의미한다.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 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0만 원 미만 충전일 경우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꼭 1회 20만 원 이상 충전해야 한다.(누적 적용 없음)

Q: 소비지원금 사용 기한은? 기한 내 미사용 시 어떻게 되는가?

A: 소비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 사용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 아울러 사용 촉진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일반충전금 및 다른 정책수당보다 우선 사용되도록 결제시스템에 적용했다. <중국어 4면, 베트남어 하단, 러시아어 5면, 일본어 12면, 태국어 21면>

송하성 기자

"Đừng bỏ lỡ 50.000 won"...Tiền hỗ trợ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đã có thay đổi mới

Có thể nhận ưu đãi lên đến 50,000 won từ dự á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tiền tệ tỉnh Gyeonggi do", trong số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nếu có ai chưa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hì bây giờ hãy nắm lấy cơ hội này.

Tại tỉnh Gyeonggido, nhằm giúp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ó thể nhận được ưu đãi từ dự á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thì tỉnh đã cho gia hạn thời gian kết thúc chương trình từ ngày 17 tháng 11 sang ngày 17 tháng 12

Nếu bạn nộp 200,000 won thì bạn sẽ nhận được 20,000 won tiền hỗ trợ cơ bản và nếu bạn sử dụng hết 200,000 won trong vòng 2 tháng thì bạn sẽ có thể nhận thêm 30,000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như vậy tối đa các bạn có thể nhận 50,000 tiền hỗ trợ từ chính sách kinh tế của tỉnh **효대 ㄸㅎ하애**.

Sau đây là mục hỏi và đáp liên quan đến việc mở rộng dự á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Q: Nội dung gia hạ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là gì?

A: Tại tỉnh Gyeonggi do thì thời gian hỗ trợ tiền tiêu dùng đã được gia hạn thêm 1 tháng đến ngày 17 tháng 12, Những người lần đầu nộp tiền sử dụng

thì lúc nộp 200,000 won thì sẽ nhận được 20,000 won tiền bonus và 30,000 wo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Ngoài ra thì theo tiêu chuẩn hiện tại thì 1 người dùng 1 thẻ và nộp 200,000 won và có thể gộp giữa các thẻ.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thẻ cuối cùng mà thỏa mãn được điều kiện 200,000 won thì sẽ được cấp tiền hỗ trợ vào thẻ đó và số tiền này chỉ được công nhận trên cùng 1 hệ thống vận hành tiền tệ khu vực.

Q: Điều kiện của người lần đầu nộp tiền vào để sử dụng là gì?

A: Điều kiện trước tiên của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là sau khi bạn nộp số tiền trên 200,000 won vào thì bạn phải tiêu hết số tiền này trong thời gian quy định thì mới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Và đương nhiên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ưu đãi này. Tuy nhiên lần này thì thời gian sử dụng tiền cũng đã được gia hạn và những người lần đầu nộp và dùng tiền tệ thì sẽ nhận được nhiều ưu đãi mới hơn

Tiêu chuẩn của nộp tiền lần đầu đó là lấy theo tiêu chuẩn nộp tiền cơ bản, tính từ thời điểm đề xuất dự án sử dụng tiền tệ tỉnh Gyeonggi,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những ai là hội viên mà chưa một lần nộp tiền sử dụng và lần này là lần đầu nộp tiền sử dụng trong thời gian được đề ra.

Trường hợp là người lần đầu nộp tiền sử dụng thì từ sau ngày 12 tháng 11 nếu nộp trên 200,000 won 1 lần, không cần xét có sử dụng hay không thì vẫn sẽ được nhận 30,000 wo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ộp dưới 200,000 won thì sẽ không được nhận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Nếu bạn muốn nhận được ưu đãi thì bạn phải nộp tiền sử dụng trên 200,000 won một lần (không áp dụng hình thức nộp tích lũy)

Q: Thời hạn sử dụng tiền hỗ trợ? Nếu không sử dụng hết tiền hỗ trợ trong thời gian quy định thì sẽ bị như thế nào?

A: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sẽ phải dùng trong vòng 1 tháng kể từ ngày được cấp, nếu không dùng hết trong thời hạn thì tiền sẽ bị tiêu tan. Bên cạnh đó để tránh tình trạng sử dụng thiếu hiệu quả thì ở một số hệ thống thanh toán đã được cài đặt để có thể ưu tiên sử dụng số tiền này trước. <한글 기사 상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Book Start Project

Local Library

- **Eligible for Project** : 6 months to 7 years old living in Siheung City (preschool)
- **Project Period** : All Year Round
- **Project Contents** : 'Book Start' book pack distribution, book play program, parent education, etc.

| Stage | Name | Target |
|---------|-------------------------|------------------------|
| Stage 1 | Book start | 6 ~ 18 month |
| Stage 2 | Book start plus | 19 ~ 35 month |
| Stage 3 | Book start treasure box | 36 month ~ 7 years old |

- **Package components** : 2 drawing books, handkerchief (Stage 1), brochure, bag
- **Package composition** : 2 picture books, handkerchief (1st step only), guide, bag
- **Distribution method** : Always distribute within the library operating hours; Visit the Library to apply for the program. (Sign-up online by Visiting the Library web site (baby name), guardian's identification card, baby's date of birth and related documents)
- **Operation details**

| Libraries | Location | Telephone Number |
|------------------------------|--------------------------------------|------------------|
| Jeongwang Children's Library | Infant and Child Reference Room (F1) | 031-310-5186 |
| Daeya Children's Library | Child Maru (F1) | 031-310-5250 |
| Nuenggok library | Child Reference Room (F1) | 031-310-2556 |
| Mokgam library | Child Reference Room (F1) | 031-310-2590 |

Child Tuition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Eligible for Support** : Kindergarten Children aged 3 to 5
- **Support Details** : Nuri curriculum is supported for all class regardless of income
- **How to Registration** : visi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sign-up through app or web site (online.bokjiro.go.kr)



Child allowancet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Eligible for Support** : All children below 7 years old regardless of income
- **Support Details** : 100,000won per month will be provided for each child
- **How to Registration** : visi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sign-up through app or web site

My Very First Library

Local Library

- **Eligible for Project** : Pregnant ~ 12 months after the birth of a child (up to 22 months)
- **Period of registration** : A year-round
- **Project Contents** : Book rental delivery service for pregnant women and infants who have difficulty visiting the library.
- **How to apply** : Visiting public libraries in the city (Needs to join the Siheung City Library and the Gyeonggi Cyber Library website)
- **Documents Needed** : Identity card, pregnancy certificate or maternity note (document for birth date confirmation in the case of infants)
- **Operating Institutions**

| No. | Libraries | Telephone No. | No. | Libraries | Telephone No. |
|-----|------------------------|---------------|-----|-------------------------|---------------|
| 1 | Jeongwang Library | 031-310-5225 | 5 | Gunja Library | 031-310-5194 |
| 2 | Nuenggok Library | 031-310-2556 | 6 | Jeongwang Child Library | 031-310-5186 |
| 3 | Daeya Children Library | 031-310-5250 | 7 | Mokgam Library | 031-310-2590 |
| 4 | Daeya Library | 031-310-5274 | 8 | Janggok Library | 031-310-5235 |



Support for Adoption and Child Care Benefit

Child Care Department (310-3177)

- **Eligible for Support** : Families who have adopted through an authorized agency under the Special Adoption Special Act Law.
- **Selection Criteria** : Children who meet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ith regard to Special Adoption Act will be supported until they turn 17.
 - The support will be terminated when children reach 17, pay for final month (17th birth month) will be fully paid.
 - Can be paid simultaneously with child care subsidy for disabled children.
 - ※ Those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due to reports of adopted children and overseas migration under civil law cannot be supported.
- **Support Details** : 150,000won per month
- **How to Apply** : Visit the child care departmen

24
25

Infant · Children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Using Child Care Services

Women's Family and Healthy Family Team (031-310-2617)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Co-parenting Support (031-317-4516)

- **Eligible for Support** : Children aged 3 months to 12 years old or younger
- **Hours of Use** : Part-time(within 720 hours a year), Whole day Infant Care (60 to 200 hours a month)
- **Service Charge** : Part-time (Normal charge 9,650 won, Full charge 12,550 won)
※ application of support differs according to income level
- **Application Method** : Apply through Child Care Service Homepage <https://idolbom.go.kr>
- **Types of Services**

| Service Name | Hours of Use | Service Charge (per hour) |
|------------------------------------|---------------------------|-----------------------------------|
| Full-day Service | More than 3 hours per use | 9,650 won |
| Part-time Service | More than 2 hours per use | Normal 9,650 won /Full 12,550 won |
| Disease-infected children services | More than 2 hours per use | 11,580 won |
| Institutional Dispatch Service | More than 2 hours per use | 16,500 won |

Using Dream Start Center

Child Care and Dream Start Team (031-310-3174)

- **Eligible for Support** : children and families aged between 0 and 12 years old and younger
- **Application period** : All year-round
- **Support details** : Services such as Social-emotional support, child health education, child development and child care education
- **Application Method** : Visit the nearest 'Dong(Community)'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Dream Start Center
- **Document to be Submitted** : ID card

Support for Child Care Givers

Women's Family and Healthy Family Team (031-310-2617)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Co-parenting Support (031-317-4516)

- **Eligible for Support** : Parents with children in 1st and 3rd grade
- **Application Period** : All year-round (frequent recruitment)
- **Support Details** : Activity cost support (20,000 won per student per month)
- **Application Method** : Apply by calling the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ummertime Outdoor Water Play

Park and Park Management Team(031-310-3862-3865/3869-3871)
Siheung-si Construction Corporation (031-488-6900,6903/6962-3)

Seawater Experience Area

| Experience Area Name | Location | Service Charge | Phone Inquiry |
|---|--------------------------------|---|--|
| Gaetgol Seawater Experience Area | 287 Dongseo-ro, Siheung-si | 4,000won (30% discount for Siheung-si citizens) | Siheung-si Construction Corporation (031-488-6900,6903/6962-3) (031-488-6900,6903) |
| Hanwooll Park Sea Water Experience Area | 590 Jeongwang-dong, Siheung-si | 4,000won (30% discount for Siheung-si citizens) | Siheung-si Construction Corporation (031-488-6962-3) |

Neighborhood Park Water Playground

| # | Name or Place | Location | # | Name or Place | Location |
|---|------------------------------------|--------------------------------------|----|--------------------------|-------------------------------|
| 1 | Sandaul Neighborhood Park | 1352 Street, Geomo-dong | 8 | Waterlight Park | 2464 Street, Jeongwang-dong |
| 2 | Sincheon Neighborhood Park | 57 Street, Sincheon-dong | 9 | Forest Hyang Gi Park | 2385 Street, Jeongwang-dong |
| 3 | Pigeon(Bideulgi) Park | 551 Street, Eunhaeng-dong | 10 | Hani Park | 2795 Street, Jeongwang-dong |
| 4 | Hasang Children's Park | 72 Street, Hasang-dong | 11 | Youth & Passion Park | 5 Street, 1800 Jeongwang-dong |
| 5 | Saetmal Neighborhood Park | 848 Street, Hajung-dong | 12 | Gunseo Neighborhood Park | 1581 Street, Jeongwang-dong |
| 6 | Pine Forest Neighborhood Park | Mountain 12 - 6th Street, Misan-dong | 13 | Okgu Park | 2138 Street, Jeongwang-dong |
| 7 | Siheung Mokgam Neighborhood Park I | 2nd Street, Jonam-dong 413 | | | |



다문화 친화 문화 조성과 세계시민 역량 함양

시흥교육지원청, 학생 다문화 이해 주력 '세계문화체험' 운영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은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0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학급 단위로 신청한 60학급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가 교실로 찾아가 2시간씩 주제별 세계 각국의 문화소개와 체험활동을 학급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학급문화 조성과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시민 역량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2020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전통의상', '전통악기', '전통놀이' 3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주제별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한 후 학생들이 선택한 체험키트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 학급에서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개인별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는 시흥지역 사회적 기업 「이음교육」과 연계하여 인력풀을 활용한다. 다양한 나라 출신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경험담과 설명은 학생들의 긍정적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중 '전통악기'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각 나라의 기발한 악기들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다루는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며 세계가 가깝게 느껴졌고, 내가 세계시민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조동주 교육장은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 속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청년의 경험을 강의로' 비대면 버전 시흥시, 스스로 강의하는 장 마련해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청년 누구나 교실' 비대면 버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년 누구나 교실은 2016년부터 재능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발굴해 스스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재능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청년 수강생은 해당 강의를 들으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총 101명의 청년강사를 배출했다.

특히, 올해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강의로 진행했다. 지난 15일 마무리된 이번 비대면 청년 누구나 교실은 16명의 청년강사가 유리공예, 디지털 뮤직 메이킹, PPT 디자인 등을 주제로 운영했다.

참여한 청년강사들은 "경험이 적은 청년으로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강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강사로서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영역 확장을 모색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다.

시흥시는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 누구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경기청년협업마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515)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อย่าพลาด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 50,000 บาท" ... เปลี่ยนแปลง"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ของคยองกี"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ยัง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ต่างๆของ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ของคยองกีเช่น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ผู้บริโภค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ชีวิต

โครงการ"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ของคยองกี (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จำกัด)" ที่สามารถ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ได้มากถึง 50,000 บาท หากคุณยังไม่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ใด ๆ ในห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ย่าพลาดโอกาสนี้เลย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ขยายธุรกิจอย่างมีนัยสำคัญโดยขยายวันปิดรับสมัครเป็นเวลาหนึ่งเดือนตั้งแต่วันที่ 17 พฤศจิกายนถึงวันที่ 17 ธันวาคมเพื่อให้ผู้คนจำนวนมากขึ้น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สกุลเงินภูมิภาคคยองกี (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จำกัด)"

นโยบายเศรษฐกิจของคยองกีได้คือการจ่ายเงินสูงถึง 50,000 บาทรวมถึง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 30,000 บาทหากแรงจูงใจพื้นฐานคือ 20,000 บาทสำหรับการเติมเงิน 200,000 บาทและ 200,000 บาทภายในสองเดือน

เราได้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ขยาย"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สกุลเงินภูมิภาคคยองกี" ในรูปแบบของคำถามและคำตอบ

ถาม: การขยายการ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คืออะไร?
ตอบ: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ภายในหนึ่งเดือนถึงวันที่ 17 ธันวาคมและผ่อนปรนข้อกำหนดการใช้งานสำหรับการเติม

เงินใ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ชีวิตและจ่ายเงินจริง 20,000 บาททันทีและ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 30,000 บาทเมื่อ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 200,000 บาท ฉันตัดสินใจที่จะทำมั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เพิ่มระหว่า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ได้โดยการผ่อนปรนข้อกำหนดเพื่อให้ได้ 200,000 บาทต่อการ์ดต่อค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ในกรณีนี้การ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จะมอบให้กับบัตรที่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 200,000 บาทล่าสุด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เฉพาะในแพลตฟอร์ม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เดียวกัน

ถาม: ข้อกำหนดสำหรับการชำระครั้งแรกมีอะไรบ้าง?
ตอบ: ในขั้นต้นเงื่อนไข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สำห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คือหลังจาก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ใ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200,000 บาทขึ้นไปและใช้จ่ายทั้งหมด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เช่นกั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ด้วยการขยายกำหนดเวลาในครั้งนี้ได้มีการเพิ่ม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ใหม่สำหรับเครื่องชาร์จใ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

มาตรฐานสำหรับการเติมเงินเริ่มต้นจะขึ้นอยู่กับเงินที่ออกโดยทั่วไปและหมายถึง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ครั้งแรกภายในช่วงเวลาโดยสมาชิกที่ยังไม่ได้เติมเงินในโครงการ

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ของคยองกีตั้งแต่ช่วงโปรโมชัน
ในกรณีของการเติมเงินครั้งแรกหลังจากวันที่ 12 พฤศจิกายนสามารถ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ได้เพียง 200,000 บาทขึ้นไปหนึ่งครั้งไม่ว่าจะใช้หรือไม่ก็ตาม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ารบริโภค 30,000 บาทได้ทันที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น้อยกว่า 200,000 บาท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ได้ ในการ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คุณต้องเติมเงินอย่างน้อย 200,000 บาทต่อครั้ง (ไม่มีการสมัครสะสม)

ถาม: กำหนดเส้นตายในการใช้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คืออะไร? จะเกิดอะไรขึ้นหากไม่ได้ใช้ภายในกำหนด?

ตอบ: การ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บริโภค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ที่มีความผันผวนซึ่งต้องใช้ภายในหนึ่งเดือนนับจากวันที่ชำระเงินและจะหมดอายุหากไม่ได้ใช้ภายในกำหนด นอกจากนี้เพื่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ใช้งานและป้องกันการใช้งานในทางที่ผิดระบ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ได้ถูกนำไปใช้กับระบ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เพื่อใช้ใน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ทั่วไปและค่าเผื่อนโยบายอื่น ๆ

<한글 기사 19면>

이아리 기자

“결혼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 공간 ‘다가온(ON)’을 아세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기개발과 정보 교류 공간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에는 지난해 12월 다문화가족을 위해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바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이다.

‘다가온(ON)’은 부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자기개발과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모임 및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너무나 쓸쓸한 공간이 됐다.

이용자들을 기다리던 지루하고 긴 시간은 어느덧 9월이 되었고 ‘다가온(ON)’

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풍선을 매개로 한 ‘풍선 마술사’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첫 문을 열게 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풍선 마술사’ 자조모임은 다가온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참가자들 모두가 너무나 설레고 행복해했다. 알록달록 풍선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완성해 가면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풍선 마술사’ 자조모임 후 참가자들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워 우울했는데 풍선아트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행복했다.”는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지금은 빗그림동화 자조모임, 라탄공예 자조모임, 양말목공예 자조모임, 마크라메 자조모임 등을 대면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되면서 ‘다가온(ON)’ 공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은 한 주간 다양한 수업과 자조모임이 진행되면서 중국, 일본, 베트남,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각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다가온 담당자인 정임선 씨는 “다양한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자조모임이 진행되는 동

안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조모임에서 공예를 배우던 참가자들은 “이렇게 예쁜 걸 만들고 있으니 다시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신나요!” 등 다시 동심을 되찾은 모습을 보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다가온(ON)은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주 모여 동심을 되찾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부천다가, 2021년 KB국민카드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 공모사업 선정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는 2020년 KB국민카드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사업.초록우산 어린이재단지원 공모 선정으로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1인 유튜브활용 & 문서 실무 교육’>을 운영하게 됐다. ‘1인 유튜브 활용&문서 실무 교육’은 컴퓨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 및 코로나 19시기에 비대면으로 흡수핀 또는 판매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활용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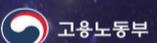
2020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업은 결혼이민자 15명에게 4개월간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

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은 ▲전문적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 ▲취업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 ▲취업연계 지원을 통한 취업률 향상 기여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영 센터장은 “KB국민카드 후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35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같은 다문화가족들이 부천시에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취업이력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I 유형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취약계층
* 선발령 :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문의·상담
고용센터 ☎ 국민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문의 요건 등은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확인하십시오.



Новый дизайн мусорных пакетов поможет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в утилизации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외국어로 된 새로운 디자인의 쓰레기봉투 활용하기



Живя в Росси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я как-то не задумывалась о разделении мусора. Ведь во-первых, в моем сибирском городе попросту плохо разви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ереработки, а во-вторых -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ому как правильно разделять мусор является мало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по этому не владея интернетом найти что-то достаточно трудно.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жители России предпочитают более привычный способ утилизации мусора экологичному.

Первое время я постоянно бегала к мусору и спрашивала что и куда нужно сортировать. Помим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деления мусора для меня было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даже мусорные пакеты для пищевых отходов необходимо покупать отдельно и для каждого города они отличаются. Я понимала, что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о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разобраться в этой системе на первых порах.

Поэтому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в Корею разделение мусора для меня стало настоящей головной болью.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отдельно, бумага отдельно, пластик, стекло, виниловые полимеры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отсортировать перед попаданием на мусорку. Пер

Однако еще 9 ноябр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ёнгидо появилась очень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для многих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вигается идея по размещению на мусорных пакетах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Делается это с целью

сокращения незаконных способов утилизации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уже существует в 8 город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гд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о: Суwon, Пучхон, Хвасон, Ансан, Пхентхек, Гунпхо, Тондучхон и др.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дизайны мусорных пакетов для 31 городов провинции, где еще не была введена эта система. А именно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названия мусорных пакетов и правила утилизации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на китай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Посл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дизайна к программе решил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следующие города: Коян, Йонъин, Сонам, Намъянджу, Сихын, Паджу, Ыйджонбу, Кимпхо, Кванджу, Осан, Янджу, Ичхон, Гури, Ансон, Капхён, Квачхон и Йончхон.

В отдельных городах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размести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вьетнамском языке и в виде QR-кода,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через смартфон.

Проекты такого ро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могают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едь тема разделения мусора и сокращения мусора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а не т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но даже и самим корейцам. Поэтому я надеюсь, что к этому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тся еще больше городо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

В России к этому вопросу относятся иначе. Ведь тема разделения мусора и сокращения мусора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а не т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но даже и самим корейцам. Поэтому я надеюсь, что к этому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тся еще больше городо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

Второе, 쓰레기 분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드물기 때문에 인터넷 없이는 무언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많은 주민들은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재활용 방법보다 그냥 버리는 친숙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한 후 쓰레기 분리 배출은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종이, 플라스틱, 유리, 비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분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달려가 무엇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京畿道社会住宅, 降低居住费用负担, 提高共同体温度

促进无论是谁都可以长期入住的新形态租赁住宅供给方案 경기도 사회주택, 한국의 부동산 위기 넘을까?

政府持续出台房地产对策, 这意味着住房难问题非常严重, 特别是首都圈的租房难问题日益严重, 不仅没有实现自己买房的梦想, 反而到处搬家的“租房难民”正在剧增。

此外, 还有些人因家庭形态发生变化而面临居住问题。以4人为标准的现有家庭中, 一户一子女的3人家庭有所增加, 而现在1人家庭正以堂堂正正的家庭形态占据着一席之地, 并且正在迅速增加。

“社会住宅”作为克服1人家庭急剧增加和公共租赁住宅等现有居住支援体系局限的替代方案而备受关注。京畿道决定将基本住宅的范围扩大到社会住宅, 帮助脆弱阶层稳定居住。

■京畿道型社会住宅
社会住宅是基本住宅的另一种形态。京

畿道基本住宅是不用收入或资产等限制入住资格, 只要是无住宅者, 无论是谁都可以在驿势圈等位置较好的公寓, 交纳比市价更低廉的租赁费, 长期居住30年以上的新概念居住模式。

京畿道型社会住宅的特点是, 土地归公共所有, 但建筑物归非营利法人、公益法人、合作社、社会企业、村镇企业等不追求营利的社会经济主体所有。

有人指出, 与现有的公共租赁住宅以收入为标准来决定入住者从而加深差别相反, 京畿道型社会住宅是给未能包括在公共租赁住宅对象的居住脆弱阶层提供稳定的居住环境。

计划住宅的60%以下以无住宅者为对象作为一般供应, 对低收入层、残疾人、1人家庭、高龄者等多种政策对象提供40%以上的特别供应。使用面积每户60平方米以下, 确保共同体空间占专用面积的10%以上, 共同体空间的用途将根据入住者的意见决定, 租赁费仅为周边市价的80%。

第一个示范项目是京畿住宅城市公社(GH)以“土地租赁部协同组合型社会住宅”的形式进行。即如果社会经济主体提出希望的

土地, 京畿道购买并确保所有权后, 以30年以上的低价进行租赁。在租赁地皮上, 社会经济主体建设住宅, 通过社会协同组合进行住宅租赁。GH公司计划推进可运营共同体项目的最小单位——约50户规模的社会住宅供给, 为了发掘事业者、入住者、供应者, 经过事前调查, 以推进民间提案事业的方式进行公开招募。今年8月入住的南杨州westy别公寓

是京畿道内代表性的社会住宅。这里从开发阶段开始就通过协同组合进行股份出资, 节约建筑费用, 将资本利益归入共同体。

其结果, 月收入200万韩元就可以负担居住费用, 管理费用和生活费用可以最大化地节省。另外, 还确保了居民在义务租赁期后也可以持续居住的可能性。

入住者选择westy公寓的理由有: ▲至少可以长期居住8年 ▲公寓型村庄共同体很有魅力 ▲提供多种居住服务 ▲没有预约资格限制, 任何人都可以入住 ▲年租金上涨限制在5%以内 ▲位置好等。

不仅是韩国人, 外国人对道知事李在明领导的京畿道型社会住宅的关注度也越来越高。 <한글 기사 13면>

왕그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코로나19로 집콕 중에도 우리 아이 언어능력은 쑥쑥 커져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빠랑 집콕 말놀이&엄마는 다 알아’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비대면 부모교육 <아빠랑 집콕 말놀이&엄마는 다 알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했으며, 선정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부모교육 키트에는 집에서 아빠와 함께 대형 종이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만들기 키트와 언어축진을 할 수 있는 말놀이 활동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자녀 언어축진을 위한 도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자 가정에는 10월 27일부터 키트가 택배로 개별 발송되었으며, 키트를 받은 가정에서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동봉된 매뉴얼에 맞게 진행하고 느낀 점과 활동사진 등을 센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한 대상자는 비대면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가 많은 단어를 배웠고, 무엇보다 아빠와 함께 만

드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향상됨을 느꼈다. 나 또한 책을 읽으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아이의 성장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부모의 반응이 아이에게 최고의 언어축진제라는 점을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백운영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대면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비대면 강의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대상자가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준 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사업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2차 부모교육은 비대면 강의로 12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 (070-4457-6108~9)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에 '니하오박스 딜리버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책배달 박스 200개 지원



부천시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정책배달 서비스인 '니하오박스 딜리버리' 사업을 운영했다.

이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의 '니하오박스'는 관내 급속히 증가하는 중국계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기준 부천시 등록외국인



은 4만3,195명이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계 이주배경청소년은 708명으로 증가 폭이 가파르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은 이민자로서의 고통과 차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경험하는 심리적 취약계층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이에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초기정착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

은 지침서와 심리방역 물품(스트레스 해소볼, 마스크, 쓰레기종량제봉투, 중국과자 6종, 라면) 담아 전달했다.

전달 대상은 관내 다문화 특별학교와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의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0여 명의 청소년이다. 향후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다. 사이버상담센터와 연계한 온라인 심리 건강 검사 뿐만 아니라 일상적 고민부터 가출, 폭력 등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http://zzang1318.or.kr/bucheon/>) 또는 전화 (032-325-30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 가정보육어린이 1만명 과일 구매비 지원

부천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어린이 1만 명에게 국내산 과일 구매 비용으로 1인당 40,5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그룹홈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공급되던 신선한 과일을 가정보육어린이까지 확대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일 소비도 늘리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부천시 지원 대상 아동은 1만 명으로, 경기도 지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해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기도 거주 어린이가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은 부천시 소재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488개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에 공급되는 과일은 100% 국내산이며, 경기도 로고와 우리아이 과일대장 마크가 부착된 과일만 구매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 환수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11일까지이다. 이지는 기자

NOTE

Kami mendukung impian para pekerja asing.

Sistem Izin Kerja Orang Asing



Indonesia






06 Jangan lupakan asuransi khusus WNA!

Apa itu asuransi khusus WNA?

Asuransi untuk pemilik usaha

| Bagian |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 kepercayaan |
|------------------------------------|--|--|
| Tujuan pengenalan | Mempersiapkan penundaan upah pekerja asing | Pencegahan pembayaran upah yang tidak dibayar dan pengurangan beban pembayaran sekaligus uang pesangon |
| Untuk | Pemilik usaha | |
| Berlaku | - Tempat kerja yang tidak terpenuhi oleh Undang-undang Jaminan Klaim Upah - Tempat kerja yang mempekerjakan kurang dari 300 pekerja tetap | Tempat kerja dengan lebih dari 10 orang pekerja tetap |
| Tidak berlaku | Industri konstruksi yang menerapkan kasus khusus untuk mempekerjakan pekerja asing (Pasal 12 ayat 1 huruf 1 dari hukum yang sama) | |
| Tertanggung atau penerima asuransi | Pekerja asing | |
| Alasan pembayaran uang asuransi | Dibayar jika pembayaran upah tertunda oleh pemilik usaha - Jika izin kerja diakhiri karena meninggalkan tempat kerja atau keberangkatan - sisa premi akan dibayar setelah perhitungan premi yang belum ditanggung/tidak termasuk premi asuransi pasca-jalan | Keberangkatan pekerja asing yang bekerja di tempat kerja selama lebih dari 1 tahun tanpa meninggalkan tempat kerja tersebut (Keberangkatan sementara tidak termasuk) |
| Prosedur klaim asuransi | Lihat halaman 14 | Lihat halaman 16 |

6-2 Asuransi kecelakaan diri

Apa itu asuransi kecelakaan diri?

Asuransi yang diperlukan untuk pekerja asing sebagai persiapan untuk kematian atau penyakit selain dari kecelakaan kerja.

Yang dijamin adalah sebagai berikut.

Meninggal dunia karena kecelakaan diri di luar pekerjaan, Trauma*: Hingga 30 juta won
Meninggal dunia karena penyakit di luar pekerjaan, cacat total**: Hingga 15 juta won

*Trauma: Dalam kondisi di mana penyakit tidak dapat sepenuhnya sembuh setelah perawatan atau tidak dapat menggunakan tenaga kerja seperti sebelumnya karena kecelakaan diri
**Cacat total: Dalam kondisi di mana cacat fisik secara permanen terlinggalkan karena sakit atau kecelakaan, yang mengakibatkan kehilangan total fungsi tubuhnya atau berkurang secara signifikan

Silakan mengajukan permohonan dengan disiapkan dokumen-dokumen sebagai berikut ini.

Mengajukan permohonan melalui telpon ke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all Center dengan mempersiapkan dokumen-dokumen di bawah ini

| | Jika meninggal dunia | Jika mengalami trauma |
|--|--|--|
| ① Aplikasi klaim asuransi | ① Aplikasi klaim asuransi | ① Aplikasi klaim asuransi |
| ② Salinan Kartu identitas | ② Salinan Kartu identitas | ② Salinan Kartu identitas |
| ③ Surat keterangan hubungan keluarga | ③ Surat keterangan hubungan keluarga | ③ Surat keterangan hubungan keluarga |
| ④ Salinan kartu identitas dari orang yang diwawancarai | ④ Salinan kartu identitas dari orang yang diwawancarai | ④ Salinan kartu identitas dari orang yang diwawancarai |
| ⑤ Surat kuasa penunjukkan perwakilan pewanja | ⑤ Surat kuasa penunjukkan perwakilan pewanja | ⑤ Surat kuasa penunjukkan perwakilan pewanja |
| ⑥ Salinan buku tabungan perwakilan pewanja | ⑥ Salinan buku tabungan perwakilan pewanja | ⑥ Salinan buku tabungan perwakilan pewanja |
| ⑦ Surat kuasa penyelidikan kecelakaan | ⑦ Surat kuasa penyelidikan kecelakaan | ⑦ Surat kuasa penyelidikan kecelakaan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all Center ☎ 02-2261-8400

05 Bagaimana jika Anda telah mengalami kekerasan seksual atau pelecehan seksual?

Apa itu kekerasan seksual?

Adalah perilaku seksual apa pun yang melanggar hak orang lain untuk mengatur diri sendiri secara seksual dengan menggunakan perbedaan kekuatan melawan kehendak pihak lain
Dalam arti sempit, itu berarti pemerkosaan dan pelecehan paksa yang dapat menghukum si pelaku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kerasan Seksual

* Baru-baru ini, suatu tindakan yang diambil melawan kehendak orang lain diakui sebagai pemerkosaan atau pelecehan seksual tanpa kekerasan.

Apakah konsep kekerasan seksual/pelecehan seksual/godaan seksual membingungkan?

- 1 Kekerasan seksual** - Salah satu jenis kekerasan seksual, yang berarti pemerkosaan dan percobaan pemerkosaan
- 2 Pelecehan seksual** - Pelecehan seksual selain perzinahan (Pelecehan yang dipaksa Jika melalui pemukulan atau ancaman) adalah perilaku seksual yang menciptakan rasa malu atau jijik seksual terlepas dari niat pihak lain
- 3 Godaan seksual** - Semua perilaku yang membuat korban merasa dipermalukan dan jijik secara seksual seperti kata-kata dan perilaku, dll oleh si pelaku. Pelecehan seksual di tempat kerja terutama disebabkan oleh perbedaan kekuasaan seperti kerja, pekerjaan, dll

Asuransi untuk pekerja asing

Asuransi yang wajib didaftar (dibeli) oleh pekerja asing dengan visa E-9, H-2 berdasarkan pasal 13, 15 dan 23 "UU tentang Ketenagakerjaan Pekerja Asing"

| Bagian | Asuransi kecelakaan diri | Asuransi biaya kepulangan - kepercayaan |
|------------------------------------|--|--|
| Tujuan pengenalan | Persiapan untuk kematian - penyakit selain dari kecelakaan kerja | Memakai untuk biaya yang diperlukan bagi pekerja asing untuk pulang ke negaranya. |
| Untuk | Pekerja asing | |
| Berlaku | Usaha atau tempat usaha yang telah mempekerjakan pekerja asing | - Indonesia, Filipina, Vietnam, Cina, Thailand: 400,000won - Sri Lanka: 600,000won - Lainnya: 500,000won |
| Tidak berlaku | - | - |
| Tertanggung atau penerima asuransi | Pekerja asing | |
| Alasan pembayaran uang asuransi | Pekerja asing meninggal dunia atau dalam kondisi trauma karena alasan lain selain kecelakaan kerja | -Keberangkatan pekerja asing (Keberangkatan sementara tidak termasuk) - Termasuk keberangkatan sukarela atau pengusiran paksa |
| Prosedur klaim asuransi | Lihat halaman 15 | Lihat halaman 18 |

6-3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Apa itu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Premi asuransi yang dibayarkan oleh pemilik usaha sebagai uang pesangon untuk pekerja asing. Pada saat pekerja asing mengundurkan diri dari tempat kerja, uang asuransi yang dibayarkan dari pemilik usaha adalah perbedaan antara uang pesangon dan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tidak dapat diterima di Korea, maka Anda harus mengimpor uang tersebut ke luar negeri atau terima di bandara saat Anda meninggalkan negaranya (Bahkan jika Anda bekerja di tempat kerja lebih dari 2, Anda akan menerima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dari masing-masing tempat kerja ketika Anda meninggalkan negaranya)

* Apabila bekerja kurang dari 1 tahun, pemilik usaha berhak untuk menerima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karena tidak ada uang pesangon

Yang dijamin (tingkat pembayaran) adalah sebagai berikut.

| | Kurang dari 12 bulan | Uang Pokok |
|---------------------|----------------------|------------|
| Lebih dari 12 bulan | 100.5% | |
| Lebih dari 24 bulan | 101% | |
| Lebih dari 36 bulan | 101% | |
| Lebih dari 48 bulan | 102.3% |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all Center ☎ 02-2261-8400

Mari mencegah Kekerasan Seksual dengan tindakan berikut ini!

Masukkan ponsel hotkey 112 pada no 0 untuk melaporkan kejahatan dan gunakanlah jika terjadi keadaan darurat
Hindari keluar pada malam hari larut malam dan jika hal itu tidak dapat dihindari mintalah teman untuk menjemput Anda
Jangan mengendarai kendaraan orang lain yang Anda tidak kenal menyuruh Anda untuk naik
Pintu dan jendela terkunci dengan aman dan memasang jendela keamanan dalam persiapan untuk intrusi menggunakan pipa gas
Gunakan tempat parkir yang aman (Hanya untuk wanita, adanya petugas(juru) parkir, instalasi CCTV, dll) dan parkir di dekat pintu masuk atau lift
Saat menggunakan taksi, hindari berbagi taksi dengan orang asing

Melarikan diri ke tempat yang aman jika terjadi kekerasan seksual
Laporkan segera ke polisi
Minta bantuan ke Pusat bantuan darurat untuk wanita imigran (☎ 1577-1366), Panggilan darurat untuk wanita (☎ 1366)
Jika Anda menjadi korban pelecehan seksual, pergilah ke Rumah Sakit atau ke Kantor Polisi tanpa mencuci atau ganti pakaian Anda untuk menyimpan bukti dan barang buktinya simpan di dalam kantong kertas

Pusat bantuan darurat untuk wanita imigran (Danuri Call Center) ☎ 1577-1366

6-1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Apa itu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Jika Anda belum menerima upah termasuk uang pesangon, dapat dikompensasikan melalui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yang diwajibkan untuk didaftar (dibeli) oleh pemilik usaha

Yang dijamin adalah sebagai berikut.

Jumlah yang belum dibayarkan dalam batas 2 juta won
Untuk pembayaran uang pesangon, pembayaran selisih penerimaan dari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Proses aplikasinya sebagai berikut

Klaim asuransi setelah menerima surat konfirmasi upah dan barang tidak dibayar

Kirim laporan tentang upah tidak dibayar kepada Divisi Peningkatan Tenaga Kerja di kantor Ketenagakerjaan dan Perburuhan yang bertanggung jawab (Penerbitan Surat konfirmasi upah dan barang tidak dibayar)

Klaim uang asuransi kepada PT. Asuransi Jaminan Seoul (SGI)

Perlu disiapkan dokumen-dokumen sebagai berikut.

1 lembar formulir klaim uang asuransi, 1 salinan buku tabungan (atas nama dirinya)
1 salinan KTP (Paspor atau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1 lembar Surat konfirmasi upah dan barang tidak dibayar (Dikeluarkan dan Kementerian Ketenagakerjaan dan Perburuhan (MOEL))
Dan lainnya (Dokumen tambahan yang diperlukan untuk audit kompensasi)

Pusat Konsultasi MOEL ☎ 1350 Call Center SGI ☎ 02-777-6689

Ini adalah cara klaim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Setelah memilih bank bandara terlebih dahulu, kunjungi bank tersebut secara langsung dan terbitkan "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 Bank di Bandara (Bandara Incheon) Shinhan Bank, Hana Bank, Woori Bank / (Bandara Gimhae) Shinhan Bank

Dokumen yang perlu disiapkan

Penerimaan di bandara

① Penerbitan "Surat perintah pembayaran uang asuransi" setelah aplikasi klaim uang asuransi melalui telpon ke perusahaan asuransi
Dokumen klaim asuransi: Formulir klaim asuransi, surat k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 * 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salinan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salinan paspor
② Bawa paspor, tiket pesawat, surat perintah pembayaran uang asuransi pada hari keberangkatan yang sama dan kunjungi bank pilihan Anda pada saat aplikasi klaim dan terima "Tanda terima penukaran uang"
③ Setelah selesai pemeriksaan imigrasi, menerima uang asuransi dalam kas dengan menunjukkan "tanda terima penukaran uang" di Money Changer yang terletak di dalam toko bebas bea (duty free shop)

Pengiriman uang ke luar negeri

- Aplikasi klaim uang asuransi melalui telpon ke perusahaan asuransi
- Dokumen dasar untuk klaim asuransi: Formulir klaim asuransi, surat k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 salinan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salinan paspor
- Dokumen tambahan sesuai dengan metode penerimaan
- Pengiriman uang ke rekening lokal: Salinan rekening lokal
- Pengiriman uang secara langsung ke bank lokal: Tidak perlu dokumen tambahan
- Rekening khusus pengiriman uang ke luar negeri: 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 "Surat keterangan jadwal keberangkatan" Dalam hal keberangkatan karena berakhirnya masa kerja dan masa tinggal, pekerja harus mengirimkan "Pembitahuan jadwal keberangkatan" ke pusat ketenagakerjaan dan 1 bulan sebelum tanggal keberangkatannya yang dijadwalkan dan memperoleh surat k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 sesudah pengiriman pembitahuan tersebut

Nếu bạn là người ngoại quốc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thì bạn cần nên biết những lễ nghĩa cơ bản sau đây 한국에서 외국인주민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

Có rất nhiều trường hợp khi ra nước ngoài, do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nên gây ra nhiều sự hiểu lầm. Hàn quốc là đất nước mà hiện nay vẫn còn giữ những phong tục, lễ nghĩa truyền thống phải tuân theo nên các bạn cần phải lưu ý những điểm này.

Các bạn cần phải học những quy tắc về lễ nghĩa cơ bản cần thiết trong sinh hoạt Hàn quốc để tránh phạm các điều không nên như là hành động khiếm nhã hoặc là bị hiểu nhầm là có những hành động không tôn trọng đối phương.

#Hãy chú ý những điểm sau khi giao tiếp với người lớn tuổ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ta rất coi trọng "tuổi tác". Dù đang có nhiều sự thay đổi tuy nhiên thì người ta vẫn tùy theo độ tuổi mà có những lời nói hoặc là cách cư xử khác nhau.

Nếu người nhỏ tuổi khi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lớn tuổi mà không dùng kính ngữ thì được coi là vô lễ, trong khi người lớn thì có thể dùng câu từ bình thường khi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nhỏ tuổi hơn. Việc học tiếng hàn, học cách dùng kính ngữ trong tiếng hàn của những bạn đến Hàn quốc làm việc và sinh sống quả là đều không dễ nên nhiều bạn trẻ khi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lớn tuổi bên này không dùng kính ngữ đi nữa thì vẫn được thông cảm vì lý do "ngôn từ còn chưa vững" những các bạn sẽ cảm thấy khó chịu đúng không.

Ngoài ra ở hàn quốc khi những người nhỏ tuổi lắng nghe lời khuyên từ những người lớn tuổi thì việc nhìn thẳng vào mắt của người lớn tuổi được coi là lễ phép và có ý tứ. Đặc biệt trong trường hợp có sự chênh lệch về độ tuổi giữa 2 người thì việc nhìn thẳng vào mắt người lớn tuổi có thể bị hiểu nhầm là trêu chọc hoặc là phản kháng.

Việc gọi tên người lớn tuổi cũng là hành động vô lễ. Ở Hàn Quốc, nếu không phải là bạn bè hoặc người ít tuổi thì phải cẩn thận, và trong trường hợp gặp mặt tại một nơi chính thức, việc gọi tên của một ai đó bằng họ

của người đó được coi là phép lịch sự.

Khi đưa và nhận đồ vật từ người lớn tuổi phải nhận hoặc đưa bằng cả hai tay. Dù không phải là người lớn tuổi thì ở Hàn Quốc việc đưa hoặc nhận đồ vật bằng một tay có thể được coi là vô lễ. Khi chào hỏi người lớn tuổi thì việc cúi đầu va chào được coi là hành động lễ phép.

#Phép lịch sự phải tuân thủ ở nơi công cộng

Ở Hàn Quốc có những lời hứa phải tuân thủ trên đường phố hoặc nơi công cộng. Việc nói chuyện quá lớn hoặc là không đứng xếp hàng ở những nơi công cộng đồng người được coi là không có ý tứ.

Ở nơi công cộng, nên điện thoại di động ở chế độ lịch sự và những người nói chuyện điện thoại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dài trên tàu điện ngầm, xe buýt hoặc nhà vệ sinh công cộng được coi là một hành động không lịch sự. Việc nói chuyện lớn trong không gian có nhiều người sử dụng như các cơ quan công cộng hoặc các cơ sở văn hóa nghệ thuật được coi là hành động vô lễ.

Khi đến các nơi như nhà hàng, sân khấu biểu diễn, tàu điện ngầm, những nơi có nhiều người đang xếp hàng thì phải đi theo thứ tự. Việc không giữ đúng hàng ngũ được coi là hành động sai trái phá vỡ lời hứa

#Đeo khẩu trang, hành động quan trọng ở Hàn Quốc

Đạo này việc đeo khẩu trang đã trở thành một hành động quan trọng cần phải tuân thủ ở Hàn Quốc, nơi đã có nhiều thay đổi do Corona 19.

Hiện nay bắt buộc phải đeo khẩu trang ở các cơ sở công cộng như văn phòng công cộng, tàu điện ngầm, xe buýt, quán cà phê và nhà hàng, vì vậy nếu không đeo khẩu trang thì không thể vào được và phải nộp phạt. Cũng có trường hợp sử dụng khăn quàng cổ hoặc khăn tay để chặn miệng, nhưng điều này cũng không được công nhận là có thể thay thế khẩu trang.

Ở Hàn Quốc, nếu không đeo khẩu trang thì sẽ bị chỉ

trích vì hành động có thể gây hại cho sức khỏe của bản thân cũng như những người khác.

#Đừng vứt rác bừa bãi ở bất cứ đâu

Ở Hàn Quốc phải phân loại rác thải. Phải sử dụng phong bì rác quy định để vứt vào ngày quy định và có thể bị phạt tiền nếu bỏ vào túi nhựa thông thường.

Đạo này ở tỉnh Gyeonggi đang có chương trình dạy phương pháp phân loại rác bằng nhiều ngôn ngữ khác nhau và bạn có thể học cách phân loại rác thông nhóm cộng đồng quốc gia xuất thân của các bạn hoặ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Bạn cũng nên tránh việc vứt khăn giấy ở bất cứ đâu vì bạn không nhìn thấy thùng rác trên đường. Bạn phải để trong túi hoặc túi xách và nếu thấy thùng rác thì bạn có thể vứt vào đó..

#Những nghi thức nhỏ nhặt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nhưng cần phải ghi nhớ

Ở Hàn Quốc, khi được mời tới nhà chơi, nhất định phải cởi giày ra trước khi vào nhà. Hành động không cởi giày khi vào nhà được gọi là hành động vô lễ khi bước vào không gian nhà của người Hàn, nơi mà không gian sinh hoạt và không gian xã hội được phân chia rõ ràng. Việc dùng ngón tay chỉ vào người khác cũng là một hành động cần phải tránh. Trong trường hợp chỉ ngón tay vào đối phương, dù là hành động không có ý đồ gì đặc biệt nhưng ở Hàn Quốc có thể thấy là hành động vô lễ.

Ngoài ra, vào mùa hè, có trường hợp những người nam ngoại quốc cởi áo khoác và sinh hoạt tại nhà của họ, nếu ở trong nhà thì không sao. Tuy nhiên, các bạn phải mặc quần áo ngay cả khi bạn chỉ đi ra cửa để đổ rác. Việc cởi áo khoác và sinh hoạt được coi là một hành động vô lễ. Đặc biệt, phụ nữ Hàn Quốc nghĩ rằng người cởi áo khoác là một người đáng sợ và nên tránh tiếp xúc. Cũng có nhiều người suy nghĩ là những người như vậy rất đáng ghét. Hành động xì mũi hoặc ợ trong bữa ăn cũng được coi là thất lễ. <한글 기사 36면>

首都圈社会防疫距离实行第2阶段。外国居民也将遵守防疫守则。

从11月24日开始,京畿道等首都圈社会防疫距离提升到第2阶段。这是自本月19日起“社会防疫距离”提升到第1.5阶段后,时隔5天采取的措施,因此,目前在韩国的“新冠病毒”扩散势头非同寻常。

提高社会防疫距离是防止感染进一步扩散的防疫措施,因此,目前看来包括外国居民在内的所有市民在日常生活中必须承受社会、经济损失。随着“社会性距离”第2阶段的上升,记者具体观察了在一些方面发生了变化。

从社会防疫距离第2阶段开始,要记住晚上9时的标准。在饭店就餐只能到晚上9点为止,以后只能进行打包和外卖。进餐时▲保持1米距离▲让座位之间空出一个座位▲设置隔板或者遮挡幕的等防疫规则。KTV和室内站立式公演场、室内体育设施也要在晚上9时以后关门。

咖啡店全面禁止在卖场内进餐,营业时间内只允许包装和配送。俱乐部等5种娱乐设施完全禁止聚会,因此无法营业。被指定为普通管理设施的健身房和室内体育设施将运营到晚上9时。在包括大众交通在内的所有室内场所,都必须戴上口罩,观看职业棒球韩国循环赛等体育比赛时,也只允许10%的观众观看。

对韩国人来说,非常重要的红白喜事也会受到影响。结婚仪式场和葬礼仪式场的出席人数应限制在100人以下。在电影院和公演场必须在座位与座位之间空一个座位,而且不能吃东西。网吧也适用同样的标准,但有隔板的例外。

学院也不能吃食物,限制每8㎡空间只能有一人等方式保持防疫距离的方式进行强化。

政府为激活消费而准备的外出就餐、住宿、旅游优惠券

发放事业也从24日开始被中断。已经预约的情况下可以使用,但是即使发放了优惠券,如果没有预约,就不能使用。但是,农畜产品打折将按计划进行。

除高中以外的幼儿园和小学的密度也将从目前的三分之二强化为三分之一。

但从高考前一周的11月26日开始,全国高中和作为考场使用的学校将转换为网络远程授课。

高考是高中3年级学生为了上大学而进行的考试,在大学入学具有非常重要的意义的韩国,被认为是非常重要的一天。

首都圈社会防疫距离第2阶段将持续到12月7日,为期两周。防疫当局将根据后期感染情况进行讨论及调整防疫阶段。<한글 기사 1면>

경기도 사회주택이 해결책 될까

한국의 부동산 위기 해소할 경기도 사회주택

최근 한국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관심과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주택은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사회주택, 임대주택 한계 극복 위한 대안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다.

■ “실거주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하고 비거주 주택은 강력 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 투기, 아파트 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 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흑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 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어 “비수요 주택(투기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해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베트남어 10면)

송하성 기자

재정 어려운 경기글로벌센터에 큰 도움

(주)에스코넥 박순관 회장, 은밀한 이주민 돕기



수소 관련 기술을 보유해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주)에스코넥(대표이사 회장 박순관)이 수년째 사회복지 이주민들을 돕고 있어 시선을 끈다.(사진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한 이주민을 살피는 송인선 대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는 최근 박순관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매월 50만 원의 후원금으로 이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선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속에서 내외국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스코넥 박순관 회장이 매달 조용한 기부를 해주고 있어서 큰 힘이 된다”며 “박 회장과 같은 분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서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고 글로벌 세계화도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송인선 대표 지인들의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긴급의료 및 재난 상황의 이주민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적자가 나지만 공공으

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송인선 대표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이민자 긴급의료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에 사용된다”며 “이민자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생활현장 구석구석에서 돌보며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글로벌센터는 사무실 임대료 132만원, 전기세 및 수도세 40만원, 인터넷 통신비 및 전화 10만원, 임직원 점심 식대 35만원, 직원 인건비 450만원(송인선 대표 무보수) 등으로 매월 667만원이 고정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후원 모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송인선 대표는 “이민자들의 긴급 사안에 따른 지정목적 기부금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주민들을 실제로 돕는 행정과 현장실무자들의 활동 인건비 그리고 기관 운영에 관한 재정후원도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에스코넥은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해 음식물과 축산·분뇨, 음·폐수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으로 수소와 카본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송하성 기자

이민법 전문 변호사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신분상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010.2782.8579

송하성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결혼이주여성, 사법 통번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다"

오산건가다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통번역사 양성과정 운영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 12부터 11월 24일까지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사업으로 통번역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실제 통번역에 필요한 사례, 대응방법 및 실전 연습을 하여 사법 통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가정 내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진행했다.

대상은 한국어능력 중급수준 이상의 취업희망 결혼이민자로 참가자들은 한국어 강독 및 상황별 (무역회사, 어린이집, 경찰서 등) 필요한 번역 연습과 통역 연습, 통역을 위한 법률 용어 이해 및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 이번 교육은 사법 통번역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통번역사 양성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제공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긍심 및 취업 의지를 강화해 취업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교육문화체험으로 추억도 쌓고 가족관계도 향상

오산건가다가, ‘천문과 나들이-우리 같이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진행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교육문화체험 활동 ‘천문과 나들이-우리 같이 별 보러 가지 않을래?’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취약, 위기가족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 필요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동안 어린이전문과에서 이뤄졌으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구과학영역 체험 활동이 이뤄졌다. 대상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신청을 받아 11월 11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 동안 교육과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참여 가족은 별자리 및 기초용어 이론 수업 및 우주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별 관측 수업 등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코로나19 1단계 기간 동안 진행된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평소 과학체험을 경험하기 어려운 취약·위기가족을 위해 7세 ~ 학령기 아동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주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교실 형태의 이론수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으며, 주말원경과 보조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체험활동도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7가정 중 6가정이 자차를 통해 이동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 실내 소독 및 체온측정, 손 소독을 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간단히 저녁 식사를 했을 대상자를 위해 후원물품(교촌치킨)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종료 후 가족이 함께 즐거운 야식 시간을 즐기며 프로그램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영의 기자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오산시 우수지자체 선정**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여성가족부와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2020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센터 SOC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족센터 공간구성의 적절성, 운영계획 타당성, 안전계획 등을 심사했다.

오산시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오산시 청학로 98 부지에 생활SOC복합화 시설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가족센터’는 남촌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입주해 1층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을 1-2층 복층구조로 설계, 외부 공간과 연결해 외부활동과 연계성을 높여 공간구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족센터는 대지면적 1만6천790㎡, 지상 1층~3층 규모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다문화 자녀 언어교실 △공동육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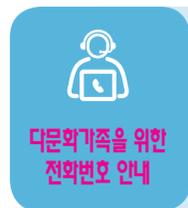
김영의 기자

온라인 LIVE 교육(ZOOM)

엄마랑 나랑 “요리쿡 조리쿡”

| | |
|------|--|
| 대상 | 12명(심미 16명) 인근 거주 5~7세 자녀와 부모님 57명 |
| 일시 | 12/10(목), 12/17(목) 16시~17시 |
| 장소 | 각 가정 (온라인 LIVE 교육 - Zoom) |
| 신청 | 네이버 폼 http://naver.me/GNK117GM ※ 문의사항을 해결하고 우주 소독을 위하여 10일 안간 주의 요청 접수(안내선착순), 마감 당일 마감됩니다. ※ 거주지 확인을 위해 등본 제출, 심사 후 12/7(월)부터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 11/30(월)~12/4(금) |
| 세부내용 | 오래오케이크 만들기 외 잔 문의 070-4336-1400 |
| 참가비 | 무료 (재료 배부 및 세제비용은 생략 후 개별 안내) ※ 참가 내용은 코로나-19 및 방역 차질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약계층만 * 서민안 내내 배움



오산시청 031-8036-8036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나눔과비움 070-8891-863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031-371-0600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24-980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김장 담가 오산 다문화가정에 전달

오산건가다가, 국제사이버대와 김장 행사 가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웰빙귀농조경학과와 '제5회 김장. 사랑. 김치 나눔' 행사를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제5회 김장. 사랑. 김치 나눔' 행사에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5명과 결혼이민자 6명이 참석해 행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웰빙 귀농조경학과 의 텃밭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로 김장 담그기를 진행하였으며, 담근 김치는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등 김장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김장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이버대학 웰빙귀농조경학과는 국내 유일의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며 이론과 현장체험을 병행학습하고 있다. 또한 텃밭, 조경, 과수, 아보카도, 마늘, 양봉 등 다양한 전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전원주택 서로 지어주기, 행복한 노후의 친구 만들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사이버대학, 총학생회, 북부학우회, 중부학우회가 주최했다.

한편 지역사회에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가족"이 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в Кёнгидо, снижение бремени расходов на жилье, повышение теплоты в обществе, Содействие предложению новых типов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озволяющего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торое может въехать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ает со здавать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недви жимости. Это означает то, что не хватка жилья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 а. В частности, в мегаполисах уси ливается кризис чонсэ(аренда жи лья под крупную сумму), и быстро растет число «чонсэ беженцев», к оторые переезжают с одного мес та на другое,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о существить мечту о приобретени и дома.

Кроме того, у некоторых людей возникают жилищные проблемы из-за изменения состава семьи. К оличе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с одним ребенком и семь и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увеличилос 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уществующим и домохозяйствами из четырех че ловек.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привлека ет внимание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а пр еодолению ограничений существ ующих систем жилищной поддер жки, таких как быстрое увеличени е числа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домохо зяйст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енд ного жилья. Кёнги-до решило рас ширить спектр базового жилья до социальн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уязви м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получить с табильное жилье.

■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типа Кенг идо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 еще одна форма базового жилья. Базовое жилье в Кёнгидо - это новая конц ептальная модель жилья, котор ая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 права аренд атора на основании дохода или и мущества и позволяет любому не имеющему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ье п латить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ниже рын очной цены за хорошо расположе нную квартиру, например в район е около станции метро, и жить в т 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 30 лет или более.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типа Кёнгид о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тем, что земля принадлежит обществу, а здания принадлежат субъектам социаль ной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не пресл едуют цель получения прибыли, т аким как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корпор ации, корпор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кооперативы, социаль 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Хотя есть некоторые критическ ие замечани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существующ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усиливает дискр иминацию, определяя арендатор ов на основе дохода,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Кёнгидо обеспечивает ста бильную жилищную среду для уя звим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 е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в проекте г 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Менее 60% жилья будет предо ставлено не имеющим собственн ого жилья в качестве общего пре дложения, и более 40% будет спе циаль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в помощ ь семьям, таким как семьи с низк им доходом, инвалиды, проживаю щим одним, пожилые люди. Эскс люзивная площадь составляет м енее 60㎡ на одно домохозя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ан имает 10% или более эксклюзивн ой площади, 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пред еляется мнением арендаторов. А ренда не высокая, около 80% от р ыночной цены.

Первый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Корпорацией жилищ 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рпорация GH) как «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кооперативно го типа по аренде земли». Когда с убъект со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пр едлагает желаемую землю, Кёнги до покупает ее...〈한글 기사 13면〉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도 국민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가 11/24부터 2단계로 격 상됨에 따라 부득이 프로그램이 내용 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상과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프 로그램 제공방법 또한 단체 활동이 아닌 가 족별 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 용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 며, 신청자의 과오로 인한 경우 신청에 제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사랑에(愛) 회전문마

■ 배부일정 : 12/14(월)~12/16(수) 9시~18시 / 3일 간 ※ 기간 내 미 수령 시 대기자 배부

■ 배부장소 : 본 센터(성호대로 83)

■ 대 상 :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40명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0명 / 다문화가정 20명 / 맞벌이가정 20명 / 총100명

■ 내 용 : 가족나들이를 위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배부
※단, 양도 불가하며 1년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1/17(화)~12/4(금)

■ 신청방법 : 네이버폼 <http://naver.me/lgtjyoaN>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참조 <https://osan.familynet.or.kr/>
※대상별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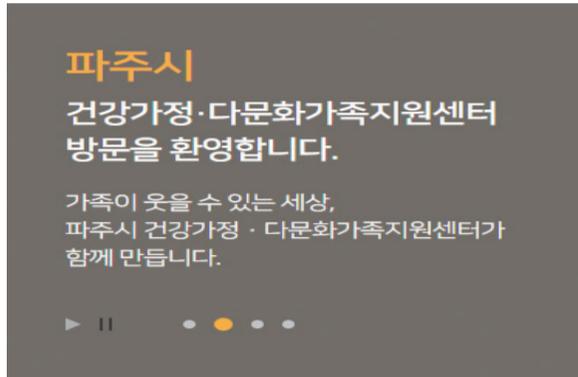
■ 선정기준 : 제출 서류 심사 후 12/7(월) 이후 개별 통보

■ 문 의 : 070-4336-1400

※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접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이용가능 합니다.
 ※ 네이버폼으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권 배부 후 삭제처리 됩니다. (단, 방문접수로 제 출하신 서류를 반환 요청 시, 센터를 방문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반환요청이 없는 서류는 이용권 배부 후 파쇄 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한국어 실력 '쑥쑥'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17개 한국어반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한국어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웹엑스를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단계별(0~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영주권 및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램 9개 반과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지원하는 여가부 즐거운한국어1, 즐거운한국어2, 자녀학습지도, 토익, 글쓰기말하기 과정 8개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교육 교육생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열심히 강의에 임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수업의 종강식은 12월 13일까지 반별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성취도 평가와 만족도 조사, 소감을 나눈다. 또 참여한 교육생에게 이수증을 전달하며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축하와 위로를 전하는 자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추후 방역 키트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연말 선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센터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국어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수업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경기육아나눔터 12월 프로그램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 경기육아나눔터 12월 상시프로그램으로 베이킹 활동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기'를 진행한다.

베이킹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관계 향상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과자집 만들기는 지난달 사전 접수를 한 1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육아나눔터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키트는 경기육아나눔터에서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임신출산지원 사업 일환으로 플라워화병꽃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부모와 임신출산을 준비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이다. 30가족을 선정해 화병꽃이 키트를 전달하면 가족이 함께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 후 사진과 소감을 보내면 된다. 문의 031-949-91640 김영의 기자

Основные правила этикета, которые иностранцы должны знать, живя в Корее.

Когда уезжают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часто из-за культурных различий возникают недопонимания. В Корее есть много вещей, с которыми нужно быть осторожными: речь мен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собеседников, по-прежнему встречаются манеры влияния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торым нужно следовать.

Поскольку непреднамеренные действия или слова могут быть фактором, вызывающим недопо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знать этикет (основы этикета),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жизни в Корее.

Будьте внимательны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Корея ценит «возраст». Несмотря на небольшие измен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манеры и слова друг к другу по-прежнему различаются.

Считается грубым, если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не использует почтительные сло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ожилому человеку, а пожилые люди могут легко общаться на ""т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более "низк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нелегко обучиться и употребить уважительную форму обращения,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приехали из другой страны и разговариваете с пожилым человеком на ""ты"", то это иногда понимается как «из-за плохой речи», но всё же может остаться неприятный осадок.

Кроме того,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что когда пожилой человек отчитывает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а тот смотрит ему прямо в глаза - это считается невежеством. В частности, когда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велика, иногда считается, что смотреть прямо в глаза пож

илому человеку - это выражение резкости или неопорности.

Также считается грубостью называть имя старшего по возрасту. В Корее, если вы не являетесь другом или молодым человеком, будьте внимательны, и вежливо будет прикрепить звание (титул) к фамилии собеседника при встрече в официальном месте.

При передачи предметов старшим по возрасту надо подавать обеими руками. Даже если не пожилой человек,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грубым обмениваться предметами одной рукой. Во время приветствия со старшим по возрасту вежливо будет склонить голову.

Соблюдение этикета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ли на улице

В Корее есть обещания данные друг другу,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ять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на улице. Считается невежливым громк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ли не стоять в очереди с другими в ожидани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в бесшумном режиме и длительной громкий разговор в метро, автобусе 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м туалете является невежливым поведением. Громк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других местах, посещающих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людей, также считается невежливым.

При посещении ресторанов (общепитов), концер

тных залов или метро, если в ожидании есть уже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вы должны встать в очередь. Не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роступок, нарушающий данное обеща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Ношение маски, важный этикет в Коре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з-за обстановки, связанной с Covid-19, ношение маски стало важным этикетом,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в Корее.

Носить маску обязательно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таких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метро, автобусы), а так же в кафе, ресторанах и т. Д. Если вы не наденете маску, вы не сможете войти, и вам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штраф.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в случаи прикрытия рта шарфом или носовым платком, не распознается как маска.

В Корее не ношение маски подвергаться критике и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нанести вред не только вашему здоровью, но также и другим людям.

Не выбрасывать мусор в любом месте!

Корея должна соблюдать сортировку мусора. Необходимо утилизировать в указанный день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мусорного пакета,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определенный объем, и в случае выбрасывания в обычном пластиковом пакете, может быть наложен штраф.

〈한글 기사 36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일본 자매도시와 온라인으로 꾸준한 교류 이어가요”

파주시와 일본 하다노시 우호협회 간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상호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일본의 자매도시인 하다노시, 사세보시와 온라인을 통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1월 20일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사세보시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 화상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화상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호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민간교류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우호협회 김경선 회장과 김성희 부회장은 하다노시 우호협회 후쿠모리 회장과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

해 그간의 안부를 전하고 양 시의 코로나19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파주시 우호협회는 2017년에 창립된 민간협회(회원 40명)로 일본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를 시민이 주도해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 민간단체는 자체 예산을 통해 양 시 축제 때 민간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예정했던 하다노시 방문을 코로나19로 추진하지는 못했으나 하다노시 우호협회 회원들과는 SNS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등 꾸준히 소통해 왔다.

하다노시 또한 ㄱ요코하마 한국총영사의 환영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다노

우호협회는 하다노시와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파주 학생의 일본 유학생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하다노 시민 교류회에 초대하는 등 민간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김경선 파주시 우호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양 시의 시민들의 왕래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평온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내년에는 꼭 하다노시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해외 자매, 우호도시와 온라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다노시는 도쿄에서 60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있는 친환경 도시다. 하다노(秦野)라는 지명에는 ‘일본 고분시대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진씨(秦氏)의 자손이 모여 살았다’는 설이 있어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도시다.

파주시는 하다노시와 2005년 10월에 자매도시를 맺고, 청소년, 스포츠, 문화, 행정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파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파주시는 지난 11월 23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김희광 부시장 주재로 2020년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2021년 탈북민 지원 방안 논의하는 등 기관별 의견을 청취했다.

김희광 파주시 부시장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에는 11월 현재 37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중이다. 남자가 91명, 여자가 281명으로 전체 75.5%를 차지하고 40~50대가 208명(55.9%)으로 가장 많다.

파주시는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2020행복한가족프로그램(중장년기부부지원)

피부에 좋은 재료 모아모아 입욕제 만들기♥

입욕제만들기 활동을 통해 우리부부 더 행복해져볼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행복한가정 중장년기부부지원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입욕제 만들기활동을 통해 우리 부부 더 행복해져 보아요~



| 접수기간 (선착순마감) | 프로그램 | 비고 |
|---|---------|--|
| 11월26(목)~12월03일(목) [10가족] | 입욕제 만들기 | 1. 키트 수령 후 가정에서 즐겁게 활동 하는 사진을 찍는다. 2. 담당자가 발송하는 링크에 키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진 2장과 설문지를 체크하여 제출하기를 누른다. *부부활동 프로그램으로 사진에는 부부가 함께 체험하는 사진이 나와야하며, 12월6일(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대 상 : 파주시 거주 40세 이상, 결혼10년차 이상 10가정(선착순마감) 키트수령장소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1층(파주시 중앙로229) 키 트 수 령 일: 12월 4일(금) 10:00~18:00 시간내 미수령시 자동취소 됨 접수 및 문의 : 031-949-9164 | | |
|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2020가족관계/부모역할지원/임신출산지원프로그램

플라워화병꽃이

예비부모, 임신출산을 준비 중이신 분들 모이세요~
행복한 가정의 평생친구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임산부님들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인 요즘~원예활동으로 힐링해보아요~

| 접수기간 (선착순마감) | 프로그램 | 비고 |
|------------------------------|--------------------|----|
| 11월30일(월)~12월4일(금) [30가족] | 플라워 화병꽃이 만들기 | |

대 상 : 파주 관내 임신 및 출산을 준비중인 30가정
수령장소 : 파주시 중앙로229(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12/04(금), 12/07(월), 12/08(화), 중 수령 가능 날짜 선택하여 수령.

활동방법

-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한 후 화병꽃이 만들기 세트를 수령한다.
 - 가족과 함께(부부주주~^^) 예쁜 화병꽃이 만들기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는다.
 - 담당자가 모바일로 발송한 네이버폼 링크에 간략한 소감과 활동사진을 올린다.
 -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한다. (만족도조사, 사진 미제출시 키트비용부과됨)
- 필수사항: 사진에는 부부 모두 나와야 하며 링크 받은 후 2일 이내 보내야함
접수 및 문의 : 031-949-916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빠의 돌봄참여로 자녀와의 소통 배우고 친밀감 키워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 역할 지원사업 토요일봄 플대디스쿨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지난 11월 7일 관내 거주 아빠와 자녀 10가족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지원사업 '토요일봄 플대디스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역할 지원사업 '토요일봄 플대디스쿨'은 아빠에게 돌봄 참여 기회 제공 및 자녀와의 소통 장려를 통해 아빠-자녀 간 친밀감 형성을 돕고 가족 내 아빠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토요일봄 플대디스쿨'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목공체험의 일환으로 기 관차 수납 세트 만들기 활동이 제공되었

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원격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와 자녀는 목공체험을 하는 2시간 동안 못질, 사포질, 물감칠을 함께하며 서로 대화하고 접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봄 플대디스쿨 참여자 한 참가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행복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성희 센터장은 "토요일봄 플대디스쿨'을 통해 아버지의 돌봄 참여 기회를 확대해 아버지-자녀 간 관계를 증진하

고,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토요일봄 플대디스쿨'의 플대디란 플레이(Play)와 대디(Daddy)의 합성어로 '아빠와 함께 즐기는'의 뜻을 담고 있다. '토요일봄 플대디스쿨'은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공체험, 요리교실, 로봇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10회 정도 계획되어 있으며, 군포시 관내 거주 아빠와 자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모두 존중받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중기 제품, 온라인 주문 받아 중국 전역 배달

군포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을 통한 중국 내 판매를 위해 중국 린이시 보세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포시는 11월 16일부터 린이시 전자상거래 보세구역에 군포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보내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 복합물류센터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군포시 10개 기업 51개 제품에 대한 첫 번째 출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중국 최대규모의 모바일 '위챗'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보세구역의 제품들을 주문자에게 배달할 수 있게 됐으며, 배달 소요기간은 2일~3일이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1급과 2급 도시에만 허용했으나, 올해 1월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졌다. 한대희 군포시장장은 "군포 중소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社會住宅、住居費負擔は減らし、共同體意識育てる

長期居住可能、誰でも入居可能な新しいタイプの賃貸住宅供給推進

政府が持続的な不動産対策を打ち出している。それだけ住宅難が深刻だというだ。特に首都圏は傳賃難が深刻で、マイホームの夢をかなえることはもちろん、引越しを繰り返さなくてはならない '傳賃難民' が急増している。これに加えて、新たな住居問題を抱えている人たちがいる。4人基準の既存世帯から1世帯子ども一人の3人世帯が増加したかと思うと、今では単身世帯がひとつの世帯タイプとして増えつつある。単身世帯の急速な増加と公共賃貸住宅など、既存の住居支援体系の限界を克服する代案として、'社會住宅' が注目されている。京畿道は基本住宅の範囲を社會住宅として擴張し、脆弱階層の住居安定をめざす。

■京畿道型社會住宅

社會住宅は基本住宅のまた違ったタイプだ。京畿道基本住宅は所得や資産などにより入居資格を制限せず、無住宅者ならば誰でも駅に近い場所などのアパートを、低廉な賃貸料を支払い30年以上長期居住することができる。新しい概念の住居モデルだ。

京畿道型社會住宅は土地は公共が所有するが、建築物は非営利法人、公益法人、協同組合、社會的企

業、マウル(村-마을)企業など、營利を追求しない社會的經濟主體が所有するのが特徴だ。

既存公共賃貸住宅が所得基準で入居者を決定し差別を煽ってきたという指摘がある反面、京畿道型社會住宅は、公共賃貸住宅対象に含まれていない住居脆弱階層に安定的住居環境を提供するものだ。

住宅の60%以下は一般供給で無住宅者を対象に供給し、低所得層、障がい者、単身世帯、高齢者など、多様な政策対象に40%以上を特別供給する予定だ。専用面積は世帯当たり60㎡以下、共同體空間を専用面積の10%以上確保し、共同體空間の用途は入居者の意見によって決定される。賃貸料は周邊の時勢の80%程度だ。

示範事業は京畿住宅都市公社(GH公社)が'土地賃貸部協同組合型社會住宅'として進める。社會的經濟主體が希望する土地を提案すると、京畿道が買入れ所有權の確保後、30年以上低廉に賃貸するという方式だ。賃貸敷地には社會的經濟主體が住宅を建設、社會的協同組合を通じて管理する組合員に住宅賃貸を行う。

GH公社は共同體プログラム運営が可能な最少單位

の約50世帯規模の社會住宅供給を推進する計画で、事業者發掘と入居希望者・供給希望者を把握するための事前調査を経て、民間提案事業推進方式で公募を進めている。

今年の8月に入居を完了した南揚州ウイスティ・ピョルネ・アパートは、京畿道内の代表的な社會住宅だ。開發段階から協同組合を通じた持分出資を経て建築費を節減し、資本利益を共同體に歸屬させた。

その結果、月所得200万ウォンでも住居費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管理費と生活費節減に成功した。また住民たちは義務賃貸期間後も持続可能な居住可能性を確保した。

入居者たちがウイスティ・ピョルネ・アパートを選んだ理由は ▲最低8年間長期居住可能 ▲アパートタイプの共同體が魅力的 ▲多様な住居サービス提供 ▲請約資格制限なしで誰でも入居可能 ▲年5%以内で賃貸料上昇制限 ▲位置が良いからなどだ。

イ・ジェミョン道知事が先導する京畿道型社會住宅に対して、韓国人だけではなく外國人住民の關心も高まっている。〈한글 기사 13면〉

가정보육 어린이도 '건강과일' 공급

11일까지 신청, 1인당 4만원 지역화폐



군포시는 11월 25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에 제공해온 '어린이 건강과일'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까지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7천여만원씩 투입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제철과일을 경기도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양육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추가된 지원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보육 어린이 가정으로, 어린이 1인당 40,500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https://voucher.konacard.co.kr/4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가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까지이며, 지역화폐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급되고 내년 2월 15일까지 군포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내 가정보육어린이들까지 건강과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과일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아이들의 식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자녀 등 소수자 배려해야"

정윤경 위원장, 약자.취약계층 배려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는 지난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구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 나가며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요구했다.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클러스터, 기초학력책임제, 문화예술교육, 유아교육, 학교폭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고교학점제,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일선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경기교육

의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확대, 교사역량강화, 효율적인 평가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의 유아 학비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내 6개의 지자체가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 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예술꿈사다리 사업, 위기학생지원, 자살예방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 학교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3일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및 단독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에 그림책박물관공원 들어선다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2022년 2월 개관 목표



군포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그림책박물관공원 건립이 본격화됐다. 군포시는 11월 26일 시청 인근 한얼근린공원에서 그림책박물관공원 기공식을 가졌다.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 기능이 어우러진 '라키비움(larchiveum)'을 표방하는 그림책박물관공원은 그림책 전시와 독서, 교육공간,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림책박물관공원은 174억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시비 74억원)을 투입해 한얼근린공원 안에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3,800㎡ 규모로 오는 2022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층은 자료 및 독서공간, 전시공간, 수장고, 공연장으로 이뤄지며, 지상층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와 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은 "그림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라며, "시민이 그림책 독자이자 관람객으로, 때로는 그림책을 만드는 문화주체가 돼서 함께 읽고 공유하고 즐기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건립사업은 지난 2017년 베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대상을 받아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으며, 100억원이 건립에 투입된다.

김영의 기자

즐거로운 가족생활 . 우수이용자 수기공모전

- 공모주제: 본 센터 가족 프로그램 참여수기
- 공모기간: 2020.11.2.~12.6.
- 참가대상: 본센터를 이용한 군포시민 누구나
- 공모내용: 가족프로그램 최다 참여자 및 이용수기 (2020. 3. ~ 2020.11. 본 센터에서 진행 된 프로그램 참여 회기 기준)
- 심사기준

| 구분 | 기준 | 점수 |
|-----------------------------------|-----------------|----|
| 교육분야 (부모교육, 부모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등) | 15회 이상 참여 | 20 |
| | 10회 이상 참여 | 15 |
| | 5회 이상 참여 | 10 |
| | 5회 미만 참여 | 5 |
| 상당분야 | 개인상당 참여 | 10 |
| | 집단상당 참여 | 10 |
| 문화분야 | 20회 이상 참여 | 20 |
| | 15회 이상 참여 | 15 |
| | 10회 이상 참여 | 10 |
| 이용수기 | 발표가능 자 | 20 |
| | 가족 구성원 2인 이상 참여 | 20 |

- 시상내역

| 구분 | 인원 | 상금 |
|------|----|-----------|
| 최우수상 | 1명 | 상품권(50만원) |
| 우수상 | 2명 | 상품권(30만원) |
| 장려상 | 3명 | 상품권(10만원) |
| 참가자 | 모두 | 기념품 |

- 결과발표: 2020. 12. 11(금) 예정
- 시상식: 2020. 12. 19(토) 온라인 진행 예정
- 제출방법: -이메일접수(gunpo@familynet.or.kr)
- 작성서식: -우수이용자 신청서 1부(서식 1) -충빙자료 첨부(서식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서식 3)

☎문의: 031) 392-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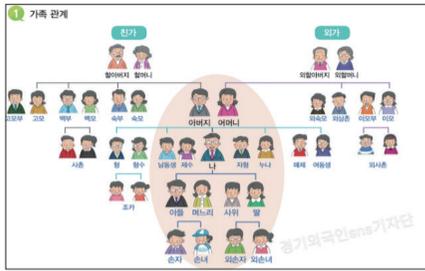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http://gunpo.familynet.or.kr>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Удивительная Корея. Семейные отношения 신기한 한국의 가족관계

호칭에서 드러나는 한국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 ...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해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брачного мигранта, естествен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знаешь культуру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Корее, причем, на собственной практике. Родители-дети, муж-жена, свекровь-сноха...

Казалось бы, чем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классическа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от нашей, иностранной? Попробую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наблюдениями на этот счет.

1. В Корее также есть разделение на роды- поны **본**, которая знакома и нам,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рейцам как по-прежнему. Даже если абсолютно незнакомые люди, но поны одинаковый -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дна родословная, поэтому брак и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дного поны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е приветствуются, хотя законом не запрещены.

2. Корейский патриархат.

Во главе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стоит мужчина. Со времен Чосон положение женщины в обществе и в семье сильно упал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эти предрассудки ушли в прошлое, д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и девочки 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считались нежеланными и каждый родитель был счастлив иметь сыновей. Сегод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меняется, растет роль и активность женщин в обществе, но, конечно, изменить 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и культуру все равно очень сложно. Поэтому чаще всего активная роль женщины в обществе неохотно принимается со стороны как супруга, так и свекрови. Во многи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ьях этот вопрос стоит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Взять например, к сожалению популярную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тему разводов в семьях. Если для нас,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дети после развода, как правило, остаются с матерью, а мужчина отцов

ские права должен доказать в суде, то в Корее все с точностью до наоборот. Многие замужние иностранки знают не понаслышке, что в случае развода суд принимает априори сторону мужчины, а женщине свои материн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нужно всегда доказывать. Поэ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рост и разнообразие центров помощи женщинам,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служб, женщина 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на мой взгляд, все еще слабое звено. Особенно сложно принять культуру патриархата нам, русскоязычным мигрантам, более привыкшим к равенству полов.

3. Обращ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специальные слова-обращения **호칭**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мени.

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не принято, как у нас,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обращаться по имени между супругами, а также к старшим по возрасту (дедушки/бабушки, дяди/тети, братья/сестры). Для этого принят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слова-обращения. Это немног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наших "солнышко мое" и "зайчик мой".

Знаете, поначалу это казалось так удобно, потому что запомнить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сверхсложно, да к тому же из-за неправи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ношения можно обидеть родственника. Называешь всех просто тетя-дядя, брат-сестра и все, ты умница. Но со временем понимаешь, что ты никого не знаешь, кроме супруга и детей. Как-то младшая золовка отправила мне денежный подарок на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а я, увидев незнакомое имя, долго думала, от кого могли прийти деньги. Называя золовку "агаци" и не используя имени, конечно, имени ее запомнить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можно, для нас иностранцев может быть дико, если супруги никогда не обращаются друг к другу по имени, даже при посторонних, но для Кореи - это обычное явление и часть культуры. Поэтому брачным мигранта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нятые взаимнообращения: дорогой/ая, любимый/ая, но никак

не имея. Когда в семье появляются дети, обращения друг к другу между супругами могут измениться: например, если ребенка зовут Юна, супруги могут обращаться друг к другу "папа/мама Юны". Обращ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мени ребенка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а вот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обственных имен супругов - никогда.

Есть еще один интересный момент.

Если для нас норма, когда близкие друзья, хорошие знаком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друг к другу обращаются по имени/имени-отчеству, то в Корее другая норма: младшие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обращаться к старшим, добавляя к имени "брат"/"сестра", либо имя опуская совсем. Обращение к старшему по возрасту по имени, без слова-обращения,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не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это скорее даже оскорбление личности. Поэтому всегда при знакомств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рейцы интересуются о возрасте, чтобы знать, как потом обращаться при диалоге. К младшим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по имени, но к старшим только "брат/сестра", даже если вас не связывают никакие родственные узы.

4. Родительск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долг перед родителями.

В Корее принято отмечать 3 самые важные даты: это 1 год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вадьбу и юбилей в 60 лет. Родительской обязанностью считается сделать ребенку год и свадьбу, а со стороны детей - справиться родителям юби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финансового состояния семьи размах и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связанных с этими важными датами,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В Корее даже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страховые пакеты(накопительные вклады)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ля празднования этих важ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в остальном, на мой взгляд, заметных различий в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ях нет: извечный конфликт между свекровью и снохой, доверие и ревность - встречаются во всех семьях. К

ак бы ни различались наши культуры, любите и уважайте друг друга, берегите семьи, ведь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Узнавайте и уважайте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месте с репос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Еленой Ким.

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와서 당연히 한국 가족관계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자녀, 남편-아내, 시어머니-며느리 등등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외국 가족과 다소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씨족형태의 본으로 나뉘어져 있고, 러시아어권 고려인들도 '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도 불구하고 본이 똑같으면 하나의 혈통으로 여겨지므로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본끼리 결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1. 한국 가부장제

한국의 가정은 남자가 이끕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러한 편견은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국 가정에서는 딸을 원치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모든 부모는 아들을 얻으면 더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은 배우자와 시어머니 모두 마지못해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다문화가정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하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보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이혼 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남자가 법정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많은 외국인 여성은 이혼할 경우 법원이 남성의 편을 택하고 여성은 항상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상담 및 재활 서비스가 성장하고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정의 여성은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입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기본예절

쓰레기 분리수거 비롯해 공공장소와 거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 '마스크는 필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지켜야 할 예절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한국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 자칫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에티켓(기본예절)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 많은 사람에겐 주의하세요!

한국은 '나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점차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나이에 따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말이 다르고 호칭부터 달라진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여기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쉽게 반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 와서 존댓말을 배우고 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경우 나이 많은 이에게 반말해도 '말이 서툴러서'라고 이해되는 때도 있지만 이 역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한국인들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꾸중을 들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을 따지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도 종종 있다.

연장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다. 한국에서는 친구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닌 경우 조심해야 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남의 경우 상대의 성에 직함을 붙여주는 것이 예의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연장자에겐 두 손으로 주고받

아야 한다. 연장자가 아니어도 한국에서는 한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무례하게 생각될 수 있다. 인사를 할 때도 나이가 많은 경우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이다.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한국은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여럿이 기다리는 곳에서 줄을 서지 않을 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매너모드로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공중 화장실에서 큰소리로 장시간 통화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비친다.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

식당이나 공연장,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줄을 서 있다면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 줄서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서로의 약속을 깨는 잘못된 행동으로 본다.

#마스크 착용, 한국에서의 중요한 에티켓

요즘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로 달라진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에티켓이 됐다.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카페, 식당 등 모든 곳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스카프나 손수건 등을 이용해 입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여겨 비

난을 받는다.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마세요!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켜야 한다. 정해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정해진 날짜에 버려야 하며 일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는 경우 벌금까지 낼 수 있다. 요즘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언어로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출신 국가 공동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다고 휴지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도 피해야 한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담았다가 휴지통이 보이면 그곳에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 속 소소하지만 기억해야 할 에티켓

한국에서는 집에 초대받아 갈 때는 신발을 꼭 벗어야 한다. 생활 공간과 사회활동 공간을 분리하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실례다.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다.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 별다른 뜻 없이 한 행동이라도 한국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보이기 쉽다.

또한 여름에 남성 이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웃옷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문 앞에만 나가더라도 웃옷을 입어야 한다. 웃옷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비춰진다. 특히 한국인 여성들은 웃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피하게 된다.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식사 도중 코를 풀거나 트림을 하는 행동 등도 실례로 여긴다. <중국어 5면, 베트남어 26면, 러시아어 30면> 김영의 기자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수상했어요"

광명시 지자체 부문 단독 수상,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



광명시는 지난 11월 25일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에서 지자체 부문 단독 수상 영예를 차지했다.

기후변화센터는 한 해 동안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한 지자체, 기업, 학계, 개인 등을 선정해 2011부터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시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부문에서 서울시, 수원시, 강원도, 제주도, 대구시 등이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으며 지구의 날 기념 소등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찾아가는 기후변화 시민교육 등 시민 대상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과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광명시 기후의병 양성을 위해 민간단체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 촉진 등을 담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 발판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지역 내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 사업'을 추진해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절감했으며 9월에는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 옥상문화제'를 열어 시민과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소통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기후에너지센터를 수도권 최초로 설립했으며, 재생에너지 확장에 따르는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도 만들었다.

올해 7월 말 광명도서관 옥상에 연간 전력 생산량 9만kW 규모의 햇빛발전소 1호기를 준공했으며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 유휴부지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 행복 '소통 공모전' 광명건가다가, 12월 3일까지 접수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통공모전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가족과 관련된 자유주제(오행시 제외)로 12월 3일 오후 6시까지 센터 방문접수(그림) 또는 이메일 접수(시, 사진/gmfc79@naver.com) 한다.

광명시 관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 오행시 ▲그림 ▲사진이다. 시는 가족과 관련된 자유시며 오행시는 가족의 행복, 다양한 가정 중 제시어 1개를 택하면 된다.

그림은 가족과 관련된 그림이어야 하며 사진은 스토리가 있는 가족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된 작품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 으뜸상 6편을 선정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2-6265-1366)로 하면 된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 바쁜 일상과 코로나 잠시 잊고 가족만의 씬, 가져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 가족씬표 만들기' 행사 진행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11월 14일 안터생태공원과 가림산 들레길을 활용하여 '2020 가족씬표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200여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바쁜 일상과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한 가족들에게 심리적 방벽의 일환으로 가족트레킹 및 생태체험행사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친밀감 향상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족씬표 만들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열 체크 및 코로나 문진표 작성과 소그룹 단위로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가족들은 안터생태공원을 시작으로 광명 시립국

공장에 위치한 장애인 축구장, 하안 5단지, 시민체육관을 거쳐 안터생태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의 가족 트레킹과 '생태체험, 가족건강, 지구 살리기, 나눔'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부스, 도토리 팽이, 가족 에코백 만들기, 레몬청 만들기, 햇님땀줄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특히 우리 가족 레몬청 만들기는 2개의 레몬청을 만들어 1개를 주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임무자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 속 광명시 가족들에게 심리적 방벽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게나마 숨통이 트일 기회를 주기 위해 가족씬표 만들기를 기획하였으며, 오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광명시 가족의 건강성 또한 증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가족씬표 만들기 한 참여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 야외활동이 어려웠는데 가족과 함께 즐길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도 "들레길만 걸으면 힘들었을 거 같지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게 즐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4가지 영역으로 나눠 광명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center/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아이와 함께 놀고, 이웃과 함께 육아정보 공유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재밌고 따뜻한 공간"

경기육아나눔터 상시이용

이용 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각 다락방 비치)
- 원하는 다락방과 시간대에 맞춰 사전 예약
- 이용대장 작성 후 육아나눔터 이용(무료이용)

이용 시간

| | 이용시간 | 소독 및 정리 | 비고 |
|----------------|-------------|-------------|----------------------|
| 월~목 (2시간이용) | 10:00~12:00 | 12:00~12:20 | 시간대별 10명 인원 제한 |
| | 12:20~14:20 | 14:20~14:40 | |
| | 14:40~16:40 | 16:40~17:00 | |
| 금 (2시간이용) | 10:00~12:00 | 12:00~13:00 | |

★이용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필수
★경기육아나눔터는 소독과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장소 및 위치

철산다락방 (도덕파크 커뮤니티센터)
 소하다락방 (광명역세권후면시아4단지 커뮤니티센터)
 역세권다락방 (광명역세권후면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앞)
 씨밋다락방 (광명역씨밋플레이스 104동 1층 어린이도서관)

문의 02-6265-1366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통 공모전>

다양한 가족의 행복

공모주제 가족과 관련된 자유주제 (오행시 제외)

접수기간 2020. 11.19.(목) ~ 12. 3.(목) 18시

접수방법 센터 방문 접수(그림), 이메일 접수(시, 사진)
 - 참가신청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주소 : 광명시 디지털로 34 노들동 1동 2층
 - 이메일 접수 주소 : gmfc79@naver.com

응모자격 광명시 관내 지역주민 누구나

공모분야

| 구분 | 내용 |
|-------|--|
| 시·오행시 | *가족과 관련된 자유 시 *오행시(가족의 행복, 다양한 가정 중 제시어 택1) |
| 그림 | *가족과 관련된 그림 |
| 사진 | *스토리가 있는 가족 사진 |

시상내역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 으뜸상 6편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됩니다
 - 수상작은 2021년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제공됩니다
 - 수상 발표 예정일 12월 7일(센터 홈페이지 참조)

문의사항 02-6265-1366

시·오행시, 그림, 사진

가족의 행복, 다양한 가정



"지역 멘토와 결혼이민자가 함께하는 김치문화 이해 및 김장체험"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이틀간 김장행사



김포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멘토 및 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나섰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CJ대한통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포지구협의회, 김포복지재단의 후원으로 11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지역 멘토와 결혼

이민자가 함께하는 한국김치문화 이해 및 김장체험”을 진행했다.

19일은 센터 자체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생활문화체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김장이 진행됐다. 15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김포시의회 김계순, 최명진, 오강현 의원과 김주영 국회의원 사무실 홍수정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100포기의 김장봉사가 진행됐다.

20일에는 CJ대한통운 임직원 40명과 박상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사무실 박운순 사무국장, 이병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300포기의 절인 배추와 양념을 후원 받아 대규모의 김장

행사가 진행됐다.그 외에도 임상희 대한적십자사회봉사회 김포지구협의회장, 조남근 김포복지재단 이사, 엄희원 김포시재난안전CPR 교육단 대표 내외가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김장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을 진행하며 한국의 김치문화를 체험하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날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담근 김치는 260가정의 취약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 행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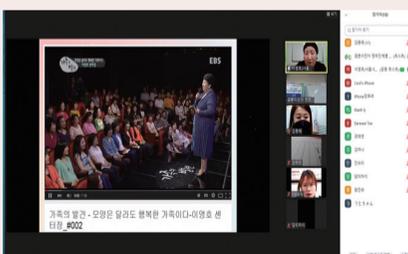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김치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배워서 너무 즐거웠고, 만든 김치를 다른 가정에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됐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김장 행사를 통해 후원단체인 CJ대한통운, 지역사회 활동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및 친구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행복한 나의 미래 "꿈꾸는 나, 당당한 나, 함께하는 우리"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한국 거주 3~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4-25일 양일에 걸쳐 ‘미래 설계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거주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면하게 될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참여자 스스로 능동적인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정착 이후의 삶에 대한 사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회기 ‘미래찾기’ 프로그램은 조금량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강의로 DISC성격유형 검사를 활용한 자기 이해를 진행했다.

이어서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이 자신의 정착수준과 지원 점

검을 통한 미래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전을 설정하도록 강의했다. 또 이를 토대로 비전을 구체화함으로써 비전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 이어질 길 찾기 프로그램은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길찾기 ▲당당한 학부모를 위한 길찾기 ▲지역정보 알기(통진도서관 탐방 및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완벽이용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들의 성장과정을 함께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유관단체 및 기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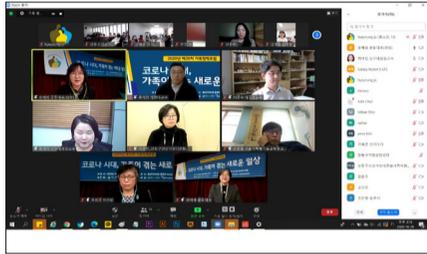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포통진도서관, 맘카페 김포맘한아름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사업의 전문성과 질을 높일 전망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0년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35차 가족정책포럼 토론문

‘코로나 일상, 가족과 국가’ 서종수 대구대학교 교수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매일같이 산책하던 마을마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낯선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던 마을,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時代), 코로나 일상은 가정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언론 기사를 통해 코로나가 유발한 가정환경의 변화를 파악해보자면, 긍정적이라고 만든 할 수 없다. 코로나와 가족을 검색하면 가족 간 전파로 인해 코로나 19가 퍼지고 있다는 기사를 제외하면 ‘코로나로 많아진 가족과의 시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수면제까지 먹인다” 코로나블루가 삼킨 장애인 가족, ‘코로나 레드’ 가정이 위험하다’ 등 코로나로 인해 유발된 가족갈등, 우울과 같은 내용이 검색된다. 낯설게 변해버린 사회환경만큼 가정 내 환경마저도 낯설게 변해 버린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가족들은 그만큼 더 많은 활동을 가족과 함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가족들과 더 많이 충돌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 돌봄과 가사부담은 커졌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가족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갈등, 해결책으로서의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가족을 지지하고 가족 기능을 보충, 대체해 주어야 할까? 사회적 안전망의 지속적 강화와 이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형성과 발달,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할까? 국가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원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원인은 가사노동 분담이 27.8%, 각자의 생활습관 21.7%,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 14.1%, 육아·돌봄 분담 문제 11.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긴급돌봄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이용 여부에 대해서 초등학생 부모들의 85.0%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감염 우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되더라도, 기본적인 불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의 이용 포기나 유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본인이 직접 하거나 어려울 경우 가족자원을 동원하여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화된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코로나 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확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20년 268개소 → ’21년 332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지원시간) 720시간→840시간, (지원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지역 중심의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가족센터 ’20년 62개소, ’21년 26개소 신규 건립),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 확대(’20년 79개소 → ’21년 88개소), 가족 상담 전문인력 확충(’20년 254명 → ’21년 306명) 등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사회 돌봄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사회의 돌봄확대, 국가의 서비스 기능확대 만을 기대해야 하는가?

경향신문의 10월 14일 자 기사 ‘돌봄 변아웃’ 부모는 지칠 대로 지쳤다는 부모는 내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공성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가장 인기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에서 ‘독박 돌봄’이라는 말 좀 쓰지 말자. 자기가 원해서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독박이라니..... 양육은 힘들지만, 죄악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 외에도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얼마나 고마운 곳 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저도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만 제가 낳은 자식은 제가 키우는 게 맞지 않습니다.’ 등이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자녀를 자기가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가족의 책임론도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대부분은 이전되고 있는 지금, 가족의 돌봄과 양육 기능에 대해 책무성과 의무감을 지닌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인가? 가족의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소소한 의견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가정이 가진 기능의 회복, 주체성의 회복처럼 보이기도 한다.

낯선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하는가? 아이는 국가가 가족과 함께 키워야 하는가? 아이는 가족이 키우고, 국가는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가?

〈중략〉
주거공간, 생활공간으로의 변화

코로나 19 이후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쉽게 타지 못한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서의 거주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집은 과거에는 단순히 잠을 자는 ‘주거공간’ 의미가 강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생활공간’의 개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식생활에서 살펴보듯이 집에서 요리하거나, 배달하더라도 식사시간은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생활도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운동도 집에서 하게 되었으며, 직장생활마저도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집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집이라는 주거공간은 개인 영역과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영역으로만 분리되었으나, 최근 직장생활을 수행해야 하므로 개인 영역은 일상생활 영역과 직장생활 영역으로 구분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방은 올인룸(All in Room)으로 변화하고 있다. 직장 생활 공간이자, 휴식공간이면서, 운동공

간이며 때에 따라서 식사공간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 일상,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족에게는 따로 그리고 또 같이가 필요하다. 집이라는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해서 시간을, 그리고 생활을 모두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에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경계선을 가진다. 따라서 코로나 일상에서, 우리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따로 또 같이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족의 돌봄과 가사노동은 같이 하되, 직장생활은 가정 내에서 따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함께 하기보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행함으로써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함으로써 가족 응집성과 협동심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존중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현상은 명료하게 정해진 실체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모두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부여된 의미에 기초하여 주변 현상에 반응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신념, 전제, 전통, 규범 등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나 정보들의 부정적인 시각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일상을 힘들게, 그리고 더 고달프게만 할 뿐이다. 가능하다면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시각에서도 긍정적 시각에 기반을 두어 현상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 가족이 겪는 새로운 일상에 관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時代), 코로나 일상에서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주최의 가족정책포럼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위드 시대에 가족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해 본다.(이 글은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 지난 10월 2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후원으로 진행한 ‘코로나 시대, 가족이 겪는 새로운 일상’ 가족정책포럼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김포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으로!

김포사랑운동본부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사랑버스투어 진행

김포사랑운동본부(이사장 임선기)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전입세대와 다문화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사랑버스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이번 행사는 김포시 전입세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여러 명소들을 탐방하며 김포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임선기 김포사랑운동본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중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김포의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명소 탐방을 통해 김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김포인으로서 자부심과 정주의식을 갖고 살기 좋은 김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아름다운 낙엽이 가득한 장경을 산책하며 가을을 물씬 느꼈고,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아이와 함께 팔찌 만들기를 하며 추억을 만들었다”며 “특히 중

봉 조현 선생의 열이 깃든 우저서원과 양촌독립운동기념관 방문으로 김포가 나라 사랑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진그룹(김포운수)에서 버스 1대, 김포외고에서 학생봉사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봉사자를 지원해 원활한 행사를 도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및 소독 실시,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현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임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김포사랑운동본부는 노인주간보호센터·경로당·새마을경로대학 등 노인집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사업, 김포종합사회복지관 긴급돌봄 어르신 대상 삼계탕 기부, 여름 휴가철 방역수칙 홍보 및 지역산품 애용을 주제로 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추석명절 지역 4대 산품(김포금쌀, 포도, 인삼, 배) 애용 캠페인, 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 청소년 대상 여성용품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김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자랑스러운 엄마, 이제 미혼 한부모가정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멋진 부모와 행복한 자녀 위한 김포 '도담학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1월 7일(토)부터 21일(토)까지 총 3회기에 걸쳐 김포시 미혼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실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2020 김포복지재단 공모사업, 미혼모 부모-자녀 돌봄사업 : 자녀와 함께하는 김포 '도담학교'를 진행했다.

“멋진 부모! 행복한 자녀!-당당한 한부모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혼출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소득 미혼한부모 대상 주거환경개선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 지원, 경제적 부담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혼 한부모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이들의 돌봄네트워크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들은 자녀 생부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거나 한부모가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등 돌봄과 가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집단상담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부모-자녀간 가족관계 강화, 멘토링 자조모임 실시를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및 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돌아보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여 미혼 한부모 가정의 부모로서의 자긍심과 정서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무설계의 필요성 인식을 통해 생애주기별 설계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저축상품과 보험,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 선택 및 활용방안을 교육했다.

또한 자조모임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교육을 통하여 부모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 부모자녀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 한부모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지 많이 배웠으며, 항상 똑같은 패턴의 삶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연화 센터장은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지역 아동들의 즐거운 상호문화 이해”
 과천건가다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진행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9회기에 걸쳐 지역 내 아동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이음사업은 6월부터 지역 아동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신청을 받아 신청한 아동기관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8~9월 2개월 동안 5회기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활동키트 수령 및 프로그램 진행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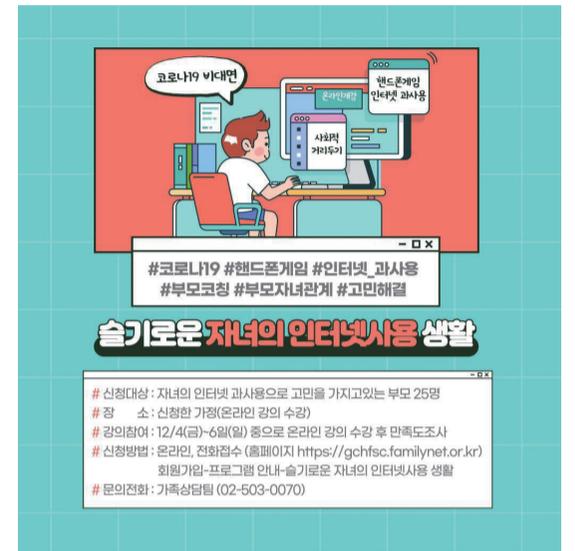
다이음사업 수업에서는 실제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사는 대만 출신 강사가 직접 커리큘럼을 계획한 것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통해 아동들은 다른 나라 인사말과 언어, 전통의상, 전통음식, 대만 동요를 실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궁극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가 친구임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진행한 대만 출신 다문화강사는 “강의 시간 중에서 특별히 아동들이 일부 앞으로 나와 다문화 강사와 직접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라며 “대만 동요를 따라 부르는 시간에는 강의를 듣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한 어린이집은 교육이 끝난 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고 의미 있었다, 권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 강의를 진행한 강사도 “의미 있는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10월~ 11월 신청한 지역 아동 유관기관과 다문화강사 시간에 따라 14회기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과천건가다가, '슬기로운 자녀 인터넷사용 생활' 온라인 진행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의 인터넷 과사용으로 고민을 하는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자녀의 인터넷사용 생활’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12월 4일~6일 중 온라인 강의 수강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gchfsc.familynet.or.kr>) 또는 전화(02-503-0070)로 받으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안내- 슬기로운 자녀의 인터넷사용 생활을 클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가족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ที่อยู่อาศัยทางสังคม의 경우 기도, 부동산 투기, 임대료 부담, 주택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รัฐบาลยังคง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ด้าน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นั้น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ที่อยู่อาศัยนั้นรุนแรง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ในเขตปริมณฑลวิกฤตการณ์ กำลั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และแทนที่จะเติมเต็มความฝันในการสร้างบ้านของตัวเองจำนวน “ผู้ลี้ภัย” 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นอกจากนี้บางครอบครัวประสบปัญหา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เนื่อง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ที่เปลี่ยนไปจำนวนครอบครัวสามคนที่มีเด็กหนึ่งคนและมีเด็กเพิ่มขึ้นหนึ่งคน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ที่มีอยู่เป็นสี่คนและปัจจุบันครอบครัวที่เป็นคนโสดกำลังมีครอบครัว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ที่อยู่อาศัยเพื่อสังคม กำลังดึงดูดความสนใจเพื่อเป็นทางเลือกในการเอาชนะข้อจำกัด ของ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เช่นการ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คนเดียว และ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สาธารณะของกิดจึงตัดสินใจที่จะ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ของที่อยู่อาศัยขั้นพื้นฐานไปยังที่อยู่อาศัยเพื่อสังคมเพื่อช่วยให้ผู้ที่อ่อนแอมีเสถียร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

- ที่อยู่อาศัยทางสังคมของกิดคือสังคมสงเคราะห์เป็นที่อยู่อาศัยขั้นพื้นฐานอีกรูปแบบที่

ที่อยู่อาศัยขั้นพื้นฐานของกิดเป็นรูปแบบที่อยู่อาศัยแนวคิดใหม่ที่ไม่จำกัดคุณสมบัติของผู้เช่าตามรายได้หรือทรัพย์สินและอนุญาตให้คนไร้บ้านจ่ายค่าเช่าต่ำกว่าราคาตลาดใน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นทำเลที่ดีเช่นพื้นที่สถานีและอาศัยอยู่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 30 ปีขึ้นไป

ที่อยู่อาศัยเพื่อสังคมมีลักษณะเด่นคือที่ดินเป็นของสาธารณะ แต่อาคารนี้เป็น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เศรษฐกิจสังคมที่ไม่แสวงหาผลกำไรเช่น บริษัท ที่ไม่แสวงหาผลกำไรองค์กรสาธารณประโยชน์สหกรณ์กิจการเพื่อสังคมและวิสาหกิจในหมู่บ้าน

ในขณะที่มีการวิพากษ์วิจารณ์ว่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สาธารณะที่มีอยู่ทำให้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รุนแรงขึ้นโดยการกำหนดผู้เช่าตามรายได้ที่อยู่อาศัยเพื่อสังคมของกิดให้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อยู่อาศัยที่มีนัยสำคัญสำหรับผู้ที่ยากจนต่อที่อยู่อาศัยที่ไม่รวมอยู่ใน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

ที่อยู่อาศัยน้อยกว่า 60% จะถูกจัดหาให้กับคนจรจัดเป็นอุปทานทั่วไปและ 40% ขึ้นไปจะถูกจัดหาเป็นพิเศษให้กับเป้าหมายนโยบายต่างๆ เช่น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 ,ผู้พิการ,ครอบครัวที่ยากจนและผู้สูงอายุ พื้นที่

พิเศษน้อยกว่า60m²ต่อครัวเรือนและพื้นที่ชุมชนมี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ด้วยพื้นที่พิเศษ 10% หรือมากกว่าและการใช้ พื้นที่ชุมชนจะพิจารณาจากความคิดเห็นของผู้เช่า ค่าเช่าถูกประมาณ 80% ของราคาตลาดโดย

โครงการนำร่องแรก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 Gyeonggi Housing and Urban Corporation (GH Corporation) ในฐานะ “ที่อยู่อาศัยเพื่อสังคมประเภทสหกรณ์เช่าที่ดิน” เมื่อหน่วยงานเศรษฐกิจสังคมเสนอที่ดินที่ต้องการ Gyeonggi-do ก็เชื่อมั่นเป็นหลักประกันความเป็นเจ้าของและปล่อยเช่าในราคาต่ำมานานกว่า 30 ปี ในสถานที่เช่านิติบุคคลเศรษฐกิจสังคมสร้าง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ให้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แก่สมาชิกที่จัดการผ่านสหกรณ์เพื่อสังคม

GH Corporation วางแผนที่จะส่งเสริมการจัดการที่อยู่อาศัยเพื่อสังคมในขนาดประมาณ 50 ครัวเรือนซึ่งเป็นหน่วยที่เล็กที่สุดที่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ชุมชนได้ มี

Namyangju Westay Byulnae พาร์ทเมนท์ซึ่งเสร็จสิ้นการย้ายเข้าใน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นี้เป็นสังคมที่อยู่อาศัย <한글 기사 13면>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최대호 안양시장, 어린이에게 행복 미소를!

안양건가다가 등 아동학대 예방주간 맞이 연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11. 19)을 기려 지역사회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합 캠페인이 지난 20일 안양4동 2001아울렛 앞 일대에서 전개됐다.

안양시 공무원을 비롯해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만안(동안)경찰서, 함께하는 한숲, 경기남부일시보호소, 일시청소년쉼터민들레뜨락,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9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40여명의 캠페인단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전시해 행인들의 시선을 불러 모았다. 아동학대를 예방 안내문구가 적힌 물티슈와 볼펜 등도 배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에는 관내 식당가를 방문해 이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에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에게 행복의 미소를 안겨주자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영리 기구)가 아동을 상습적 학대와 폭행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11월 19일로 제정했다.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지는 기자

한림대성심병원,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지난 11월 13일 안양시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진행된 안양시새마을회·안양시새마을부녀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김기현 행정부원장, 심정은 간호부장, 이승대 총무팀장은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전달했다. 함께 담긴 3000포기 김장 김치는 안양 시내 어려운 이웃과 홀로 계신 어르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매년 원내 봉사단체 '느린소봉사단' 소속 교직원 50여 명이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여 일손을 도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

게 참석하지 못하고 과천시새마을회 주관 김장나누기 행사에 이어 감사하는 마음과 후원금으로 대신했다.

심정은 간호부장은 "매년 행사에 참여해 함께 김장을 담갔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교직원 봉사단체가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인근 지역 안양시 주민들을 위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안양시새마을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교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안양·군포·과천·의왕 지역의 유일한 삼급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 이지는 기자

안양시립도서관, 비대면 중심 연말 문화행사 프로그램 풍성

안양시립도서관이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 위주의 다양한 12월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삼덕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마술로 전달하는 공연 '도와줘요! 매직더터'(10일)를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며,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책 읽는 크리스마스 특강'(14-15일)은 비대면 화상교육 프로그램인 줌으로 선보인다.

박달도서관은 그림책 창작과정에 대해 들어보는 '「은행나무」 김선남 작가와의 만남'(5일)과 겨울을 주제로 한 '독서감성아트 특강'(9-10일)을 줌으로 진행한다.

관양도서관은 웹툰창작체험관 수강생 작품 등 전시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무드 등(9일) 및 트리 액자 만들기(12일)를 도서관 3층 문화교실2에서 진행한다.

평촌도서관은 안양 지역작가인 정란희 작가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 집행위원장의 북토크 '「무명천 할머니」로 듣는 제주 43 이야기'(16일)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또한 권오준 생태작가의 '동화책을 통해 보는 세계적 새 이야기 특강'(14일)은 도서관 2층 문화교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 마음의 동화' 자원봉사단의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23일)과 광명미 작가의 '소확행 그림책 테라피'(5-12-19일), '시민생활법률 강연'(14일) 등 다양한 비대면 행사도 준비돼 있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각 행사별로 참여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다문화가족들도 지역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이지는 기자

2020년 미혼남녀교육

소중한 만남, 좋은 인연

대상
- 미혼남녀 40명(선착순 접수)

참가비
- 무료

일정
1회기
- 주제: 연애의 발견
- 일시: 12/13(일) 13시~15시
- 방법: 실시간 온라인교육 (zoom)

2회기 * 1회기 교육 수료 후 참여 가능
- 주제: 이성에게 선물할 향초 만들기
- 일시: 12/14(월)~12/20(일)
- 방법: 센터에서 재료수령 후 가정에서 만들기
수령가능일: 12/14(월)~12/19(토)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 태내기 부모교육

"10개월의 기다림 그리고 부모미래역할"

대상: 임산부 및 그 가족 15명 (선착순 마감)
일정: 해당 일정과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교육방법 |
|-----|--------------------------|---------------------------------------|--|
| 1회기 | 12.07.(월) 19:30~21:00 | 건강한 모유수유법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교육 |
| 2회기 | 12.09.(수) 19:30~21:00 | 임산부의 태고 및 건강관리 | |
| 3회기 | 12.12.(토) 10:30~12:00 |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 *부부가 함께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4회기 | 12.12.(토) ~12.19.(토) | 임링 태고 활동 : 마크라메 쪽쪽이 풀링 만들기 | 센터에서 재료수령 후 동영상 시청 재료수령일: 12/7(월)~12(토) |

참가비: 무료
접수방법: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nyang.familynet.or.kr/>) 또는 전화
문의: 교육상담팀 나혜주 (031-8045-6392)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아기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기술"

일시: 12월 11일(금) 13:00~15:00 (총 1회)
장소: 온라인(ZOOM)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일정

| 일시 | 시간 | 주제 | 내용 |
|------------|---------------|---------------------|--|
| 12월 11일(금) | 13:00 - 15:00 | 유아기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기 자녀의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 양육스타일 진단과 이해 아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양육기술의 이론과 실천 |

참가비: 무료
신청접수: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031-8045-5573 (담당자: 최병현)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11월 18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업보고대회 및 한국어교실 수료식을 진행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가족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댓글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돼 시선을 끌었다.

오연주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초기에는 예상 못한 상황에 센터 사업을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줌을 통한 비대면 한국어 수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아이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 방역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바이러스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함께한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훌륭하다”며 “다문화가족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달라. 어려울 때 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행은 “다양한 가족의 행복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사업보고회 및 한국어교실 수료식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튜브 생방송 온라인 이벤트 진행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수강생 ‘다우니’팀의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표창장 시상, 수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연주 센터장 등 8명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로 최대호 안양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지난 4월부터 비대면 교육(Zoom)으로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한 46명은 수료의 기쁨을 안았다.

이날 온라인 이벤트는 유튜브 센터 영상에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착순 300명에게 기프티콘이 문자로 발송됐다.

안양시는 시민과 건강가정의 욕구에 발맞춰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다문화가족 지원 등 70여개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다.

송하성 기자

“어떤 어려움도 가족이 함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기가족 관계향상지원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

2017년 다문화인구 동태를 파악해보면 다문화가족 이혼은 1만300건으로 혼인건수의 46%에 육박한다. 이러한 위기가족의 해체 및 위기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례발굴 및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위기가족관계향상지원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를 운영했다.

올해 ‘뭉쳐야 뜬다’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없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최근까지 이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관계개선을 위한 센터 차원의 노력을 힘없이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가족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 가족을 선정해 가족리마인드사진 및 가족사랑영상편지 촬영과 가

족상호작용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당초 1박2일 제주도 여행 등의 일정이 있었으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무산된 뒤 가족사진 촬영이라는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사례관리 대상 가족들에게는 가출, 이혼, 재혼, 자살, 폭력, 정신질환 등의 다양한 위기가 찾아왔으며 이들은 발생한 문제를 기존의 대처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해 가족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전의 평행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경제 기반의 와해, 가족 내 역할변동, 긴장, 폭력 등으로 나타나 자칫 가족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기 가족들은 가족사랑 영상편지를 사전(9월 24일,

26일)에 촬영해 11월 1일 행사에서 상영했다. 가족사진 촬영이 대단치 않은 일일지 모르나 위기가족들에게는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확인하는 특별한 이벤트로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센터 관계자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다문화가족을 발굴하여 개입함으로써 가족기능회복에 중점을 두어 왔다”며 “코로나 시대에도 전통적인 사례관리 외에도 가족 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이벤트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가족이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온라인으로 가족과 소통하며 참여하는 색다른 다문화이해교육’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글로벌로 만난 사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글로벌로 만난 사이’를 진행했다.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에는 방역을 마친 넓은 강의실에서 다문

화 및 비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멘토 1명과 강사 1명, 대상자 4명으로 구성해 대면 교육 ‘여름방학 열린학교’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감수성 향상 및 심리 정서놀이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다.

당초 8월 11~24일까지 18회기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8월 15일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 프로그램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블루로 고생하는 다문화 비다문화가족이 많아 집에서 가족과 소통하면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할 수 있는 키트와 다문화이해 활동북을 제작하여 ‘글로벌로 만난 사이-언택트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키트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가족과 집에서 홈캠핑을 하며 캠핑 음식과 아시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세계 전통 가옥, 세계 음식 모형 키트를 함께 만들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양성평등을 가정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자주 만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매년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올해는 색다른 방식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다문화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华城市儿童文化中心, 有丰富体验活动的地方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외국인주민 자녀들도 하루 종일 즐거운 체험 ... 추운 겨울 실내 활동으로 최고!

小编的儿子前段时间通过幼儿园的参观学习去了华城市儿童文化中心, 回来之后还一直念念不忘想再去一次。到底是什么样的地方让孩子这么喜欢呢, 小编也非常好奇, 因此周末带上孩子再去了一趟。一起来看看是什么样的地方吧。

预约与收费

华城市儿童文化中心(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需要预约才可以进去。预约并不难, 进入官网之后, 选择日期, 并选好是上午还是下午后, 付款即可。如果是华城市的儿童, 一张体验券是7000韩元; 非华城市的儿童则是13000韩元。同伴的父母也要收费, 华城市居民是4000韩元, 非华城市居民是7000韩元。小羊妈妈作为非华城市居民, 觉得价格跟一般的公共活动设施相比有点贵, 但是进去了之后发现里面的活动内容确实挺丰富的。

预约地址: <http://childrenjob.hscity.go.kr>

活动体验方式

文化中心里最主要的活动就是儿童体验馆(키즈체험관)。一开始小编也花了点时间才明白了这个体验馆是怎么运作的。简单地说明一下, 就有点像学校一样, 有11间课室, 每间课室里各有一项体验活动。上午和下午分别有5个时间段, 每个时间段分别可以参加一个课室里的体验活动。在一节课开始之前, 小朋友们选好自己想参加的体验活动后, 在该课室门口前面的椅子上坐好, 到了开始时间老师们就会让小朋友们进去课室里坐好, 开始活动; 到了结束时间, 下课铃声响起, 有十分钟休息时间, 小朋友们又可以重新选择想要参加的体验活动。也就是说, 一张券(上午券或者下午券)最多可以参加5个体验项目。所以要

来玩的话, 最好在第一个活动时间开始前到哦, 这样才能最多参加5个体验项目, 要是来晚了, 能参加的项目就少咯。

小编的儿子就是在幼儿园来参加活动的这天玩得不够, 还想再参加其他的活动所以一直想再来一次。文化中心里有11个体验馆, 一共有三层, 首先负一层有四个, 分别是化石挖掘现场(화석발굴현장)、恐龙复原图工作室(공룡복원도작업실)、建筑游戏学校(건축놀이학교)和妇产科(산부인과); 二楼也有四个, 分别是智能农业研究所(로봇스마트농업연구소)、机器人工学研究所(로봇공학연구소)、当地食品市场与餐厅(로컬푸드마켓&레스토랑)和游览船(마리나); 三楼有三个, 分别为角色设计学校(캐릭터디자인스쿨)、文化遗产摄影棚(문화유적스튜디오)和未来汽车研究所(미래자동차연구소)。

除了这些活动项目之外, 原本中心里还有一些游乐场地, 可惜因为疫情的关系都没有开放。另外, 还有定期举办的活动和展览, 比如现在正在举办的“微生物的世界”的展览, 小编的儿子也看得津津有味。

天气渐渐冷了, 如果想带孩子在室内参加一些体验活动的话, 这里的活动正适合幼儿园和小学低年级孩子的胃口; 而且在活动的过程中, 工作人员都会指导孩子们保持距离, 在防疫上也做得让人非常安心。想带孩子参加丰富的体验活动, 小编觉得这里是个不错的选择哦。

필자의 아들은 얼마 전 유치원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에 갔다온 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

렇게 좋아할까 궁금해서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다녀왔다. 함께 알아보자.

예약 및 요금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예약해야 들 어갈 수 있다. 예약은 어렵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전이나 오후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화성시 어린이들의 경우 체험권 1장은 7000원. 비화성시 어린이들은 13000원이었다. 동반하는 부모도 비용을 받는다. 화성시 주민은 4000원, 비화성시 주민은 7000원이다. 비화성시 주민인 소양 엄마는 웬만한 공공 시설에 비해 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다.

예약주소: <http://childrenjob.hscity.go.kr>

이벤트 체험 방식

문화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키즈 체험관이다. 이 체험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양엄마도 둘러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쉽게 설명하면 학교처럼 11개의 강의실이 있고 각 강의실마다 1개의 체험교실이 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시간대별로 한 강의실에서 체험할 수 있다.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체험프로그램을 고른 뒤 강의실 앞 의자에 앉는다. 시작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수업실에 앉히고 활동을 시작한다.

마감시간이 되면 수업종료벨이 울리고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다음 어린이들은 다시 원하는 체험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한 장의 체험권(오전권이나 오후권)으로 최대 5개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놀러 오려

면 첫 체험행사 시작 전에 도착하는 게 좋다. 그래야 최대 5개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늦으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적어진다.

작은 방마다 마치 작은 강의실 같아서 체험을 하려면 체험 시작 전에 현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필자의 아들은 유치원에서 활동한 그날 체험놀이를 다하지 못해 또 다른 활동을 체험하고자 다시 오고 싶어한 것이다. 문화센터는 총 3개 층이고 11개의 체험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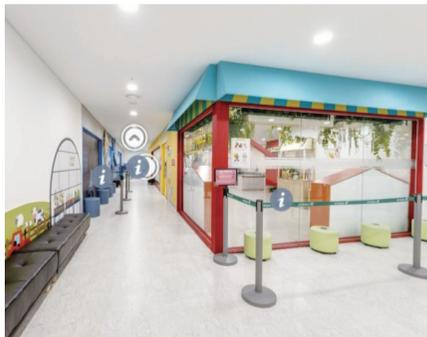
먼저 지하층에 4개의 체험관이 있다. 화석발굴현장, 공룡복원작업실, 건축놀이 학교 및 산부인과. 2층에도 4개가 있다. 스마트농업연구소, 로봇공학연구소, 로컬푸드마켓&레스토랑 및 유람선 등이다.

3층은 캐릭터디자인스쿨, 문화유적스튜디오 및 미래자동차연구소 등 3개가 있다.

이러한 활동 항목 외에도 원래 센터에는 놀이기구가 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때문에 개방되지 않는다. 또 현재 '미생물의 세계'라는 전시와 함께 정기적인 행사와 전시회도 열려 편잡자 아들도 즐겁게 놀았다.

날씨가 추운 계절에 실내 체험을 하고 싶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센터로 가보자. 한편 행사 내내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도록 지도해 방역에도 신경을 썼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하고 싶으면 이곳은 좋은 선택인 것 같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홍연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가리마시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Part
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상담
매뉴얼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개요

01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조)**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text{상시 근로자} = \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 \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포함(일용직, 미등록근로자 포함, 파견직 불포함)

TIP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재정,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3570, 2006.7.21.).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중요조항

근기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해고의 예고) 제36조(금품 청산)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3조(임금 지급)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3조(적용의 제외)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4항 제71조(시간외근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주요 법규 적용범위

| 근로자수 | 근로시간 | 가산금 적용 (연장/휴일/야간) | 휴업수당 | 연차휴가 | 퇴직금 | 해고 | | |
|------|-------|----------------------|------|------|-----|------|------|--------|
| | | | | | | 해고제한 | 해고예고 | 절대해고금지 |
| 5명이상 | 주40시간 | 50% 가산 | 70% | ○ | ○ | ○ | ○ | ○ |
| 4명이하 | 주44시간 | 적용 × | 적용× | 적용× | ○ | × | ○ | ○ |

-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도급이든, 용역이든, 업무위탁이든 불문하고 도급 또는 위탁업체가 수탁 받은 업체의 근로자를 직접 지시 감독하면서 자기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킨다면 위탁업체나 도급업체가 사용자이다.

- 하수급인이 사용자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수급자가 독립적으로 근로자 임면권을 가지고 공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독립된 판단에 의해 수행하고 자체경비로 자재와 경비를 부담하며 자기 책임 하에 임금수준을 결정하며 잉여금을 자기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작업방법, 진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원도급인이 사용자이고,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이 수차례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원도급인이 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TIP

도급계약 체결 시 목공, 미장 업무 등과 같이 단순한 "노무도급"만을 준 경우, 목공 등(십장, 오야지)이 다시 자기의 이름으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고용인(십장, 오야지)이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급인도 2차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노무 수급인(십장, 오야지)이 자기 책임 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도급인이 해야 할 일을 수급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수급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 책임을 진다.

03

근로계약 위반

가. 원칙

사용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의 계약 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무효임.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상위규범우선의 원칙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상담 매뉴얼

다. 위반의 효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강행규정).

02

근로자 및 사용자

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판단기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결정 되는지 여부

작업거부의 가능성이 있는지, 작업지시와 복무규율의 유무(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결정되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원 2005도8364)

- 파견, 도급, 용역, 아웃소싱, 외주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사용자의 판단

- 판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체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체를 중요시 한다. 즉, 실제로 노동을 시키고 지시, 감독을 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상담 매뉴얼

-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리 조건 우선 적용

나.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구제 방법

근로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 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과 일반법원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일반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단,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방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 사용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로관계 상담 Q&A(근로계약위반)

Q 입사 후 3개월 동안 통상임금에서 10%를 감급당한다 있으며,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으로 통상임금의 약 20%를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함.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공제통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A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적용여부와 숙식비 관련 항목을 확인해야 함. 만약, 수습기간 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감급을 했다면 감급액 전부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2018. 3. 20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100% 지급해야하며, 이는 2018. 3. 20.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함. 최저임금법 상 단순노무직종은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함.

숙식비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 숙식비 역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Скромный парень из Намьянга, Тен Сергей(인터뷰)

<인터뷰> 텐 세르게이, 이주배경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행동프로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번은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듣는 이주민이 자신의 자녀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한다고 문의를 했습니다.

세르게이라는 이 친구는 11살부터 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현재 수원고등학교 2학년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잘 구사합니다. 그런데 세르게이는 봉사할 곳을 찾는 여느 고등학생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름은 텐 세르게이이고 17살이에요. 저는 11살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 산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요.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교(인천한누리학교)에서 4개월 동안 공부한 후 초등학교 6학년에 진학했어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조종사예요! 처음에는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한때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이주민으로서 번역도 잘 할 수 있지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언제나 노력하면 그 일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르게이는 영혼이 있는 것을 시도하고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생활 중 어려움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은 주요 주제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어요. 한국어 회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 수학, 기타 과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외웠어요. 어느 시점이 되자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녔던 모든 학교에서 저는 혼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과 한국어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항상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어 선생님이 있었고 심지어 휴일에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어요. 가끔은 특히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멈추고 흐름을 따르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세르게이는 부모와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매우 개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요. 최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말하자면, 마음을 바로 잡았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우리에게 모든 필요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았어요.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부모님이 매우 힘들어 하세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부모님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모아 나심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하면서 세르게이는 열심히 노력하고, 언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아이들은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그런 지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센터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면 한국 생활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일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때로 억지로 공부를 시켜야돼요. 많은 것이 부모님에게 달려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지만 부모가 더 자녀들이 삶의 자리를 찾도록 도울 수 있어요”

거의 한 시간 동안 세르게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르게이는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오거나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도와주며 한국 아이들과 더 많이 소통할 것을 제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은 학교를 다녀서 어렵지만 방학 때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한국에서 외국인이라고 느껴지나요?

“절반은요.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같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동시에 집에 있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30년 후 자신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회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성공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든든한 가정을 갖게 될거예요. 행복한 가족이 목표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 목표가 아닐까요”

세르게이는 외국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노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르게이는 현재 틈날 때마다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어린이와 교사의 통역을 돕고 있습니다.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는 평일 월~금 오후에 외국인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도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 어린이들이 이용합니다. 일요일에는 성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오전과 오후에 진행됩니다.

Я узнала о Сергее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о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Можно ли в Вашем центре работать волонтером? -спросила меня как-то после занятий одна из учениц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сияцентре.

Вопрос меня смутил, так как среди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нятие волонтерства не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

-Вы хотите работать волонтером?

-задала я встречный вопрос, чтобы не показать своего смущения.

-Нет, я не себе. Я спрашиваю для сына. Он хочет работать волонтером. Он учится во 2 классе старшей школы.

В старшей школе корейские ученики должны набрать волонтерские часы,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свои баллы дл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 поведению. И поэтому этот вопрос родителя страшнее о школьника был вполне обычным для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школьника. Но Сергей - так зовут того самого школьника, который искал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 школьник не совсем обычный, на мой взгляд. Убедитесь в этом сами.

-Привет. Расскажи о себе.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Тен Сергей Юрьевич, мне 17 лет. Я приехал в Корею в 11 лет, в Корею я уже 6 лет. Я учусь в старшей школе. Вначале я учился в Инчоне 4 мес в специальной школе (인천한누리학교), где учатся иностранные дети с разных стран, после этого я пошел в 6 класс нач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Сергей прожил в Корею 6 лет, с 11 лет. Сейчас он учится во 2 классе старшей школы в г.Сувон и говорит одинаково хорошо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и признается, что не сложно говорить и думать на 2 языках, и не путать их. Узнав это, я ни на минуту не сомневалась, что он хочет связать свое будущее с профессией лингвиста, с языками, с перевод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미래창의 과학기술 접할 기회 주어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핸즈온캠퍼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창의공학 체험 진행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지난 11월 17일 서울 핸즈온캠퍼스에서 '마음E-편한여행' 3회기 창의공학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화성시 관내 4~6학년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레고, 로봇, 코딩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과학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심도 있는 체험을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울 핸즈온캠퍼스는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 코딩 교육을 체험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교육 체험관이다. 이 캠퍼스의 중요한 교육 도구 중 하나인

레고는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계장비를 레고를 이용해 모의로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 공학이 접목된 레고로 만들어진 산업기계 장비는 실제 장비를 구현하는 예비 단계에서 만들어져 활용된다. 이 레고 장비는 실제로 작동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오늘 교육을 통해 로봇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코딩도 실제로 해보니 꽤 재미 있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현주 센터장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미래과학과 코딩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알

기회를 줘야 한다. 아이들이 충분히 과학기술의 미래를 배울 수 있도록 6시간 이상 충분히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핸즈온캠퍼스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에서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창의인재교육이 절실하다"며 "상대적으로 창의공학 체험을 할 기회가 적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 이 아이들 중에도 창의 로봇공학의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핸즈온캠퍼스, CAF아메리카, HP재단 등이 후원했다.

송하성 기자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날로 커지는 다문화이해 강사의 역할 주목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감수성 높은 다문화이해 강사 심화과정 12회기 운영해 눈길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이해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

다문화이해강사의 능력 개발과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

동체 의식을 키우며,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이해를 높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12회기 동안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해 다문화이해강사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7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을 통해 다문화이해 강사의 수업을 교정하고, 교재 교구를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이해 교육시 나라별 문화 소개에 치우친 수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수업 참여 학생들이 다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이해강사들이 먼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다방면에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피치 트레이닝,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 다양한 수업 내용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라며 "실제로 인종 및 문화, 종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벌어지는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행복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전문기관이다.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인 갈등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